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책임연구자 : 소수연

공동연구자 : 김경민

양대희

안지영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이현숙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 176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 쇄 : 2013년 12월

발 행 : 2013년 12월

발 행 인 : 구 본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93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사) 한국장애인 e-work 협회

비매품

ISBN 978-89-8234-522-7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책임연구자: 소수연 ; 공동연구자: 김경민, 양대회, 안지영,
김승윤, 유준호, 지수현, 이현숙.
--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 176)

권말부록: "현장 전문가 요구조사 설문지" 등
참고문헌 수록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ISBN 978-89-8234-522-7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94330

부모 교육[父母教育]
청소년[靑少年]

598.125-KDC5
649.125-DDC21

CIP2013027670

간행사

최근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사회적인 다양한 변화로 인해 청소년기가 일찍 시작되어 그에 따라 청소년 문제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 중 하나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바로 서고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되고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신체적·정신적·인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국내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문헌과 연구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고, 부모교육 현장 전문지도자, 학부모, 청소년들을 모시고 초기 청소년기 특성과 부모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시범운영지도자의 높은 만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김정애선생님,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신수정선생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백중하선생님, 인천시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선경선생님, 안경수 선생님,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덕진소장님, 안양시 신안초등학교의 박라미선생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소수연 상담조교수, 지수연 팀장, 김경민선생님, 양대회선생님, 김승윤선생님, 안지영선생님, 유준호선생님, 이현숙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 예방과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원장 구본용



초 록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가 생기고 가족관계, 학교생활 및 진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수행하도록 요구 받지만 발달적·심리적 미성숙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느낀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와 같은 자녀의 변화에 많이 놀랄 뿐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시행착오를 겪는다. 부모가 양육에서 느끼는 이러한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약화시켜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와의 갈등과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을 계발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 예방에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효과적인 지지체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첫째, 기획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을 위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대상 서면을 통한 요구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과 부모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실시한 문헌연구와 요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원리를 도출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평가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초안을 시범 운영하여 효과를 평가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 부모,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도출된 프로그램 구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들이 이 시기의 자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둘째, 발달 단계로써의 초기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초기 청소년기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더욱 높인다. 셋째, 후기 청소년기 자녀들이 보일 수 있는 부적응 문제 예방을 위해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을 습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육방법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구성요소로 제공한다. 넷째,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에도 초

점을 맞춘다. 다섯째, 부모가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목표 하에 이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 총 3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을 시행한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부모 양육효능감과 부모의 자기성장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개방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시범운영을 실시한 지도자들이 평가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질적 평가 결과, 본 프로그램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적절하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와 의견 등을 수집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확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는 기존에 없었던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시기 부모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요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성을 높이고자 몇 가지를 제언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규정을 선행 연구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사춘기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기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므로 발달 단계를 세분화하여 이에 대한 개입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처럼 발달 단계와 대상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개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과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초기 청소년기의 이해	5
2.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8
3. 부모교육 프로그램	12
III. 연구방법	33
1. 프로그램의 개발 모형	33
2. 연구과정	34
3.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	69
IV. 연구결과	76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76
2. 프로그램 참가자 및 지도자 평가	82
3.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96
V. 요약 및 논의	100
1. 연구 요약	100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03
참고문헌	105



부 록 | 115

부록 1. 현장 전문가 요구조사 설문지	117
부록 2. 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122
부록 3. 초기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123
부록 4. 부모교육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124
부록 5. 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125
부록 6. 초기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136
부록 7. 부모교육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152
부록 8.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167
부록 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168
부록 10. 자기성장 척도	169
부록 11. 참가자 전체 피드백	171
부록 12. 참가자 회기 별 피드백	173
부록 13. 지도자 피드백	176



I 표

표 II-1. 국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18
표 II-2.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논문	20
표 II-3. 부모·자녀 관계변인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분류	23
표 II-4. 국내 기관 개발 부모교육 프로그램	25
표 II-5.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28
표 III-1. 부모교육 현장 전문가 요구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36
표 III-2. 부모교육 현장 전문가 요구조사 내용	38
표 III-3. 초기 청소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40
표 III-4. 부모 포커스 그룹 참여자 일반사항	42
표 III-5. 청소년 포커스 그룹 조사 대상 일반 사항	50
표 III-6. 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조사 대상 일반사항	55
표 III-7.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모형	66
표 III-8.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 내용	68
표 III-9. 초기 청소년기 부모교육 시범운영 지도자 특성	71
표 III-10. 측정도구	72
표 III-11. 초기 청소년기 부모교육 시범운영 참가자 특성	72
표 III-12.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하위요인 별 문항 구성	73
표 III-13. 부모-자녀 관계 의사소통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74
표 III-14. 자기성장 척도 하위요인 별 문항 구성	75
표 IV-1. 집단별 부모 양육효능감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77
표 IV-2. 집단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79
표 IV-3. 집단별 부모의 자기성장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80
표 IV-4.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및 현장 활용성 평가	86



표 IV-5. 프로그램 회기 별 강점	88
표 IV-6. 프로그램 회기 별 수정 및 보완할 점	91
표 IV-7. 프로그램 회기 별 전문가 감수 의견	95
표 IV-8.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정 내용	97
표 IV-9. 최종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98

Ⅰ 그림

그림1.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33
그림2. 집단에 따른 부모 양육효능감(전체) 사전·사후 평균변화	77
그림3. 집단에 따른 부모로서의 효능감(하위 요인) 사전·사후 평균변화	78
그림4. 집단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하위 요인) 사전·사후 평균변화	78
그림5. 집단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사전·사후 평균변화	79
그림6. 집단에 따른 부모의 자기성장(전체) 사전·사후 평균변화	80
그림7. 집단에 따른 자기수용(하위요인) 사전·사후 평균변화	81
그림8. 집단에 따른 자기개방(하위요인) 사전·사후 평균변화	81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 중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시기로,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와 의존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존재이다(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7).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가 생기고, 가족관계, 학교생활 및 진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학교환경, 교사와 또래관계의 변화,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Akos, 2002; Elias, 2002; Elias, Ubriaco, Reese, Gara, Rothbaum, & Haviland, 1992; Mullins, & Irvin, 2000).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에 해당되는 초기 청소년기는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른 어떤 시기의 청소년들보다 크다(이희정, 조윤주, 2010). 그러나 초기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만 발달 특성 상 아직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므로 당면 문제에 대해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충동적으로 자살 생각을 하거나 시도하는 등 문제가 외현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박아청, 2004). 더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러한 발달적 스트레스와 함께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서구 문화권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심각한 적응 문제를 보이는데(Lee, 2003), 특히 중학교로 진학하는 초기 청소년기에 학업과 성적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에서 초기 청소년기의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과 정신건강 문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Duncan, & Yeung, 1995; Grant, Compas, Stuhlmacher, Thurm, & McMahon, 2003). 구체적으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충동성, 비행, 폭력 등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표출되며(Grant, Davis, Roache, Thurm, & McMahon, 2003; 김지현, 2006; 정경택, 2003), 초기 청소년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지위비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영, 권혜진, 김경희, 김수강, 염순교, 2005). 권은영과 정현희(2011)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2까지 초기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중단연구를 살펴보면, 시간 경과에 따라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특히 중학교 진학 전·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걸쳐 증가의 폭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탈경험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초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일탈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고, 이는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Lyons, 2004). 이러한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은 성인기의 문제 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신체폭력, 범죄행동, 배우자 학대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ribata, 2006; Kalb & Williams, 2002).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초기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여러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초기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는 일탈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더구나 초기 청소년기에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은 만성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atterson, Capaldi, Bank, 1991). 그리고 최근 국내 청소년 문제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으나 초기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청소년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예방책 모색이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증가는 빠르면 빠를수록, 즉 이른 개입 시기인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지원의 영향과 변화에 대해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방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문제 해결의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친밀한 사회관계망을 의미하며, 다양한 문제행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 억제하는 변인으로, 초기 청소년의 경우 상황적 맥락에 따라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권은영 등, 2011). Garnefski와 Diekstra(1996)는 가족 및 부모지원과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학교의 부정적 지각은 행동문제와 관련되고, 또래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정서문제에만 관련되지만, 가족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정서와 행동적 역기능 모두와 강하게 연결되므로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부모는 최초로 관계를 맺는 가

정환경의 중심대상자이자 강력한 모델로서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도덕성을 획득하는 사회화 과정과 자녀의 부적응을 경감하고 완충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Papini & Roggman, 1992; 안혜원, 이재연, 2009).

부모입장에서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신체적·정서적·인지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많이 놀라게 된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부모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초기 청소년기의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며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의 환경과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로써 부모-자녀 관계는 위협을 받게 된다. 부모역할은 어렵고 자녀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따르며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듯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청소년 자녀 못지않게 변화의 시점에 놓여있으며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이와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방차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의 일반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것은 한국청소년상담원(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6종’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개발된 ‘LPT(Level up Parent Training)’ 등에 불과하다. 이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2004년도에 마지막으로 개발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을 자녀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LPT’는 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다양한 실제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 기관에서 개발된 예방 차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2004년도 이후 미미하다. 이외에는 개인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체계적인 개발 과정과 지속적인 효과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청소년기의 범위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너무 넓어 모든 시기의 청소년보다 특정 시기 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본 기관이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으로써 부모들이 초기 청소년인 사춘기 자녀들의 환경적·심리적·대인관계의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갈등과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포커스집단인터뷰를 통해 경험적 자료를 추출하고 부모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구재와 개입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2. 연구 과제

본 연구의 과제는 부모들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자녀 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저연령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기 청소년기의 이해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급격한 신체 변화, 성적 충동과 이성애에 대한 관심,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등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즉 청소년들은 전 생애 중 가장 많은 도전과 기회, 좌절과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스탠리 홀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칭했다. 이는 청소년기가 어린이와 성인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고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의 갈등, 소외와 고독 등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 과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정옥분, 윤종희, 도현심 2003).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사회성과 정서가 발달하는 동시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어른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을 평가해 보게 되며, 도덕적 추론 능력이 향상된다(Schmidt & Davison, 1983). 현재 상태와 가능성을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이상주의적이 되며, 실제와 가능성을 비교하고 실제가 이상보다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어른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된다.

Erickson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를 자아정체감 형성이라고 하였으며(Erickson, 1950, 1959), 청소년기 동안 모든 정체감 요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해결해야 하는 7가지 갈등은 다음과 같다. 시간 조망 대 시간 흥미, 자기확신 대 자의식, 역할 실험 대 역할 고착, 일 배우기 대 일 마비, 성역할 분화와 양성 혼돈, 지도력과 추종력 대 권위 혼돈, 이념적 관여 대 가치의 혼돈이다. 이러한 갈등이 잘 해결되면 확고한 정체감이 형성된다. 한편 Havighurst(1972)는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여덟 가지 주요 발달과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자신의 신체를 수용하고 신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동성과 이성의 동년배와 새롭고 보다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형성,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경제적 직업의 준비, 결혼과 가정생활

에 대한 준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바라고 행하는 것, 행동의 길잡이로서의 일련의 가치와 윤리체제의 형성, 이념의 형성이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지만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청소년 시기의 저연령화에 따라 청소년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다양해지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이혼의 급증, 다문화 가정의 증가, 치열한 입시경쟁 등의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의 문제를 더욱 촉발시키고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배주미 외, 201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상담경향보고서(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담에서 대인관계, 가족, 학업,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청소년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게임 과다사용, 학업 및 진로, 일탈 및 비행,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상담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동아일보, 2012. 6. 15).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주로 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 가족, 인터넷 게임과다 사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중독 및 비행,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청소년 성매매 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학업중단, 가출, 폭력, 빈곤, 이혼, 무단결석 등으로 긴급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청소년이 93만 명이라는 놀라운 통계도 보고된 바 있다(한국경제, 2010 7. 6). 2012년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흡연을 경험하는 연령은 12.6세, 매일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은 13.6세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험률은 21%,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하게 되는 연령은 12.8세로 나타났으며,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은 13.6세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동정 경험 시작 연령은 12.6세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초경 시작 연령은 11.7세로 나타났다. 사회가 발전하고 영양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숙도가 빨라지고,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서한나(2011)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초기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의 기간에 스트레스와 우울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순화, 2008; Mullins & Irvin, 2000).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들이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으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서 새로운 학교 환경을

접하게 되면서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행동이 시작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5, 6년으로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기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청소년들은 가족 관계, 학교생활 및 진로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며(권은영, 정현희, 2011), 이러한 초기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증상과 정신건강 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Duncan & Yeung, 1995; Grant, Compas, Stuhlmacher, Thurm, & McMahon, 200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정아, 황혜원, 2006, 안혜원, 이재연, 2009).

이와 같은 초기 청소년기는 사춘기와 함께 시작된다. 사춘기(puberty)는 관찰 가능한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변화도 수반한다. 즉 이 시기는 이전의 성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신체 변화를 보이며, 심리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때이다. 따라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은 사춘기의 시작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시기 청소년들은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 대한 적용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학생 시기부터 대학을 졸업할 나이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노용오, 2005). 발달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을 대체로 11, 12세경부터 24, 25세로 보고, 신체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때를, 그리고 심리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를 청소년기로 본다. 이처럼 청소년기가 10여 년간 지속되면서 너무나 많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 이중 청소년 초기는 약 11세에서 14세까지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정옥분, 2005).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연구들이 초기 청소년기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최효임, 김성일, 2004; 황창순, 2006; 송미영, 김영희, 2009; 권은영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현재 청소년기 발달 경향에 따라 초등학교 4학

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초기 청소년기로 정하고자 한다.

2.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청소년기가 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커지지만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다(강유진, 문재우, 2005). 구체적으로 부모와 형성된 애착, 부모의 지도감독과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부부갈등, 가족구조 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좌현숙, 2012). 즉 아직은 부모의 보호 하에 있고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첫째, 청소년은 부모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필요한 때는 기꺼이 자신을 돕고 지원하려 할 때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Amato, 1990; Gecas & Seff, 1990; Northman, 1985). 이러한 긍정적인 부모의 지지는 부모, 형제자매와의 가까운 관계, 높은 자기존중감, 학업적 성공 그리고 적절한 도덕적 발달과 관계가 있다.

둘째, 경청과 공감적 이해이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공감적인 이해와 경청하는 태도로 자신의 자녀도 대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를 원한다고 말한다.

셋째, 사랑과 긍정적 가족감정이다. 가족감정이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서나 느낌으로, 따뜻함, 애정, 사랑, 민감성 등의 특징을 가지는 관계를 말한다. 청소년들은 내적(intrinsic) 지지(격려, 이해, 자녀의 존재를 기뻐하기, 신뢰, 사랑)와 외적(extrinsic) 지지(포옹과 키스, 외식이나 영화관람, 특별한 선물과 같은 지지의 외형적 표현), 둘 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내적 지지와 친밀감 같은 부모의 지지에 대한 지각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Young, Miller, Norton, & Hill, 1995)고 보고되고 있다.

넷째, 수용과 승인이다. 사랑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단점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여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받아들여지고 친밀하게 느끼며 형제간의 개인차에 대해서도 관대하길 바란다.

다섯째, 신뢰감이다. 자녀를 믿지 못하는 부모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 수 중 하나가 자녀들의 일기를 훑쳐보거나 전화나 문자내용을 몰래 보는 것이다. 자녀를 믿지 못하는 부모는 자신의 불안, 죄의식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높다.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을 완벽하게 믿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섯째, 분리-개별화와 자율성이다. 모든 청소년은 자율적인 성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동시에 부모와의 연대감을 추구한다(Grotevant & Cooper, 1985). 즉 청소년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애정, 신뢰를 지속시키면서 부모와의 분화된 관계를 추구하기를 원한다(Quintana & Lapsley, 1990).

기존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남현미, 옥선화, 2001),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가족의 심리적 환경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임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가 균형적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녀와의 갈등을 감소시키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킨다(김수연, 정문자, 1997; 김희화, 김경연, 1998, 백양희, 최외선, 1997b).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등 인성 특성,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한편 청소년기 자녀는 가족과의 친밀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가족의 가치를 중심의 둔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신경적인 특성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방임적인 가정의 경우 청소년들이 쉽게 비행에 노출된다고 밝혔다(박영애 외, 2004, 재인용). 박영신 외(2004)도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 경우 부모에 대한 신뢰가 낮았고, 부모들의 양육태도 역시 적대적이고, 갈등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 자녀의 성격형성, 정서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Bronfenbrenner, 1979).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기의 자기 효능감 및 성취동기, 학업 성취와 정적관계가 있으며(김의철, 박영신, 1999),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인 성취동기, 생활만족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이 중요하다(안혜원, 이재연, 2009; 권은영 등, 2011). 김광웅과 문수경(2005)의 연구에서 부모-청소년 자녀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지원 중 정서적 지원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힘들 때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을 청소년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며, 가정을 주도해 가는 부모가 건실하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며 자녀에게 정신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청소년 시기의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바와 그들에게 있어 부모라는 존재의 중요성이 위와 같다면, 중년기에 접어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들의 위치와 더불어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기이다. 이들에게 주된 존재의 의미 중 하나는 자녀인데, 중년기 부모에게 자녀란 양육의 대상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희생한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의 심리적 독립이 그들의 중년기 위기를 강화시키곤 한다. 청소년기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전과 다른 역할과 긴장이 증가한다. 부모들은 아동기와는 달리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는데 이 시기는 청소년과 부모,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는 시기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느낀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감이 깊어질 수 있다. 이처럼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할수록 부모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데 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부모의 영향력 속에서 생활하는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과 영향이 증가하고, 자녀들의 자기주장도 뚜렷해지므로 부모와 다양한 의견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자아정체감을 겪는다면 중년기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이는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노년기를 앞둔 자신들을 책임지게 될 자녀들의 사회적 정착에 대한 불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개입을 하게 되어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곤 한다. 이러한 점은 시간 조망에서도 대조를 보이는데,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탐색을 하는 반면 부모들은 그들의 미래가 자녀에 비해 제한됨을 느끼게 되어 청소년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이에 중년기 부모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실현해주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녀의 능력과 적

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면 청소년기 자녀와는 새로운 국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박영애 외, 2004).

중년기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세대차이다(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어느 문화에서나 부모와 청소년 간의 갈등은 대부분 의복 스타일에서 시작하여 머리 모양, 음악 기호 등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현재 중년기 부모들이 겪어온 청소년기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과 같이 전자매체 문화를 겪는 현 세대의 청소년 자녀와는 극명하게 다르다. 모든 성인 부모들이 청소년기를 겪었다곤 하지만 자신과 다른 세대를 사는 자녀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인터넷과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문제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운반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은 게임,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게 되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한 유해정보 차단 업체가 청소년 학부모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때문에 자녀와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2%에 달했으며, 이중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85%이상이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부모자녀 간의 청소년기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이 부모-자녀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현대의 중년기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문제는 비단 생애 과도기에 따른 변화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특히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부모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양육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율성 증가가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다. 실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권위가 있을 경우, 더 낮은 비행과 더불어 학교에서의 부적응행동 비율도 낮은 반면, 독재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방식은 부모 지향성 보다는 또래 지향성을 증가시키고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영애 외, 2004).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초기 청소년들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개인적인 변화와 문제를 경험하는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급격하고 변화무쌍한 시기를 보내는 자녀와의 관계도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를 이해하고 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시켜나가려면 이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입의 하나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 예방과 부모들의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위해 의미있는 작업이다.

3.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들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아동기와는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부모들은 한계를 설정하고 지침을 제공해주으로써 자녀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자녀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처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자녀는 자신의 날개를 펼칠 공간과 안전하고 튼튼한 공간을 원하고 선택과 길잡이를 동시에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가 모든 것을 규칙으로 통제하는 이전의 방식은 자녀의 반항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므로 부모 자신과 자녀에게 맞는 새로운 양육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기 자녀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과정은 부모와의 분리하여 자기만의 길을 찾는 과정으로, 이는 부모의 과업과 동일하다. 즉 부모 역시 자녀의 독립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 과제이다.

또한 이 시기 부모들은 자녀가 독립을 요구해 올 때 질투심과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적대시하게 되고 부모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가 이와 같은 감정을 극복하는 데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부모는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갈등이 많지 않다(이지연, 2001).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부모역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이나 교육의 필요성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유능한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떤 특성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양육에 유능한 부모가 되기 위해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하다(박성연 외,

2007).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를 성장시키는데 효과적인 양육방식을 배우고, 부모 자신의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춘기에 대한 지식의 부족, 사춘기 자녀의 사고유형에 대한 이해부족, 세대차이로 인한 자녀양육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기 청소년들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80%) 부모교육에 ‘자녀 존중’, ‘의사소통 기술’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이정연, 이창숙, 2003).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교육의 목적은 첫째,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며, 둘째,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로 보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을 갖도록 하며, 셋째,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윤은혜, 2013). 즉 부모교육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질과 소양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으로,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가진 능력과 가능성, 그리고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고, 이와 같은 것들을 부모 자신과 가족, 특히 자녀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부모 역할은 단순히 자녀의 유아기나 아동기만을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이후까지 계속된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갈등이 유발되는 시기가 청소년기이며, 이때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생활에서의 성공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이경화 외, 2009).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은 어느 발달 시기보다 필요한 때이다.

나. 국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에 의해 청소년자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80년대부터 청소년의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과 유아·아동의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을 구분하여 개발 및 운영해왔다(신군자, 장희양, 2005).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영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아우르는 예방적 차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후기 청소년기 비행 및 성인 범죄의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Piquero et al, 2009).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유사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구성된 STEP, PET, APT 등이 있다.

STEP(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체계적 부모교육 훈련)은 아德勒의 개인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호주 등에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STEP은 권위적인 양육 방식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자녀와의 갈등을 다루기 위한 양육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양육기술의 훈련을 통해 자녀들의 책임감, 독립심, 자신감을 기르고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켜 좀 더 참여적인 가족 구조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상 시청을 통한 양육 방식 점검, 실습, 토론, 서로의 경험 나누기 등의 활동을 하며,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자녀의 발달단계와 부모의 생활방식을 고려한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가족 내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정서적인 반응, 행동통제 등 일반적인 가족 기능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중 만 10세 이상의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있어서는 자녀의 일반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 더 나은 기능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dams, 2001).

이보다 앞서 개발된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토대로 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앞서 서술한 STEP에서 부모역할수행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기여한 프로그램이다(이혜미, 2009). PET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를 파악하며 반영적 경청과 나-전달법(I-Message)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어느 한편이 이기고 지는 것 없이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는 방법을 교육한다. 다수의 연구들은 PET 프로그램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이해 및 공감과 존중의 태도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자존감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Lemmens, 2011). 이는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 저변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독립심과 의존성이 공존하는 초기 청소년기의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T(Active Parenting Training;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역시 의사소통 기술을 중시한다는 데서 PET와 공통적인 핵심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적극적 경청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는 APT 의사소통 기법의 핵심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자녀를 둔 중년기 부모들에게 PE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향상과 가족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선경, 2011).

Preparing for the Drug Free Years(PDFY)는 사회발달 모델에 기반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기 약물사용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아동, 청소년기 자녀의 약물남용의 저변에 있는 일반적인 부모의 반응행동과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을 개선시킴으로써 비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아동, 청소년기 자녀들이 약물사용을 시도하지 않도록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부모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과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배우고, 가족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족 내의 갈등을 줄이며, 자녀들이 또래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운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2시간씩 5회기 또는 1시간씩 10회기로 진행된다. 5개의 특정 가족 기술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며, 각각의 기술은 궁극적으로 약물남용 뿐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기의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며 이를 위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STEP, PET, APT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공통점을 가진다. 연구들은 PDFY 프로그램이 청소년기 자녀의 음주 및 약물 사용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부모와 자녀간의 부정적인 관계 패턴을 개선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osterman et al, 1997; Park et al, 2000). 청소년이 최초로 음주를 경험한 시기가 중학교 2, 3학년 이전으로 초기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비율이 음주를 시작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음주의 주요 위험요인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박수연, 2000), 초기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으로 음주 및 담배 등의 약물 남용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증명된 또 다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Triple P)이 있다. Triple P는 호주 퀸즐랜드 대학과 가정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부모와 아동에 대한 연구 및 사례를 통해 얻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에 자신 있게 대처하고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을 예방하며 끈끈하고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전략을 가르친다. Triple P는 현재 2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 관계에서 효과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riple P, 2013).

Triple P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모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은 출생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5단계의 피라미드식 단계별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 단계인 1단계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이나 캠페인을 포함하고 그 보다 한 단계 위인 2단계는 교육기관이나 공중보건기관에서 진행되는 일회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단계는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4~5회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4단계는 이보다 좀 더 심도 깊고 강도 높은 8~10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부모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부모교육이 진행된다. 이러한 다단계(multi-level)전략은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효과성을 최대화하고, 교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며 프로그램이 지역 단체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도 깊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 부모들에게까지 과잉으로 시행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5가지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활용되거나 특정한 문제를 가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유연성은 프로그램 제공자로 하여금 책정된 예산이나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결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모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Sanders, 2008).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특성화된 Group Teen Triple-P 프로그램을 만 12세의 중학교 입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Ralph & Sanders, 2003), 8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양육과 관련한 모호함, 부모간의 불일치 등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부모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있다.

STEP, PET APT 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Tripl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Triple-P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보다는 부모의 자기조절능력 함양을 통한 자기효능감 및 양육자신감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The Incredible Years Parent Training Program(IY) 역시 부모의 양육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비슷한 교육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Y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며 학업적, 사회적, 감정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을 주 수 있는 일관된 코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자녀의 나이에 맞는 기대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양육 방법에 대해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교육을 제공한다. IY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룹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교육을 받으러 온 부모들 간의 유대와 지지를 중요한 프로그램 구성요인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참가한 부모들 사이에 강력한 그룹 역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그룹 역동은 IY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기대된다(Borden, Schultz, Herman, & Brooks, 2010). 부모교육을 통해 단순히 의사소통이나 긍정적인 양육태도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가자와의 그룹 활동을 통해 함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가며 지지와 격려를 통해 양육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은 부모로서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자기통찰 및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각각의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내용 및 핵심요인을 표로 정리한 것은 <표 II-1>과 같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 개발되어 경험적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 요소 및 제공 형태는 국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기 청소년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정서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 및 운용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및 내용 분석을 통해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및 구성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II-1〉 국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개발 국가	회기 (시간)	대상	주요개입내용	핵심요인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STEP)	미국	8~9회기	만 1~6세, 만 6~12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적인 양육 방식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자녀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술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 - 공감적 듣기(positive listening) - 자녀 격려하기 - 새로운 양육태도, 생각과 감정 표현방법 탐색 - 자녀의 책임감 향상을 위한 양육방법 -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결과 적용하기 - 가족 모임 조성하기 - 자녀의 자신감 길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책임감, 독립심, 자신감 향상 ● 의사소통기술 향상 ●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ET)	미국	8회기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수준 파악하기 - 문제소유 파악하기 - 반영적인 경청 - 나-전달법 - 가치갈등의 해결(원-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기술의 향상
Active Parenting Training (APT)	미국	10회기	만 2~12세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법 - 자녀의 행동 목적을 이해 - 자녀에게 용기와 자아 존중감을 심어주는 방법 - 책임감 발전시키는 방법 -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협동심 함양 방법 - 가족모임 형성 및 유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기술의 향상
Preparing for the Drug Free Years (PDFY)	미국	5회기, 10회기	만 8~14세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반응행동과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을 개선시킴으로서 청소년 약물사용의 위험요인감소 - 가족 구성원간 소통의 기회 증가 - 가족 구성원간 행동적, 인지적, 사회적 기술 학습 - 적절한 행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 가족 내의 갈등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모임 개최 - 약물에 대한 가족의 기준 확립 - 자녀가 또래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 강화 - 가족 내 활동에 자녀의 의사 반영 - 부모지지 네트워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유대감 강화
P-Positive Parenting Program (Triple P)	호주	단계에 따라, 1회기~10회기	출생~16세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건설적이고 이로운 방향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녀-부모의 관계 전략 -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가족 환경 조성하기 - 자녀들에게 타인과 어울리는 기술 가르치기 -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긍정적, 일관적, 확고한 태도로 대응하기 - 자녀의 긍정적인 태도 격려하기 - 자녀와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갖기 - 부모로서 나 자신 돌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자기조절능력 향상 - 자기효능감 향상 - 자신감 향상 - 자기관리 도구 사용 - 개인적 요소 변화 촉진 - 스스로 문제해결 촉진
The Incredible Years Parent Training Program (IY)	미국	나이대에 따라, 8-9회기 (0~1세), 12회기 (1~3세), 18-20회기 (3~6세), 12-16회기 (6~12세)	출생~12세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 역동이 중시되며 그룹 활동은 다음을 포함 - 전체 토의, 파트너끼리 토의 - 목표설정 및 문제해결 - 인지적 사고 훈련 - 기술 훈련 및 연습 - 역할극(행동 연습) - 숙제(연습, 읽기자료 등) - 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자신감 강화 ● 자녀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및 자녀의 나이에 맞는 기대수준 수립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 갈등 다루기

다.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KISS)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검색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2년 이후 발행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논문 가운데 등재후보지 이상의 국내 학술지 30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선정 기준은 ADHD, 발달 장애 등 아동·청소년 장애관련 논문을 배제하였으며, 양적연구를 기반으로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제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는 표<표 II-2>와 같다.

<표 II-2>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논문

학술지명	발행 년도	저자	논문제목
兒童學會誌 (한국아동학회)	2003	도현심 외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특성에 기초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兒童學會誌 (한국아동학회)	2004	최경순 외	유아교육기관의 환경보전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연구
임상간호연구 (병원간호사회)	2004	김미숙 외	입원아동 어머니를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간호 만족도와 부모역할 확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안희정	자기효능감 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SEPT)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김재연 외	이혼재판절차 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교육평가연구 (한국교육평가학회)	2006	조영기 외	초등학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宗教教育學研究 (韓國宗教教育學會)	2006	손진이 외	"불교와 교육": 불교 사상에 입각한 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보육학회지 (한국보육학회)	2006	박현미	웹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2006	이순복 외	MBTI를 활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가족기능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2006	박진옥	체계적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Early Childhood STEP) 양육스트레스와 유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한국상담학회)	2007	권순영 외	초등학생 학습기술 향상을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	김정옥 외	초등학생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한국상담학회)	2007	이현림 외	MBTI를 활용한 적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창의력교육연구 (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08	권옥경 외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개념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2008	한상금 외	가족여가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2009	류경희	초등학생 자녀의 인터넷 사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한국심리학회)	2009	이숙미 외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0	한민경 외	상호교류분석 이론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한국아동교육학회)	2010	정미숙 외	현실치료를 적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	2011	장미경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兒童學會誌 (한국아동학회)	2011	민성혜 외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兒童學會誌 (한국아동학회)	2011	김영옥 외	걸음마기 모-아(母-兒) 놀이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	2011	정교영 외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2011	노명숙 외	학습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	2011	조윤숙 외	감수성 훈련을 적용한 한국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保健社會研究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혜원	재외동포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놀이치료연구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2012	서숙경 외	관련연구 :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회사회사업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012	김수정	교회의 기독교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	이은정 외	버추 프로젝트에 근거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능력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幼兒 教育學論集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2	황성운 외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이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표 II-2>에서 자녀 학령기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경향을 살펴보면,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9편,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2편, 학령기 구분 없이 수행된 연구가 8편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문제 및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교육의 프로그램 연구가 가장 적었다. 또한 부모·자녀 문제유형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경향을 살펴보면, 문제유형에 있어 자녀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요인은 1편, 공통요인은 5편, 문제유형을 분류하지 않은 연구는 21편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요인 가운데 인터넷 문제 1편, 병원입원 1편, 또래 괴롭힘(피해) 1편으로 나타났고 부모요인은 이혼 1편에 불과하였으며, 부모·자녀 공통요인으로는 재외동포 1편, 감정조절 1편, 다문화 가정 1편, 문제예방 2편이었다. 문제유형에 따른 분류 결과 예방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2편에 불과하여, 예방관련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부모자녀 관계변인을 범주화하여 최근 10년간의 연구들을 2003년 - 2007년과 2008년 - 2012년으로,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양육, 상호작용, 부모성장, 기타 등 1개 이상의 관계변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육관련 부모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은 25편,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목표를 가진 연구는 10편, 부모성장 관련 목표는 3편, 기타 5편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 목표에 따른 관련 변인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사용된 연구 30편 중 양육관련 변인은 전체 25편이었으며, 이중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순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표 II-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2012년의 부모·자녀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양육에 있어서는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가 주요 관계변인으로 다루어졌으며, 상호작용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서반응, 부모·자녀상호작용에 대한 변인이 부모성장에서는 부모자아개념에 대한 관계변인이 다루어졌다.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양육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관계 변인임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국 부모 역할의 다양성과 사회변화로 인해 부모들의 정서반응, 상호작용, 부모자아개념 등도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 부모·자녀 관계변인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분류

관계변인		2003~2007	2008~2012	합계
양육	효능감	3	6	9
	태도	4	1	5
	행동	3	3	6
	스트레스	1	4	5
상호작용	의사소통	2	4	6
	정서반응	0	2	2
	부모·자녀 상호작용	0	1	1
	갈등행동	1	0	1
부모성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1	1	2
	부모자아개념	0	1	1
기타	자녀학습지원	1	1	2
	가족기능성	1	1	2
	성학대예방	1	0	1
계		18	25	43

2)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분석

1990년 이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부모 효율성 훈련(PET), 효과적인 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STEP),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T)등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는 서구에서 개발된 것으로 우리의 문화, 정서, 독특한 가족관계 특성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정원, 1999, 김희진, 2002).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서구를 배경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족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거나 부모와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서구 중산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성이 짙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양옥경, 김연수, 2003).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학문적 풍토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일부 상담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각 나라와 문화에 어울리는 토착적 상담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연구의 필요성을 거론되어 한국적인 상담모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장성숙, 1999; 유동수, 2008).

우선 국내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예방적 차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한

국청소년상담원(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6종’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93년에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대화’, ‘바른 행동의 길 다지기’, ‘생활의 기틀 세우기’, ‘어울려 사는 지혜 기르기’가 순차적으로 개발되었고, 2004년에 자녀와 ‘함께 성장 하는 부모’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면서 전체 6종으로 완성되었으며, 현재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경우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인간관에 근거하여 부모가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모자신 알기, 청소년자녀 이해하기, 신뢰로운 관계 형성하기, 갈등상황 해결하기, 자녀의 힘을 북돋우기, 장점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기’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발달적 맥락에서 진로의 초기 발달 단계인 초등학교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2011년에 개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현장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발달 과업을 보다 세분화하고, 이러한 세분화된 목표에 초점을 둔 진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LPT(Level up Parent Training) 부모교육 코스의 경우 한국사회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게 전문화, 세분화시킨 프로그램으로 기초육아법, 자녀교육관 정립, 부모-자녀의 대화법, 자녀의 학습도와주기, 자녀의 진로지도프로그램, 자녀의 감성능력 키우기, 자녀의 성교육,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교육, 성공하는 부모들의 7가지 습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자기혁신 프로젝트, 부모코칭리더십, 부모와 자녀의 의식성장을 돕는 에니어그램, EQ 개발 등의 13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집합체 형태로 구성되어 보급되고 있다.

앞서 기술한 국내 기관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지침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요인을 추출하여 <표 II-4>에 제시하였다.

〈표 II-4〉 국내 기관 개발 부모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자·연구자	회기	대상	주요개입 방안 및 내용	핵심 요인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	한국 청소년 상담원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1993, 2004)	6종	청소년기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종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프로그램만 활발히 사용됨 -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대화, 바른 행동의 길 다지기, 생활의 기틀 세우기, 어울려 사는 지혜 기르기, 자녀와 함께 성장 하는 부모 · 부모자신 이해, 자녀이해, 소신있는 부모 등을 토대로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을 정립하도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자기 성장 및 자질 향상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의 발전을 도모 -청소년자녀이해하기,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 문제 해결력 키우기,
초등학생용 부모 참여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 청소년 상담원 (한국 청소년상담 복지 개발원) (2011)	아동 (6회기) 부모 (4회기)	초등학생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 발달 과업을 보다 세분화함. · 발달적 맥락을 현장중심으로 추출 · 실질적인 교구재 개발을 통해 개입의 흥미를 향상 - 아동프로그램: 진로에 대한 긍정적 태도1 형성, 자아탐색1,2, 직업탐색1,2, 진로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2 - 부모프로그램: 부모의 역할 인식, 상호작용 학습1,2, 촉진자역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활용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 발달적 맥락중심(진로인식 확장과 직업포부의 발달 등)
LPT (Level up Parent Training) 부모교육 코스	한국 지역 사회 교육 협의회 (KACE) (1993)	13종	학부모 (초등 학생 학부모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3종을 체계적으로 코스화 하여 운영 : 기초육아법, 자녀교육관 정립, 부모-자녀의 대화법, 자녀의 학습도와주기, 자녀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자녀의 감성능력 키우기, 자녀의 성교육,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교육, 성공하는 부모들의 7가지 습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자기혁신 프로젝트, 부모코칭리더십, 부모와 자녀의 의식성장을 돕는 에니어그램EQ개발 등 · 한국 부모들에게 적합하고,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다양한 실제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교육 실시 (부모자녀 대화법 포함)

또한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프로그램별 핵심요인별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는데,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 한국사회의 정서, 기존의 상담이론, 부모의 다양한 역할(학습코칭, 인터넷사용, 경제관념), 부모교육의 방법적 측면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를 핵심요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은 유은희(1996)의 '청소년 자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장영진(2000)의 '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옥경(2004)의 '좋은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등을 살펴 볼 수 있다. 세 연구 모두 청소년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점검하여 청소년기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을 익히는 구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옥경의 '좋은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육체적인 접촉,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를 핵심요인으로 두고 있다.

한국적인 정서를 강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조운숙과 이윤주(2011)의 '감성 훈련을 적용한 한국형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와 서숙경과 김은경(2012)의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정서반응 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등이 있다. 이 중 조운숙 외(2011)은 감성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경향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한국적인 특징에 맞게 구성하여 부모 자신의 이해와 성장, 의사소통 향상, 관계 개선의 영역과 자기이해, 자기수용 및 자녀수용, 상호피드백, 긍정발견, 행동변화, 성격이해 및 자신감 획득 등의 8개의 하위목표를 두고 있다. 더불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서로의 감정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로 의사소통을 매개로 사용하고 있다. 서숙경 외(2012)은 부모들이 자녀의 정서에 지지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움으로서 아이의 모든 감정을 수용하되, 행동에는 제한을 둔다는 양육태도를 가지게 되어 자녀의 정서에 지지적으로 반응하여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더 편안하게 다루고 보다 잘 표현 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상담이론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으로는 전정금(2002)의 '현실요법 부모 집단상담이 자녀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이경미(2011)의 '사티어 모델에 기초한 분노 다루기 부모교육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효과성 연구', 박영희(2012)의 '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세 연구 모두 각각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으며 초기 회기에서는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교육을 진행하고 나서 각 프로그램별 핵심요인을 다루고 있다. 현실요법에서는 의사소통 개선 및 부모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중심으로 회기를 구성하였으며, 사티어 모델에

서는 원가족으로부터 배운 분노 표현방식을 자각하고 자녀에 대한 수용 및 행동수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교류분석이론에서는 부모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나 느낌들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고 부적절한 패턴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다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부모의 다양한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으로는 권순영(2007)의 ‘초등학생 학습기술 향상 부모교육’, 김순옥 외(2008)의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를 살펴 볼 수 있으며, 권순영(2007)은 부모의 학습코칭 역할을 강조하며 자녀의 목표관리, 시간관리, 노트필기, 정보처리, 학습동기 관리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김순옥 외(2008)는 부모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데, 우선 청소년기의 자율성을 통한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교육과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 교육, 공부진로 등에 대한 코칭 방법, 경제관념 키우기, 건강한 인터넷 사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관계변인에 대한 연구가 아닌 교육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자의 스타일에 맞춘 교육에 대한 강조를 통해 Blended-Learning 기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모교육을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정을 위한 연구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교육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지침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요인을 추출하여 <표 II-5>에 제시하였다.

〈표 II-5〉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개발자·연구자	회기	대상	주요 개입 방안 및 내용	핵심요인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 중심	청소년 자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유은희 (1996)	6회기	청소년기 학부모	· 회기별 주요내용 - 청소년의 특징(1회기) - 청소년에게 적합한 자녀 양육(2회기) - 존중받는 부모(3회기) - 자녀마음을 여는 대화법(4,5회기) - 자녀의 문제 해결 능력 길러주기(6회기)	자녀의 발달이해, 자녀 양육 행동에 대한 자아성찰 및 기술습득
	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장영진 (2000)	10회기	청소년기 학부모	· 자녀 양육관 알기, 청소년기 자녀이해하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배우기	청소년기 자녀 이해 및 의사소통 훈련
	좋은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이옥경 (2004)	16회기	청소년기 학부모	· 세 가지 이론(다섯 가지 사랑언어, 선택이론, 의사소통이론) 및 대상자들의 요구, 필요성을 고려 개발 · 4가지 목표 - 효율적인 사랑의 전달 능력습득 (육체적인 접촉,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선택이론에 근거) -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의 습득 - 자자녀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신장	다섯 가지 사랑 언어습득, 선택이론, 의사소통이론
정서강조	감수성 훈련을 적용한 한국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조윤숙, 이윤주 (2011)	8회기	학부모	·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 - 부모자신의 이해와 성장 (부모의 의사소통스타일 확인), 의사소통향상, 관계개선 영역과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녀수용, 상호피드백, 긍정발견, 행동변화, 성격이해, 자신감 획득 등	감정을 중심으로 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정서반응 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숙경, 김은경 (2012)	8회기	학부모	부모의 정서반응태도의 중요성 인식하기, 자녀의 감정 인식하기, 감정적 순간에 대한 인식 변화시키기,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경청하기,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함께 정해주기에 중점	부모의 정서반응 태도

상담이론중심	<p>현실요법 부모 집단상담이 자녀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p>	<p>전정금 (2002)</p>	<p>16회기</p>	<p>학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요법을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 ·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키고 의사소통을 개선을 위한 교육 · 회기별 진행 :사진첩과 바램 (1,2회기),현실요법과 선택이론 배우기, 실제적용(3,4회기) 전행동 개념 이해하기, 대화의 걸림돌확인하기, 문제다루기(5,6회기),새로운 전행동창조하기, 효과적 대화기법 익히기, 부모-자녀 상호존중과 공감대형성(7,8회기),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시대적 변화 이해하기, 청소년자녀의 이해돕기, 가치관 대립해결기술배우기, (9,10회기)선택과 책임의 문제 다루기(11,12회기), 성, 약 물 교육자로서 부모역할배우기, 자녀와 가치관 대립, 해결, 기술배우기(13~16회기) 	<p>현실요법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개선, 성·약물 교육 자로서의 부모 역할</p>
	<p>사티어 모델에 기초한 분노다루기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효과성 연구</p>	<p>이경미 (2011)</p>	<p>8회기</p>	<p>학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티어 모델을 근거 · 부모의 원가족으로부터 배운 분노 표현방식을 자각하여 자녀에 대한 수용 및 행동수정 - 일반적 가족에 대한 이해 및 분노형성과정 찾기(1,2회기), 분노를 경험적으로 다루고 변화단계(3,4, 5, 6회기), 수용 및 용서단계(7,8회기) 	<p>· 사티어모델 이해를 통한 분노패턴 수정</p>
	<p>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p>	<p>박영희 (2012)</p>	<p>8회기</p>	<p>학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분석 이론을 근거 · 부모가 자기스스로를 통제 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나 느낌들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고 부적절한 패턴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다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접근 · 대 주제에 따른 소주제를 정하여 강의 진행, 집단원의 경험나누기, 과제 나누기, 소감 나누기 등으로 구성 	<p>· 교류분석 이해를 통한 부모자신 이해 및 부모의 양육패턴 변화</p>

부모의 다양한 역할 중심	초등학생 학습기술 향상 부모교육	권순영 (2007)	9회기	초등 학생 학부모	· 부모의 학습코칭 역할을 중심으로 부모교육 진행 - 목표관리, 시간관리, 노트필기, 정보처리, 학습동기 관리 등	· 학습코칭 강조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	김순옥 외 (2008)	5회기	청소년기 학부모	· 부모의 다양한 역할을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의사소통, 공부 · 진로코치, 아이의 경제관념, 인터넷 사용, 자율성 등	· 한국사회의 부모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인식 강조
부모교육 방식	블렌디드러닝 기반 부모 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박성환 (2012)	-	학부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교육	· 학습자의 스타일에 맞춘 교육

이처럼 국내 기관에서 개발되어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 2편에 불과하며, 2004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끝으로 예방적 차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비하였다. 국내의 개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연구 또한 좀 더 체계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검증 및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 상담 정책 기관으로써 많은 발달적 변화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초기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함께 초기 청소년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부모들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라.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자녀의 발달 시기를 고려

하지 않은 채 ‘학부모’ 또는 ‘청소년기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 운영되어 왔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녀들의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면서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나이가 어려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관련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같은 청소년기라도 발달 시기에 따라 이슈가 되는 고민과 문제들이 다르고, 이에 대한 부모들의 양육 방법 및 대처 방안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청소년기가 길어지면서 청소년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구체성과 현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을 청소년 발달 시기 전체로 설정하기보다 발달 시기를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에 청소년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결과, 양육을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핵심 요인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 세부 내용은 청소년기 특징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이었다. 국외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도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 및 향상, 가족 간의 갈등 감소 등을 핵심 요인을 보고 이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핵심 요인으로 두고 부모의 자기효능감 향상, 개인적 변화 촉진, 자기 관리 등의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및 양육방법, 부모 자신에 초점을 둔 내용을 담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표준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 중 대부분이 외국에서 개발된 것들이며, 국내 기관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2개에 불과하다. 물론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과 보완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외국의 경우처럼 국가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신체적·심리적·환경적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잘 조절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며 나아가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초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발달하는 시기로, 부모와 자녀 모두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지만 아동기 자녀를 다루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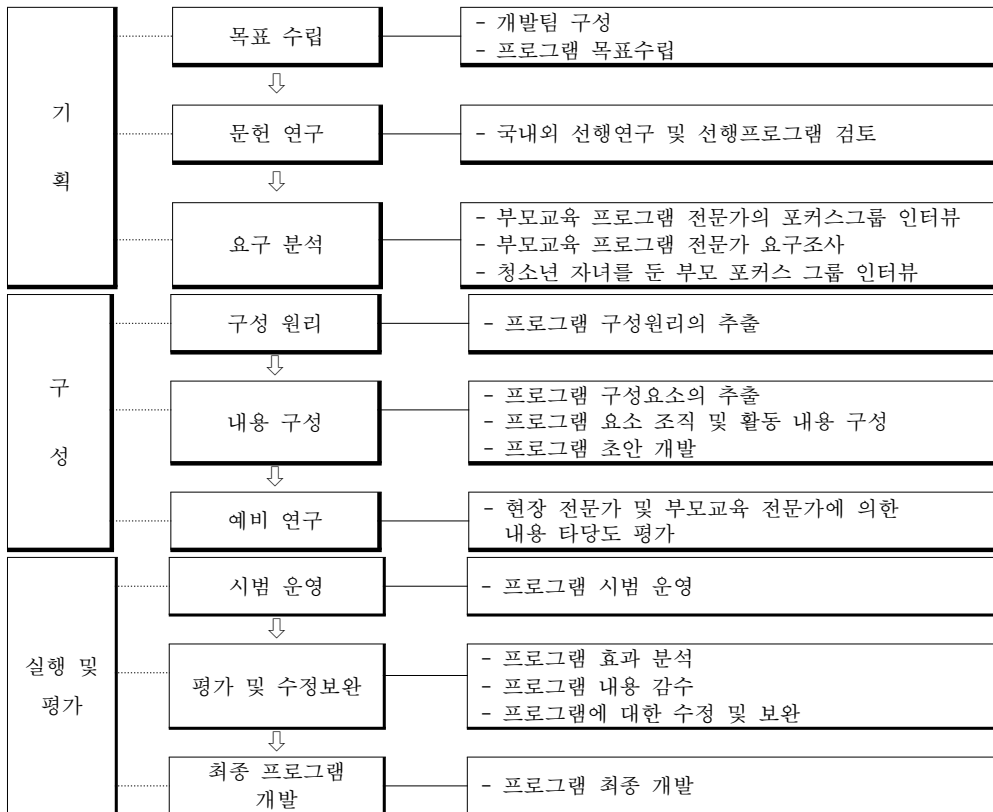
양육 방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초기 청소년기 자녀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부모들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부모들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어떤 변화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태도 등에 대해 고민해보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프로그램에서 다룸으로써 현실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여 부모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함으로 집단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프로그램의 개발 모형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김창대 (2002)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를 기획·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1>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모두 본원 연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박사1인, 석사6인이었으며, 상담경력은 평균 7.4년이었다. 연구진은 청소년상담관련 분야 실무자로, 청소년과 부모 개인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기 특성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들이다.

연구진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우선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였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어려움과 도움받고 싶어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요구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추출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국 시군구상담복지센터 근무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2. 연구과정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국내·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선행연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이해, 초기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론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탐색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 12명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5인 2개 그룹, 6인 1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1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 2학년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12

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모든 인터뷰 자료는 모두 녹음되고 전사되었다. 연구방법은 자료를 연구진이 반복하여 읽고 의미있는 문장들을 추출하고 이를 범주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과 구성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및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였고, 연구 과정과 프로그램 방향에 대해 질적연구를 지속해온 교수 1인과 부모교육상담분야 박사 1인에게 6월에 감수를 받았다.

셋째, 시군구 상담복지지원센터 실무자 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현장 전문가와 ‘이음’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문지도자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였으며, 총 48명의 결과가 수합되어 이를 분석하였다.

넷째,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초안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실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수를 받아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후 현장 연구진의 시범상담 운영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도구를 선정하고 사전-사후반복 측정을 시행하고 참여자들과 실무자의 만족도 및 도움정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가. 부모교육 전문가 및 현장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교육 전문지도자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장전문가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가 5명(10.4%)이었고, 여자가 43(89.6%)이었다. 학력은 석사졸업이 29명(60.4%)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전공은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이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9%인 38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주요 대상은 초·중고생 부모가 41명으로 85.4%를 차지했다. 조사 내용은 프로그램의 형태, 프로그램내용, 운영방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설문지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Ⅲ-1〉 부모교육 현장 전문가 요구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조사영역	문항별 세부사항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5	10.4
	여	43	89.6
연령	20대	14	29.2
	30대	25	52.0
	40대	9	18.8
학력	석사수료	3	6.3
	석사졸업	29	60.4
	박사과정	4	8.3
	박사수료	6	12.5
	박사졸업	6	12.5
전공	상담학	25	52.1
	심리학	5	10.4
	교육학	12	25.0
	사회복지학	2	4.2
	기타	4	8.3
근무형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79.2
	시설 상담소	4	8.3
	기타	6	12.5
상담경력	1-5년	11	22.9
	5-10년	27	56.3
	10-15년	10	20.8
부모교육 진행 경험	100시간 미만	23	47.9
	200-300시간	10	20.8
	300-400시간	6	12.5
	400-500시간	5	10.4
	500시간 이상	3	6.3
주요 실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음부모교육-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44	91.7
	이음부모교육-다문화 부모	7	14.6
	이음부모교육-따로 그리고 함께하는 부모	2	4.2
	이음부모교육-예비부모	4	8.3
	개인이 개발한 프로그램	18	37.5
	기타	7	14.6
프로그램 참여대상	학령 전 자녀를 둔 부모	1	2.1
	초등학생 부모	21	43.8
	중학생 부모	20	41.7
	고등학생 부모	4	8.3
	기타	2	4.2
부모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	37.5
	학교	33	68.8

요청기관 (중복체크)	WEE센터	1	2.1
	복지관	9	18.8
	건강가정지원센터	7	14.6
	경찰서·법원	4	8.3
	학부모지원센터	4	8.3
	기타	3	6.3
보유 자격증 (중복체크)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1급	4	8.3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2급	14	29.2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3급	5	10.4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2	4.2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10	20.8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1급	3	6.3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8	16.7
	기타	26	54.2

2) 설문 조사 결과

먼저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형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형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방식이 전체응답자 중 44명(91.7%)으로 가장 높았으며, 회기 수는 4-5회기가 28명(58.3%), 7회기 이상이 14명(29.2%)으로 시간은 한 회기당 120분이 25명(52.1%), 90분이 18명(37.5%)로 집계되었다. 단회성 강의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시간은 120분이 23명(47.9%), 90분이 19명(39.6%)로 나타났다. 운영방식은 1주일에 1회씩 교육을 진행하는 주기적 교육이 42명(87.5%)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보다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초기 청소년기 학령의 범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4학년~중학교 2학년까지의 범위구간이 37명(77.1%)로 집계되었다. 또한 부모교육 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로 '대상모집', '대상 참여자들의 요구가 서로 다름', '콘텐츠 빈약'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대상 모집방안과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평균 4.6점(5점 만점)으로 집계되어 대체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시 내용별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4.9점(5점 만점), '부모자녀관계'가 4.8점, '부모 양육태도'가 4.8점으로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학업지도'가 3.7점, '이성관계'는 4.0점으로 다소 낮게 집계되었다.

위와 함께 부모교육 시 부모님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준 내용이 무엇 인지를 묻는 설문을 주관식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유 목화 된 내용 중 '의사소통', '자녀이해', '자기이해' 순으로 좋은 피드백을 받 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청 소년기 발달적 특성', '청소년 문제경향' 등의 청소년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장 많이 기술하였으며,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을 포함한 양육방 법에 대한 순으로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 해야 할 사항으로는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구재'와 '지침서' 및 '워크북'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 이라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들은 <표 Ⅲ-2>와 <표 Ⅲ-3>에 제시하였다.

<표 Ⅲ-2> 부모교육 현장 전문가 요구조사 내용

조사영역	문항별 세부사항	빈도(명)	퍼센트(%)
프로그램 형태	집단상담 프로그램	44	91.7
	단회성 강의	2	4.2
	기타	2	4.2
회기시간	90분	18	37.5
	120분	25	52.1
	150분	2	4.2
	180분	3	6.3
회기수	2-3회기	6	12.5
	4-5회기	28	58.3
	7회기 이상	14	29.2
강의시간	90분	19	39.6
	120분	23	47.9
	150분	2	4.2
	180분	3	6.3

운영방식	주기적교육(예시:6주간 주1회 2시간씩)		42	87.5
	집중교육(예시:1주간 3회 4시간씩)		3	6.3
	기타		3	6.3
초기청소년 기의 학령범위	초등학교4학년-5학년		1	2.1
	초등학교4학년-6학년		16	33.3
	초등학교4학년-중학교1학년		11	22.9
	초등학교4학년-중학교2학년		9	18.8
	초등학교5학년-중학교1학년		5	10.4
	초등학교5학년-중학교2학년		4	8.3
	기타		2	4.2
부모교육 실행시 어려운점	1순위	대상모집	20	41.7
		대상참여자 요구가 다름	12	25.0
		교구재 부족	3	6.3
		콘텐츠 빈약	11	22.9
		기타	2	4.2
	2순위	대상모집	2	4.2
		대상참여자 요구가 다름	13	27.1
		교구재 부족	18	37.5
		콘텐츠 빈약	13	27.1
		기타	1	2.1
	3순위	대상모집	7	14.6
		대상참여자 요구가 다름	12	25.0
		교구재 부족	9	18.8
		콘텐츠 빈약	15	31.3
		기타	2	4.2
	4순위	대상모집	14	39.2
		대상참여자 요구가 다름	6	12.5
		교구재 부족	17	35.4
		콘텐츠 빈약	4	8.3
		기타	2	4.2
5순위	대상모집	1	2.1	
	대상참여자 요구가 다름	0	0	
	교구재 부족	2	4.2	
	콘텐츠 빈약	3	6.3	
	기타	13	68.4	

〈표 Ⅲ-3〉 초기 청소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조사영역	문항 세부내용(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한 설문)	평균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6
프로그램 개발시 각 내용별 필요도	친구관계	4.2
	이성관계	4.0
	부모자녀관계	4.8
	자녀와의 의사소통	4.9
	진로지도	4.2
	학업지도	3.7
	성교육	4.4
	청소년문화	4.5
	부모 양육태도	4.8
	자녀 발달단계별 특징 및 대처	4.6
기타	4.5	

3) 시사점

첫째,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기 수나 회기 당 시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자들이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자녀의 객관적 이해를 위한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을 포함한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정보와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대상 모집 방안과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침서 및 워크북제작에 보다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나.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1) 인터뷰 대상 및 방법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자용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실제 경험

이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초기 청소년기 양상,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 초기 청소년기 자녀 양육 시 고민되는 부분, 초기 청소년기 자녀들의 고민, 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여 경험,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프로그램 내용 및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 등에 관해 알아보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3년 4월~5월, 서울지역 2그룹, 경기도지역 1그룹으로, 총 3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면접 대상자는 서울지역에서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5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6명이었으며 경기도지역에서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5명 등 총 16명이었다. 이들의 연령대는 40대 15명, 50대 이상 1명이었고, 학력은 고졸 5명, 학사졸 8명, 기타 3명,(학사수료1명, 석사수료1명, 석사졸업1명)이었으며, 직업 형태는 전업주부 9명,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3명, 기타 4명이었다. 그밖에 부모교육 참가 경험이 있다 10명, 없다 6명이었으며 부모교육 참여시간은 10시간미만이 대부분(9명)이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연구진들이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을 구성하였고 이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질문의 형태는 도입질문, 주요질문, 마무리질문으로 설정하여 질문의 범위를 1차적으로 구성한 후,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질문내용으로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양상,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 초기 청소년기 자녀 양육시 고민되는 부분, 초기 청소년기 자녀들의 고민, 초기 청소년기 자녀들과의 갈등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 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여경험,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방식에 관한 요구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면접 진행자들은 전문 상담자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상담 전공 석사학위 및 3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이 있는 5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연구진이 직접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Ⅲ-4>에 제시되었다. 심층 면접은 그룹별로 약 1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장소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회의실과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로 학교 상담실 등에서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면담 내용이 녹음된다는 것을 알리고 연구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전사되었다.

〈표 Ⅲ-4〉 부모 포커스 그룹 참여자 일반사항

영역	문항별 세부사항	빈도(명)	퍼센트(%)
연령	40대	15	93.8
	50대 이상	1	6.3
학력	고졸	5	31.3
	학사수료	1	6.3
	학사졸업	8	50.0
	석사수료	1	6.3
	석사졸업	1	6.3
자녀수	1명	1	6.3
	2명	12	75.0
	3명	3	18.8
자녀 학년 (중복체크)	유치부 자녀 이하	3	9.3
	초등학생 자녀	7	21.9
	중학생 자녀	18	56.2
	고등학생 자녀	2	6.3
	대학생 자녀 이상	2	6.3
직업형태	전업주부	9	56.3
	계약직	1	6.3
	정규직	2	12.5
	기타	4	25.0
부모교육 참가경험	있다	10	62.5
	없다	6	37.5
부모교육 참여시간	10시간미만	9	56.3
	10시간이상	2	12.5
가족 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1	6.3
	100-200만원	1	6.3
	300-400만원	3	18.8
	400만원 이상	10	62.5
	미가입	1	6.3
주거지역	서울	9	56.3
	경기	7	43.7

2) 자료 분석

본 연구자들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 내용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함께 모여 총 3사례의 축어록 마다 영역별로 정리한 후, 각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개념들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를 전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자 면접을 실시한 면접자들이 1차적으로 1개의 면접 축어록을 읽고 영역 부호화 작업을 하면서 부호화 영역 및 방법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이후 독립적으로 면접 축어록을 읽고 면접용 질문을 토대로 문장, 구절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영역 부호화 작업을 하였고, 3명의 연구진이 모여 영역 부호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 전원이 모여 각각의 면접 축어록에 대해 토의를 통해 영역 부호화 작업을 한번 더 실시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을 모두 모아 각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적인 개념을 구성하였다. 핵심 개념 구성은 연구자들의 임의적인 추론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이 직접 한 말을 근거로 삼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확정지었다.

3) 인터뷰 결과 요약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초기 청소년기 양상’,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반응’,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대처방법’, ‘초기 청소년기 자녀 양육 시 고민되는 부분’,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고민’, ‘부모교육 참여 경험’,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방식’으로 나누었다. 인터뷰 분석 내용은 <부록 5>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초기 청소년기 양상

면접 참여자가 보고한 청소년들의 초기 청소년기 양상은 먼저 행동의 변화로는 명확하게 앉아있는 모습, 비밀이 많아지고 혼자 있고자 하는 모습, 반항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감정의 변화로는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겪거나 부끄럼 등의 성격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예전과는 다른 도전적인 질문을 하거나, 귀찮다는 말투를 보이고, 수면문제, 우울증상 등의 정신건강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신체적인 변화와 반응에서는 뾰드락지 등이 나는 등의 신체변화와 외모에 급격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친구관계 뿐 아니라 이성교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타 청소년 자녀 스스로 자신이 초기 청소년기인 것 같다는 자가보고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나)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은 감정적인 부분과 생각적인 부분으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놀람 및 충격, 상처받음, 무작정 힘듦, 부담감, 분노, 걱정, 두려움, 긴장감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기특함의 긍정적인 감정이 보고되었고, 생각에서는 대처에 대한 생각,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생각,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바람 등이 보고되었다.

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대처방법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대처방법은 인정하기, 순응하기, 지켜보며 기다림 등의 수용하기와 대화, 설득 및 협상, 조언 및 교육, 편지쓰기, 스킨십 등의 소통하기가 있으며 나의 어릴 적을 돌아보며 나의 경험을 생각하기, 환경 변화시키기, 화내기 및 야단치기, 지지 및 격려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타인의 조언을 귀담아 듣기, 정보를 찾아보는 등의 외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아이가 먼저 다가오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기타로는 밀당하기, 종교적인 힘으로 기도하기, 주제를 너무 무겁게 가지 않기, 그냥 싸우기 등도 보고되었다.

라) 초기 청소년기 자녀 양육 시 고민되는 부분

초기 청소년기 자녀 양육시 부모들이 고민되는 부분은 학업 및 진로, 관계문제, 생활습관, 외모, 신체발달, 청소년의 문화, 성문제, 학교생활, 의사소통,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학업 및 진로에서는 학업의 경우 꿈도 있고 욕심도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으며 진로에서는 진로가 이미 결정된 자녀의 경우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염려로 인한 고민, 부모로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염려, 진로가 결정되었음에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나타났으며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에 대한 고민과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이 나타났다. 기타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인기있는 진로에 너무 편향되는 경향에 대한 우려도 보고되었다.

대인관계의 경우 친구관계와 이성관계, 가족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친구

관계의 경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염려되는 마음까지 보고가 되었다. 이성관계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신체적인 접촉 및 성경험에 대해 부모로서의 역할고민이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되었으며 자녀가 초기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부부간 갈등도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생활습관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고민이 나타났다.

외모에 대해서는 미스트를 한통 다 쓸 정도로 예전에 비해 외출을 준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되어 있음을 보고되었다.

신체발달에서는 예전에 비해 급격하게 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청소년문화에 대해서는 핸드폰을 자꾸 바꾸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에 대한 대처와 몸에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의 독특한 문화, 기다릴 줄 모르는 성급한 태도, 학교폭력, 게임문화,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해 보고되었다.

성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자녀와 성별이 다를 경우 부모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되었으며, 자녀와 대화를 하다가 자녀에게 욕박지르거나 매도 드는 등 의사소통에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기타로는 자녀가 초기 청소년기이기에 모든 방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마)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고민

부모들은 자녀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보고와 학업 및 진로, 외모 스트레스, 자신감 상실, 수면문제, 생활태도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바) 부모교육 참여 경험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은 강의식의 교육과 집단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부모교육 참여시 자녀에게 편기쓰기, 강사의 생생한 사례 제시를 통한 공감되는 분위기,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관련 교육, 부모의 긍정적인 성장, 자녀를 위한 눈높이 교육에 대한 교육기회, 부모가 자신의 유년시절 돌아보기 등이 유익

했다고 보고되었으며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론적인 얘기, 이미 반복적으로 받은 교육내용 및 형식 등은 부모교육 참여시 아쉬운 점으로 보고되었다.

사)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방식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은 주제, 진행 방법, 기대감으로 나누워서 살펴볼 수 있으며 주제의 경우 청소년 발달적 특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대학을 가는 다양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직업에 대한 다양성, 진로 정보 제공 등의 진로교육,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교육, 부모의 마인드를 바꾸는 양육 태도에 대한 교육, 청소년들의 인간됨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 부모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회기 및 시기, 구성방법, 참여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회기 및 시기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은 너무 짧은 것 같으며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고, 요일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교육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고하였다. 구성방법으로는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 필요, 부모자녀 역할 바꾸기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경험해보기, 부모들끼리 정보공부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었으며 참여자들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 부부가 함께 참여하기, 교사도 함께 참여하기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었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에 대한 적절한 대처에 대한 기대와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통해 안도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4) 인터뷰 결과의 시사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기 청소년기가 시작되면 환경적, 신체적, 행동적, 감정적, 관계적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부모들은 대체로 초기 청소년기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며, 이미 초기 청소년기에 양상이 나타나고 갈등이 시작되어서야 내 자녀의 초기 청소년기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놀람, 충격, 상처받음, 힘듦, 부담감, 분노, 걱정, 두려움, 긴장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 반응양상을 보였다. 초기 청소년기 시기의 변화에 대해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가 초기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교육받아 자녀의 발달 단계를 인지하고,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습득이 필요하다. 인터뷰 보고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을 무사히 극복한 후 부모가 자신을 믿고 기다려 주었을 때 자신감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모 스스로 자신의 옛 모습을 살펴보고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였을 때 문제를 극복하는 것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초기 청소년기 변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효능감은 떨어지고 좌절감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상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효과적인 대처 방안 습득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고찰,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게 된다.

셋째, 초기 청소년기 자녀들의 고민을 고려한 주제별 양육 팁이 필요하다. 자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는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핵심 주제 선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생생한 사례 제시와 구체적인 양육 팁을 통해 부모가 현실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습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여 공부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는 자녀의 불안까지 학습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학습과 관련된 양육 팁을 제시한다. 이는 학습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다양한 불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 좀 더 자신있고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습에 대한 진정한 조력자로서 자녀가 자신을 믿고 계획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모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변화는 부모-자녀 관계, 나아가 부모 역할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부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는 신체, 인지가 급격히 성장하고, 정서, 행동 등의 변화가 심한 시기이므로, 부모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안전하게 수용하고, 자녀가 초기 청소년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부모의 울타리를 넓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자녀와의 관계 방법들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섯째, 부모 자신의 치유와 성장이 필요하다. 부모가 건강해야 돌봄을 받고 있는 자녀 또한 건강할 수 있기에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고안이 필요하다. 심층 인터뷰 결과, 자신의 유년시절을 돌아보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청소년기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양육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기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부모로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로서의 성장은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며 건강한 부모가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부모교육의 주요 대상은 ‘엄마’인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부부관련 교육과 부부의 참여, 아이들의 참여, 선생님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사회와 가정에서 아버지 학교 등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회기, 시기, 구성방법 등의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의식 교육에서도 진부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이론적인 교육이 아닌 좀 더 효과적인 방법과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 초기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1) 인터뷰 대상 및 내용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보다 생생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초기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초기 청소년기의 시기, 양상, 이 시기에 경험하는 고민 및 갈등 그리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 및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의 고민 및 갈등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대처와 반응을 보였는지, 부모님과의 좋았던 기억과 원하는 것 등 이 시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적인 의미 파악을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세 그룹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그룹별 2명의 진행자와 4명의 연구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교육상담 전공 석사학위 및 3년 이상 상담실무 경력이 있는 5인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연구진이 직접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3년 6월 중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서울지역 1그룹, 인천지역 1그룹, 경기도지역 1그룹으로, 총 3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그룹 별 1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장소는 방과 후 학교교실과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로 연구진이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Ⅲ-5>에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에 앞서 연구진은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자료 수집을 위한 녹음의 허락과 동의서를 받았으며, 참가자들의 개인 정보는 연구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사용한 다는 것을 알렸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뷰의 질문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전 모임을 갖고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검토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진행자의 질문(도입질문)을 토대로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이 현재 초기 청소년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개인당 2~3분 정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입질문에 이어 진행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경험을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유의하며 주요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정보와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도출된 의견이 연구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였으며, 마무리 질문을 통해 빠진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에 대한 확인과 준비된 질문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실시하였다.

〈표 Ⅲ-5〉 청소년 포커스 그룹 조사 대상 일반 사항

구분	세부내용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6	50
	여	6	50
학년	중1	4	33.3
	중2	8	66.6
지역	서울	4	33.3
	경기	4	33.3
	인천	4	33.3

2) 자료 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를 기술한 녹취록을 작성하고 자료를 정독하여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연구진이 독립적으로 확인 후,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에 대한 합의와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모여 녹취록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영역부호화 작업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뷰 축어록을 재검토하면서 주제별로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하고, 선정된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결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을 모두 모아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화내용을 하위범주 별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6>에 제시하였다.

3) 인터뷰 결과 요약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 양상’, ‘초기 청소년기 고민 및 갈등’, ‘고민 및 갈등에 대한 대처’, ‘고민 및 갈등에 대한 부모님이 대처’, ‘부모님과 좋았던 기억’, ‘부모님께 원하는 것’, ‘청소년의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생각’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세부 분석 내용은 부록 에 수록하였으며, 이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초기 청소년기 양상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초기 청소년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신

체변화, 생각변화, 감정변화, 행동변화,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신체변화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차 성장으로 나타나는 변성기, 발모, 여드름, 생리, 가슴발달 등의 신체변화를 통해 초기 청소년기가 왔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규칙준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당연히 여겨왔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등 자신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자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들은 초기 청소년기가 되면서 감정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쉽게 우울감을 경험하며 짜증과 분노의 감정을 자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행동의 변화에 있어서는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반항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폭력적인 행동과 비속어 등의 나쁜언행을 사용하며 주위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의 양상은 친구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초기 청소년기 시기 청소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녀의 변화에 대해 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 청소년의 고민 및 갈등

청소년들은 진로, 학업 및 성적, 가족관계, 대인관계, 또래문화 영역에서 고민 및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은 주로 고등학교·대학교와 같은 상급학교 진학, 장래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업 및 성적에 대해서는 현재 자신의 성적에 대한 고민과 공부에 대한 어려움, 가족관계에서는 부모님, 시험성적, 형제간의 다툼, 최신 브랜드 선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주로 동성친구와의 갈등해결 방법, 대화법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좋아하는 이성친구 혹은 헤어진 이성친구로 인한 고민과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규율을 강조하는 교사들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문화 영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과 과도한 게임이용 시간으로 인해 고민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 고민 및 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고민 및 갈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혼자 해결 하거나, 중요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혼자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는 스스로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문제를 대처한다고 보고하였다.

중요한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 그 대상으로는 주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형제나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라) 고민 및 갈등에 대한 부모님의 대처 및 반응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고민과 갈등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대처 및 반응으로 폭력적 처벌, 문제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조언하는 모습,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행동 등을 보고하였다.

이는 다양한 고민과 갈등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대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마) 부모님과 좋았던 기억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이 부모님과 좋았던 기억으로는 부모님이 지지해주거나 무조건 내편이 되어줄 때, 이해받는 기분이 들 때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때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여가활동을 함께 했을 때, 챙겨준다는 생각이 들 때, 원하는 것을 사줄 때 등을 보고하였다.

바) 부모님께 원하는 것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를 좀 더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주었

으면 하는 바램, 자녀들도 결과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과정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자녀에 대한 이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들이 상황에 따라 자녀에 대한 관심을 잘 조절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무조건 화를 내거나 일방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녀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원한다고 보고하였다.

사) 청소년의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생각

초기 청소년기에 대하여 나를 알아가는 과정, 성숙해지는 과정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불안정한 시기, 불안하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없었으면 하는 시기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4) 인터뷰 결과의 시사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고민 및 갈등 영역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진로, 학업 및 성적, 가족관계, 동성 및 이성과의 대인관계, 또래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중요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고민 및 갈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의 조연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초기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욕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와 이해, 관심, 존중 등 정서적인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지원 보다 정서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시기임을 의미하며 이전과는 다른 부모-자녀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와의 고착화된 관계 패턴에 대한 파악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1) 인터뷰 대상 및 내용

연구 참여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설 상담실,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등 청소년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전문가 선정기준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경험 100시간 이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 여부, 부모교육 관련 대학 강의 경험 등을 고려하였다. 참여자 선정 시 본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그 결과 참여의사를 밝힌 12명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일반 사항은 <표 III-6>에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을 위해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에 대한 문헌연구와 연구진들의 논의를 통해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을 구성하였다. 질문의 형태는 Krueger &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과 과정을 참고하여,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 주요질문(Key questions), 마무리질문(Ending questions)으로 설정하여 질문의 범위를 1차적으로 구성한 후,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세 그룹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그룹별 2명의 진행자와 4명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교육상담 전공 석사학위 및 3년 이상 상담실무 경력이 있는 5인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연구진이 직접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그룹 별 1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장소는 청소년상담원 회의실과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로 연구진이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에 앞서 연구진은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자료 수집을 위한 녹음의 허락과 동의서를 받았으며, 참가자들의 개인 정보는 연구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사용한 다는 것을 알렸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뷰의 질문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전 모임을 갖고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검토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진행자의 질문(도입질문)을 토대로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요 이론적 배경과 관련 경력 등에 대한 질문 개인당 2~3분 정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입질문에 이어

진행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경험을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유의하며, 주요 질문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정보와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도출된 의견이 연구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였으며, 마무리 질문을 통해 빠진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에 대한 확인과 준비된 질문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표 III-6> 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조사 대상 일반사항

구분	성별	나이	전공	부모교육 운영시간
1	여	40대	교육학	200시간 이상
2	여	50대	사회복지학	400시간 이상
3	여	40대	심리학	500시간 이상
4	여	40대	교육학	100시간 이상
5	여	40대	상담학	100시간 이상
6	여	30대	심리학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경험
7	남	40대	심리학	300시간 이상
8	여	40대	상담학	400시간 이상
9	여	40대	교육학	500시간 이상
10	여	40대	상담학	200시간 이상
11	여	30대	교육학	100시간 이상
12	남	30대	상담학	부모교육 관련 대학 강의 유경험

2) 자료 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를 기술한 녹취록을 작성하고, 자료를 정독하여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연구진이 독립적으로 확인 후,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에 대한 합의와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모여 녹취록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영역부호화 작업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뷰 축어록을 재검토하면서 주제별로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하고, 선정된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결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영역별로 정리한 내

용을 모두 모아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화내용을 하위범주 별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부록 7>에 제시하였다.

3) 인터뷰 결과 요약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들의 피드백’,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어려운 점’,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세부 분석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이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들의 피드백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요인을 추출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운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의 피드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첫째, 자신을 이해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가족의 가족력과 자신의 가치관 및 내면에 대한 이해를 경험할 때, 부모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지도자들이 자기개방을 할 때 교육에 대한 몰입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자신의 자기개방 경험 역시 부모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들은 부모교육에서 치유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집단원들과의 사례공유를 통해 양육과 관련된 심리적인 불편감이 자신만이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보편성의 경험과 집단원들의 지지경험이 이러한 치유적인 경험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앞서 보고된 결과 이외에도 양육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가 양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양육에 필요한 실제적인 스킬이 교육내용에 반영될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프로그램에서의 경험과 교육 내용 외에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명확한 구조화가 이루어진 프로그램, 둘째, 교육 종료 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료식과 같은 세리모니의 진행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종료 후 지도자가 편지를 보내거나 사후모임과 같이 부모교육을 통해 경험한 내용들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지도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인터뷰 참여자는 교육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변인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한 자녀의 연령이 다양하거나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욕구수준이 차이가 나타날 때, 자녀 문제의 심각한 정도가 차이를 나타낼 때 지도자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성원의 특성 이외에 지도자의 부모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부모교육 초기에 집단원들 간의 관계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장소와 기자재 미비, 교육에 대한 사전준비 부실과 같은 환경적인 특성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떤 양육방법과 태도를 갖아야 할지 혼란을 갖고 있으며,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이 다를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지도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형제간의 갈등의 중재자로써의 역할 방법과 성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들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게 나타나는 발달적인 과정을 경험하면서 양육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입학 시기와 맞물려 진로 및 학습에 대한 문제로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하며,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면서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 부모 세

대와 다른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에서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의 분리에 대한 준비 부족, 자녀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자녀의 또래 관계 등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인터뷰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우선 부모에게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달적 특성에 대하여 모르는 것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야기하는 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자살 등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 대한 지식,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 부모들은 진로 및 학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함을 보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부모 자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 성격 등에 대한 이해, 자기 내면에 대한 통찰을 경험하는 것,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주요하게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이 보고되었다.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 자신이 건강해야 함을 보고하였으며,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건강한 부모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부모 스스로 긍정적인 자기성장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부모들의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부 간 합의된 방법 만들기와 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양육법에 대한 내용 역시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부모자녀관계, 형제서열, 자녀성별, 잘 기능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부모-자녀 간 관점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이 보고되었다.

마)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

우선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교구재는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것과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구분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고되었다.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구재로는 교육내용에 부합하는 동영상과 파워포인트 자료, 교육생들에게 제공할 강화물, 가족 조각을 실시할 수 있는 인형, 그림·감정 카드 등이 의견이 개진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교구재로는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휴대 및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갈피, 달력 등의 교구재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정 회기로는 회기 당 2시간으로 진행하여, 6회기에서 10회기 사이에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운영 시 도입부분에서 집단원들의 저항을 줄이고, 집단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부모들의 경우 정기적인 교육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참여하는 부모들의 특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모듈식 구성과, 필수회기와 선택회기를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지침서와 워크북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들은 지침서의 내용은 부모교육 경험이 적은 지도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방법을 담아낼 것을 강조하였다. 워크북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종료 이후 추수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둘째, 프로그램의 제목이 부정적일 경우 낙인의 우려로 인해 모집이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긍정적인 프로그램 제목을 부여해야 하며, 셋째, 미술치료, 내면아이 치료와 같은 치료적인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러 방대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초점화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인터뷰 결과의 시사점

초기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현장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 경험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재하여 효과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원인으로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를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은 건강한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돕고 학교폭력, 자살,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주요 문제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발달적 이해가 필요하다. 초기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자녀의 발달적 단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되었으며, 부모에게 자녀의 발달적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만으로도 양육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행동과 심리상태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러한 어려움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프로그램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가 아닌 부모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자기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 문제 및 특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과 어려움을 새롭게 조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부모 자신의 효능감 높이기, 감정 다루기, 스트레스 다루기 등 부모에게 초점화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양육시 필요한 실제적인 기법 제공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부모 교육 강의나 집단프로그램에서 현실을 반영한 기법과 팁에 대한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부모들은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구성시 실제적인 기법들에 대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과 지도자들의 위한 다양한 교구재 및 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 부모교육 참여자들은 지도자를 자신의 역할모델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지도자의 피드백과 사후모임과 같은 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경험할 때 교육효과와 그 지속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위해 사후모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법과 지도자들이 집단상담에서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집단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효과적인 집단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재 개발도 필요하다.

라. 프로그램 구성단계

1) 프로그램 구성 원리

기존의 문헌연구와 현장전문가 요구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초기 청소년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우선,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들이 이 시기의 자녀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선행연구, 부모 및 현장전문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 특히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 특성에 따른 자녀의 행동 및 정서 변화에 대한 이해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발육이나 2차 성징의 발현 등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환경적 변화를 겪는 시기로 부모들 역시 이전의 자녀 양육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이로 인한 혼란과 불안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부모들은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초기 청소년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자녀들의 행동 및 정서적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교육적 측면은 청소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다른 부모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되는 부분으로, 기존의 국내·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자녀를 둔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부모의 양육기술 습득이나 의사소통 개선, 자기조절능력 향상 등에 목표를 두고 있어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 초기 청소년기의 특성과 이 시기의 자녀가 보일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환경적 특징에 대해 부모들을 교육함으로써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시기의 특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둘째, 부모의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의 습득에 있어 발달단계로서의 초기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초기 청소년기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부모·청소년 및 현장전문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양육에서 부모나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서 부모 및 자녀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구체적인 대처 방법,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선정된 영역 중 첫 번째는 ‘진로’ 및 학업 영역으로, 이는 부모, 청소년, 현장전문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던 관심 분야로, 학업 및 진로탐색의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 및 행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보였다. 하지만 학업 분야의 경우 부모교육 집단상담에서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가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선기춘, 2005; 오석구, 2005), 자녀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영역인 ‘이성교제’의 경우, 부모 및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지만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 및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고 있었고, 청소년 발달적 측면에서 이 시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자녀의 이성교제를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이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이 시기의 두드러지는 발달적 특징일 뿐만 아니라 성 문제와도 많은 관련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에서는 자주 다루어지지 않던 주제이기에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세 번째 영역은 초기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것으로, 스마트폰 관련 문제와 어려움

은 부모 및 청소년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주제이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는 단독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나기보다는 학업, 또래관계, 부모-자녀 관계, 생활 습관 등과 관련이 깊다. 최근 스마트폰은 청소년 문화를 대표하는 매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부모교육과 이에 대한 부모의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후기 청소년기에 자녀들이 보일 수 있는 부적응문제 예방을 위해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필요한 역할, 양육방법, 상황 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구성요소로 포함시켰다. 부모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분석 결과, 부모들은 자녀들의 갑작스런 신체 및 행동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청소년기 문화를 얼마만큼 허용해주어야 하는지, 자녀와의 건강한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들의 청소년기 부적응문제 발생 예방과 모호한 양육기준에 따른 부모의 스트레스 및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명확한 양육 가치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특정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 실생활에 적용이 용이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방법을 훈련하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양육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 부모간의 정보 공유와 토론을 함으로써 스스로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탐색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전문가 팁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실생활에서 부모들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에도 초점을 두었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안과 혼란은 부모로 하여금 미숙하고 감정적인 대처와 부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의 신념과 가치관을 탐색하고 이것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양육에서 촉발되는 감정, 생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 점검과 더불어 부모가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양육에서 경험하는 상처 및 스트레스를 다루고 보편성 및 지지 경험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더 나은 양육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개인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섯째,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의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자녀와 부모에게 그동안의 관계 방식과는 다른 양식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부모가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목표 하에 이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잘 들어주는’, ‘지지해주는’, ‘존중해주는’ 부모의 태도를 원한다고 보고한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경청’을 하나의 주제로 정하여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경청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부모와 청소년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다수에 의해 부모-자녀 간의 갈등상황으로 ‘자녀가 방문을 닫거나 잠그는 행동’, ‘줄어든 대화에 대한 부모의 불안’이 보고되었다. 초기 청소년기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시작되는 시기로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러나 부모는 이전과 달라진 자녀의 행동에 불안을 느끼고 개입하거나 소통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으로 갈등이 유발되곤 한다. 따라서 이때 부모들이 자녀들이 혼자 있기 원하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이와 같은 변화를 인정해주고 지켜봐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반면 청소년기는 아직 독립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므로 힘들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다가가 의지하고 싶은 시기이기도 하다. 부모들이 이때는 자녀에게 다가가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녀와 심리적-물리적 공간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도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동과 청소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훈련’과 ‘갈등 다루기’를 구성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자율성과 독립심이 초기 청소년기에 습득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자녀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잘 수용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경청’과 ‘존중’은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 시기 자녀와 관계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기법으로 선정된 것은 타당해 보인다.

2) 프로그램 구성모형

본 프로그램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앞의 구성 원리에 의하여 본 프로그램의 목표 및 세 가지 하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앞의 연구 결과와 문헌연구에서 보듯이 사춘기가 되면 이전에 부모의 말에 순응하던 자녀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응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갖고자 하는 등의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기 때 품안의 자식으로 여기고 세세한 것 하나까지 관여하던 태도에서 조금은 떨어져 자녀가 자율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여유를 갖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 맺기’로 정하고, 각각의 하위 목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세부 목표에 해당한다.

첫째, 부모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해 이해한다.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우선 부모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가 자유롭게 발달적인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이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들이 전반적인 청소년기 발달과 청소년의 문화 및 경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사춘기 자녀의 다양한 양상과 특수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우리 아이만의 독특한 초기 청소년기 양상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둘째, 부모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한다. 심층면접 결과, 부모들은 부모도 상처를 받는다고 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일로 겪게 되는 상처가 있지만 토로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들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하게 되고, 이전에 사용하던 양육방법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며 좌절과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양육 신념을 점검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아픔, 상처, 불안에 대해 공감하고 성공 경험까지 나눔으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소진을 방지하며 새롭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수용하고 나아가 새로운 관계 형성과 역할을 모색 수 있게 된다.

셋째, 초기 청소년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작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준비한다. 부모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수용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자녀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즉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자녀들은 여전히 힘들 때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고, 격려받

기를 원하지만 부모-자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변화가 많은 청소년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관계 형성의 출발이다. 그리고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두기와 때때로 자녀를 기다려주고 지켜봐 주는 것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시기 부모에게 요구되는 자세이다.

위와 같은 목표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 구성모형 및 세부내용은 <표 III-7>와 같다.

<표 III-7>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모형

목표	하위 목표	구성 요소	프로그램 세부내용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맺기	자녀에 대한 이해	-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적, 심리적 이해	- 초기 청소년기 자녀들의 발달적 특성의 이해 - 청소년 문제 경향, 문화에 대한 이해
		-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주요 영역에서의 부모역할	- 청소년문화(스마트폰)와 부모역할 - 이성교제와 부모역할 - 진로와 부모역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 양육신념 점검	-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 탐색 - 양육신념과 부모-자녀 갈등의 연관성 확인 - 갈등 해결을 위한 양육신념의 재설정
		- 양육 시 부정적 감정 해소	- 양육 시 느끼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 탐색 - 부정적 감정 해소를 통한 자기 자신 수용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	- 경청과 공감	- 자녀와 관계에서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 인식 - 경청의 걸림돌 탐색 - 경청과 공감 연습
		- 수용적 존중	- 관계에서의 심리적-물리적 공간의 의미 이해 - 존중과 격려에 대한 중요성 이해 - 자녀 존중 및 격려 연습

3) 프로그램 운영 원리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문헌자료, 부모와 현장전문가의 요구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초기 청소년기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로 규정하고, 이 시기 자녀를 둔 부모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이들이 바라는 도움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된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재한 실정으로, 이 시기의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부모교육은 대부분 연령의 구분이 없거나 위기영역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들은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문화·환경적으로 다른 발달 시기와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기의 성공적인 적응 여부가 후기 청소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가 변화의 시기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이 중요하므로,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가 이 시기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둘째,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총 6회기 150분, 주 1~2회 운영되며 지도자 1명과 부모 6~8명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하지만 상황 및 환경에 따라 120~150분으로 유연성 있게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2회기에서 다루는 총 3가지 주제는 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1~2가지 주제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6회기는 마무리 단계로 불가피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는 1회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특정 영역에 대한 부모역할의 이해를 다루는 2회기는 해당 주제의 독립적인 부모교육 강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였다.

셋째, 1회기를 제외한 프로그램 매 회기 초에 도입활동으로 '호흡 명상을 통한 감정 인식하기' 활동을 포함시켜 집단원들이 본 활동에 들어가기 전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매 회기 동일한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호흡방법을 내재화하여 가정에서도 스스로 수행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프로그램 매 회기가 끝날 때 해당 회기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부모성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적인 지식,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술, 활용도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동영상, PPT 등의 시청각 자료와 개인 활동지, 역할극, 토론 등의 활동을 활용하였다.

4) 프로그램 구성단계

가) 프로그램의 목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이 신체적·환경적·심리적 변화에 처해있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부모의 자기 이해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양육 가치관을 점검해보고 부모의 긍정적 자기 성장을 돕는다.

셋째,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 경청과 공감 등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한다.

넷째, 부모들이 사춘기 자녀 양육시 고민되는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받음으로써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다.

나) 프로그램의 초안 구성

〈표 III-8〉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 내용

회기	회기 명	목표	세부 내용
1	우리아이, 왜 그럴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을 이해하고 참여에 대한 동기 고취 ■ 지도자 및 참여자들 간의 라포 형성 ■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의 발달적·심리적 이해를 통한 자녀에 대한 조망 확장 ■ 자녀양육 스트레스 감소 및 상호지지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프로그램 소개 및 참가자 소개 ■ 자녀와의 갈등영역 탐색 ■ 초기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교육 : 청소년의 뇌와 호르몬 변화 이해, 행동양상 등
2	초기 청소년기 HOT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청소년기의 진로탐색, 이성교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해 ■ 초기 청소년기의 진로탐색, 이성교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 역할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청소년기 진로 탐색에 대한 이해 및 부모 역할 탐색 ■ 초기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이해 및 부모 역할 탐색 ■ 초기 청소년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해 및 부모 역할 탐색
3	생각의 길 산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들의 양육신념 이해 ■ 부모-자녀 갈등의 탐색 ■ 부모 자신의 부정적 갈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양육신념과 이로 인한 생각과 느낌 이해 ■ 부모의 양육신념과 부모-자녀 갈등 간의 관련성 이해 ■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해소 및 자기수용 촉진

4	엄마는 굿 리스너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 맺기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자녀에게 경청의 중요성과 의미 이해 ■ 경청의 걸림돌 탐색 ■ 경청과 공감 방법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관계의 첫걸음인 경청에 대한 의미 설명 ■ 경청이 걸림돌 탐색-나의 양육 신념과 연결 ■ 경청과 공감 방법 습득 및 실습
5	존중하는 부모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자녀에게 새로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모색 ■ 존중과 격려 방법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성과 자율성 습득 단계인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부모 역할 탐색 및 실생활 적용 - 존중과 격려
6	End & 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및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이를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의 의미 이해 ■ 자녀양육을 위한 힘 북돋움 ■ 학습내용의 지속적 실천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방향 모색 ■ action plan 만들기 ■ 칭찬 세례

3.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

가. 시범운영의 실행

1) 시범운영의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양 소재 초등학교 1곳과 CYS-Net을 통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그리고 지도자와 참가자, 통제집단 모집이 가능한 초등학교 1곳과 5개 지역의 상담복지센터를 선정하였다. 시범운영 모집 결과,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총 6곳의 시범운영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중 초등학교 1곳은 본 프로그램의 연구자 2명이 직접 부모교육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5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프로그램 연구자가 센터의 시범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도자 교육은 2013년 9월 9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지도자 교육 내용은 프로그램의 개발원리, 취지,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지도자 교육이 끝난 후, 연구진과 시범 운영자들은 프로그램의 보완점과 수정할 점들에 대한

평가회의를 했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2013년 9월 13일에 최종 확정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기관에 제공했다.

2) 시범운영의 과정

시범운영 실시 센터들은 지도자 교육 후, 각 지역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13년 9월 14일부터 2013년 10월 18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동안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 1곳과 전국 5개 센터에서 실시되었다. 각 기관별로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의 부모들이 참여하여 이번 시범운영의 총 참여자 수는 38명이었다.

시범운영자들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실제 프로그램 시행 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을 연구진과 구두 혹은 서면으로 상의했다. 또한 시범운영 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 경우, 연구진이 해결방안이나 수정방안을 제공하였으며 시범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일부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진은 시범운영 기관의 피드백을 취합하여 주 1회 연구회의를 실시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고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정리하였다. 시범운영 기관들은 시범운영이 끝난 후, CYS-Net 혹은 각 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실시 결과와 참가자 및 지도자 피드백을 전달했다.

시범운영 지도자들은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1회기 시작 전과 6회기 이후에 각각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 회기를 마칠 때마다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변화를 측정하는 자가 점검 설문을 작성하도록하였다. 시범운영자들 역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공하였다. 2013년 10월 18일, 각 기관의 시범운영자들은 서면 및 구두를 통해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평가를 연구진에 전달했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시범운영을 실시한 지도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9>. 시범운영에 참가한 지도자는 총 8명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전국 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자들이었다. 시범운영 지도자 모두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이전에 부모교육 집단상담 경력이 있었다. 소속별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명,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6명이었으며, 학력은 석사 수료 1명, 석사 4명, 박사수료 2명, 박사 1명이었다.

〈표 Ⅲ-9〉 초기 청소년기 부모교육 시범운영 지도자 특성

번호	성별	나이	지역	학력	직업	상담 경력	부모 집단상담 경력	상담관련 자격증
1	여	35	부산	박사수료	상담사	7년	4년	상담심리사 해결중심 가족치료전문가
2	여	36	서울	석사수료	상담사	13년	8년	상담심리사
3	여	44	서울	박사	상담사	17년	1년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4	남	40	전남	석사	상담사	5년	3년	사회복지사
5	여	40	울산	석사	상담사	12년	11년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6	남	52	서울	석사	상담사	18년	10년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7	여	52	인천	석사	상담사	10년	8년	미술치료사 MBTI 강사
8	여	39	경기	박사수료	상담사	4년	2년	미술치료사 청소년지도사

나. 시범운영의 평가

1) 연구설계

프로그램의 평가는 참가자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사전검사는 시범 운영 기관이 모집한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 1회기 전에 실시하였고, 사후 검사는 프로그램의 6회기를 마친 후 실시하였다. 단, 시범운영 기관의 사정으로 본 연구진이 요청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효과성 평가는 부모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자기성장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표Ⅲ-10〉과 같다.

〈표 III-10〉 측정도구

NO.	측정 변인	측정 도구
1	부모 양육효능감	Gilband-Wallston &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가 번안한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Barnes & Olson(1982)이 개발하고 유지연(1998)이 번안한 척도
3	부모의 자기성장	Dignam이 개발하고 서봉연(1975)이 번안한 문항을 채경선(2006)이 수정한 척도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개발될 프로그램의 대상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었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연령대는 만 10세 ~ 만 14세였으며, 현재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로 선정했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진과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이 중 본 프로그램을 5회기 이상 참여한 25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서울 지역이 5명, 경기 지역이 5명, 인천지역이 7명, 경남지역이 8명이었다. 참가자들의 연령대는 39세부터 55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44.12세였다. 참가자들의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100만원~200만원이 2명, 200만원~300만원이 4명, 300만원~400만원이 4명, 400만원 이상은 6명이었고 무응답은 9명이었다. 참가자들의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초기 청소년기 부모교육 시범운영 참가자 특성

항목	빈도(명)	백분율(%)	
지역	서울	5	20
	경기	5	20
	인천	7	28
	경남	8	32
성별	남	0	0
	여	25	100
연령	30대	1	4
	40대	21	84
	50대	3	12

	100만원~200만원	2	8
	200만원~300만원	4	16
경제수준	300만원~400만원	4	16
	400만원 이상	6	24
	무응답	9	36
부모교육	유	17	68
참가 경험	무	8	32
총 인원		25	100

3) 측정도구

(가)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l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가 국내 사정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는 총 16문항으로, 부모로서의 효능감(9문항),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4문항), 그리고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3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인지적인 차원에서 측정되며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은 정서적인 차원에서 측정된다.

본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척도는 <부록 8>에 제시하였다.

<표 III-12>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하위요인 별 문항 구성

부모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계수
부모로서의 효능감	16	2, 3, 7, 8, 9*, 10*, 11, 12, 15	.85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4	4*, 5*, 6*, 16*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3	1, 13*, 14	

* 역채점 문항

(나) 부모-자녀 관계 의사소통(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의사소통의 변화 측정을 위해 Barnes & Olson(1982)¹⁾이 개발하고 유지연(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개방형 의사소통(10문항)과 문제형 의사소통(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 부모 스스로의 의사소통 방식을 알아보는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의사소통 방식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프로그램은 부모가 느끼는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척도는 <부록 9>에 제시하였다.

<표 III-13> 부모-자녀 관계 의사소통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부모-자녀 관계 의사소통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계수
개방형 의사소통	10	1, 2, 3, 4, 5, 6, 7, 8, 9, 10	.79

(다) 자기성장 척도(Ego-identity Scale)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기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Dignam이 개발하고 서봉연(1976)이 번안한 문항을 채경선(2006)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이해(8문항), 자기수용(8문항), 자기개방(8문항), 자기실현(8문항)의 총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척도는 <부록 10>에 제시하였다.

1) Barnes, Howard & Olson, D. H. (1982).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 of Minnesota; 김진희(1989)에서 재인용

〈표 III-14〉 자기성장 척도 하위요인 별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계수
자기이해	8	4, 5, 12, 16, 20, 24, 28, 32	.83
자기수용	8	3, 6, 10, 14, 18, 22, 26, 29	
자기개방	8	2, 7, 11, 15, 19, 23, 27, 31	
자기실현	8	1, 8, 9, 13, 17, 21, 25, 29	

(라) 참가자 및 지도자 평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했다. 참가자 만족도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하였으며, 7점 척도이다. 그리고 매 회기 마지막에 ‘부모 성장 보고서’를 통해 참가 부모들이 그 회기 전과 후에 회기별 목표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부모 성장 보고서’는 5점 척도였으며, 점수 변화에 대한 의미와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하였다.

지도자의 경우, 시범운영 중 혹은 운영이 끝난 후 ‘프로그램 활용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 내용으로는 회기 만족도 및 세부 활동별 만족도, 프로그램의 시의성, 현장 적용성 등이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지도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제시하여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장점, 각 회기에서 도움이 된 점과 아쉬웠던 점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4) 분석방법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 자료를 토대로, 대응표본 t-검증(paired-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이 활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시범 운영 실시한 후 효과를 평가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하나는 참여 부모들에게 ‘부모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관계 의사소통’, ‘자기성장’척도를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와 지도자의 의견 및 평가를 평가서와 평가회의를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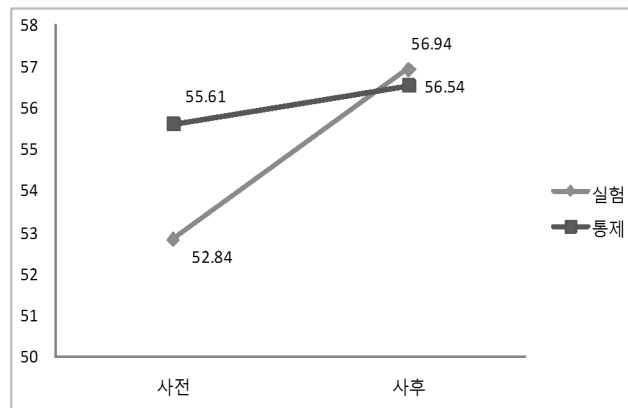
1) 부모 양육효능감

시범운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효능감을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별로 사전, 사후 검사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실험집단의 양육효능감 전체 점수는 사전검사(M=52.84, SD=7.60)와 비교해 사후검사(M=56.97, SD=7.06)에 약 4.3점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t=-2.45, p<.05$). 이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중 ‘부모로서의 효능감’($t=-2.32, p<.05$),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t=-2.21, p<.05$)는 사전과 비교해 사후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 및 좌절감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 사전검사(M=10.74, SD=2.97)와 비교하여 사후검사(M=11.50, SD=2.93)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 양육효능감 증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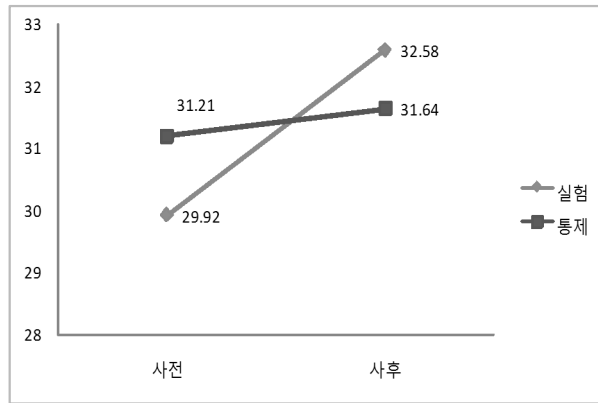
〈표 IV-1〉 집단별 부모 양육효능감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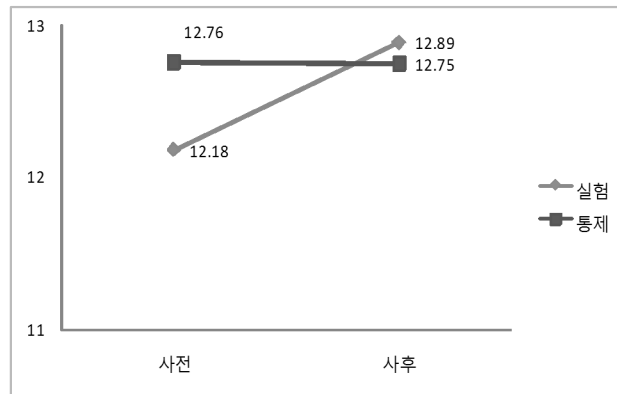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부모 양육효능감	52.84 (7.60)	56.97 (7.06)	-2.45*	52.61 (8.44)	56.54 (7.87)	-.426
부모로서의 효능감	29.92 (5.23)	32.58 (4.73)	-2.32*	31.21 (4.57)	31.64 (4.24)	-.364
하 위 요 인	10.74 (2.97)	11.50 (2.93)	-1.13	11.61 (3.48)	12.14 (3.38)	-.583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12.18 (1.43)	12.89 (1.37)	-2.21*	12.76 (1.75)	12.75 (1.53)	.081

* $p < .05$ 

〈그림2〉 집단에 따른 부모 양육효능감(전체) 사전·사후 평균변화



〈그림3〉 집단에 따른 부모로서의 효능감(하위 요인) 사전·사후 평균변화



〈그림4〉 집단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하위 요인) 사전·사후 평균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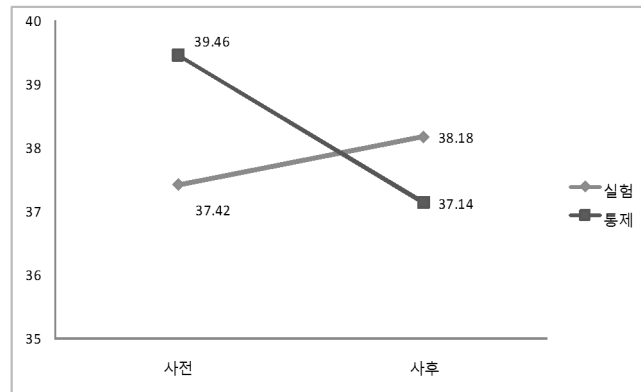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에 따라 참여자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프로그램 전($M=37.42$, $SD=5.50$)보다 프로그램 후($M=38.18$, $SD=5.09$)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 따라서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IV-2〉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표 IV-2〉 집단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38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37.42 (5.50)	38.18 (5.09)	-.627	39.46 (11.02)	37.14 (5.00)	.102



〈그림5〉 집단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사전·사후 평균변화

3) 부모의 자기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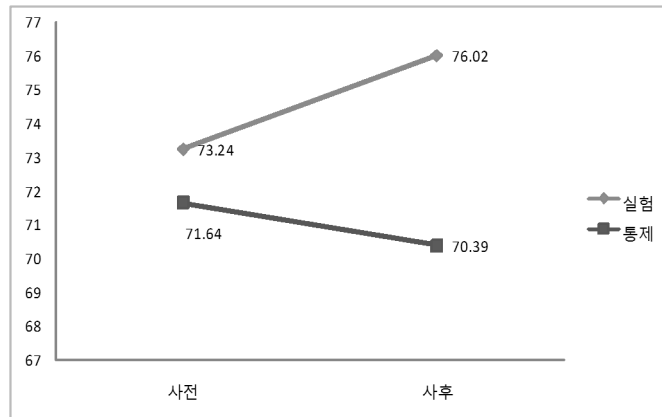
시범운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기성장 척도를 사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부모의 자기성장 검사의 사전, 사후검사 간 차이를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 사후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부모의 자기성장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기실현을 살펴보면, '자기수용'(t=-2.25, $p < .05$)과 '자기개방'(t=-3.22, $p < .05$)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반면, '자기이해'와 '자기실현'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자기수용과 자기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림 6〉, 〈그림 7〉, 〈그림 8〉에 제시되었다.

〈표 IV-3〉 집단별 부모의 자기성장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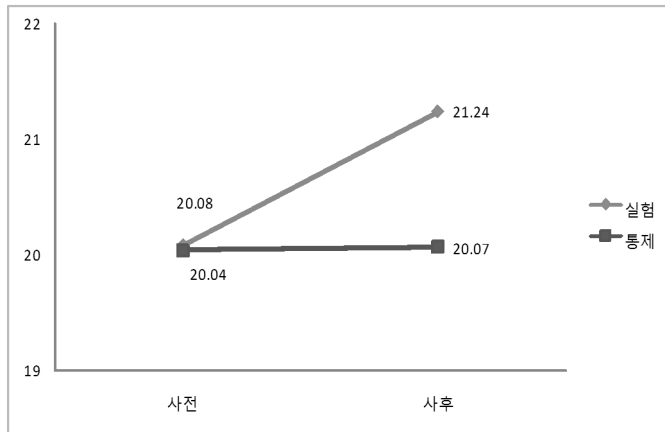
N=38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부모의 자기성장	73.24 (6.72)	76.02 (11.31)	-1.31	71.64 (5.80)	70.39 (6.84)	-.738
자기이해	17.37 (3.44)	17.58 (3.63)	-.259	15.75 (2.98)	15.86 (3.04)	-.133
하 위 요 인						
자기수용	20.08 (1.85)	21.24 (2.57)	-2.25*	20.04 (2.47)	20.07 (1.63)	.173
자기개방	18.34 (1.65)	20.21 (3.17)	-3.22*	17.93 (1.56)	17.82 (1.81)	-.237
자기실현	18.39 (2.77)	18.21 (3.28)	-.265	17.89 (3.29)	17.54 (2.82)	.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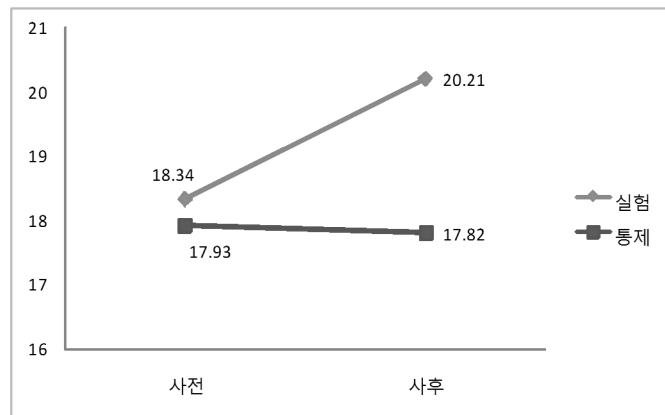
* $p < .05$



〈그림6〉 집단에 따른 부모의 자기성장(전체) 사전·사후 평균변화



〈그림7〉 집단에 따른 자기수용(하위요인) 사전·사후 평균변화



〈그림8〉 집단에 따른 자기개방(하위요인) 사전·사후 평균변화

나. 결과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효능감의 경우, 참여자들이 본 프로그램 참여 이후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감 향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부모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전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점수는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 프로그램 4, 5회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참여자들이 충분히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의 자기성장 변화는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자기성장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요인 중 부모의 자기수용과 자기개방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자기이해, 자기실현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집단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 프로그램 참가자 및 지도자 평가

가. 참가자 평가

1)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의 전체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6.3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의 부모들의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의견 전체는 <부록 11>에 제시하였다.

참여한 부모교육 집단상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과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회기 '엄마는 굿 리스너'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4회기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은 경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청의 걸림돌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밥상 차리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자녀에게 하는 말 중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해가 쉬웠고 공감과 경청의 중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의견이 많았던 3회기 ‘생각의 길 산책하기’ 프로그램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신과 양육태도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의 가치관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신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자신의 욕구인지 아이의 잘못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 1회기에 자녀의 뇌구조를 그려보는 활동이 자녀의 생각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과 교육이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5회기에서는 격려와 공감하는 법을 직접 해봄으로써 실천해야겠다는 다짐과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견이 있었고 6회기는 그동안 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장 의견이 적었던 2회기는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다루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모교육 집단상담에서 참여하기 어려웠던 프로그램과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회기에서 교육 내용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되었다는 의견과 2회기에서 이성교제, 스마트폰, 진로탐색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막상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대처가 잘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3회기에서는 양육신념을 찾는 것이 힘들었고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좋으면서도 힘들었다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실제로는 스스로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이 불편하게 느껴져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4회기 내용 중 공감이나 격려가 익숙하지 않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야 해서 따라가기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모교육 집단상담 후에 깨닫게 된 점을 묻는 질문에는 자녀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였다. 예를 들어 ‘내 자녀의 행동이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쉬워졌다, 사례를 직접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것이 좋았다.’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키워야겠다, 스킨십을 자주 해야겠다, 아이를 지켜봐주거나 기다려 주어야겠다.’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다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

과 자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기타 의견에는 ‘이러한 교육이 상시로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이 계속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자녀의 입장 뿐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길 원한다고 하였으며 자녀 연령대 별로 부모가 알아야 하고 대처해야 될 내용이 다르므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 유아 등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아빠들을 위한 부모교육도 필요하며 자녀들을 위한 집단상담이나 교육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 시간에 있어서는 짧다는 의견과 길어서 부담이 되었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었다.

2) 부모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각 회기 별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 회기를 마친 뒤, 회기의 목표와 관련하여 1, 2회기에서는 나의 자녀에 대한 이해 수준, 3회기에서는 나에게 대한 이해 수준, 4, 5회기에서는 나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수준에 있어 프로그램의 참여 전과 후의 차이를 점수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5회기까지 각 회기에 참여하기 전에 부모들이 보고한 자녀, 나, 나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수준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점이었으나 각 회기에 참여 후에 평가한 이해도는 평균 4점으로 1점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각 회기에서 느낀 점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2>에 제시하였다.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1회기 후, 부모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다른 부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내 아이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가정의 부모들도 각각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안을 얻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자녀를 좀 더 이해하고 인정하며 자녀에 기대하는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대로 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아직은 잘 모르겠고 교육을 더 듣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2~6회기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수업을 듣기 원한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스마트폰, 이성교제, 진로탐색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을 다룬 2회기

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 나의 자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되었다는 의견과 각 영역에 대해 이해 수준이 올라갔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특히 이성교제와 스마트폰에 있어 앞으로 자녀들과 열린 태도로 소통하겠다는 의견과 그 동안은 제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자녀를 좀 더 믿고 자율에 맡겨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슷한 의견으로, 이러한 영역에 있어 그동안은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였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부모의 입장보다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다. 진로탐색 주제와 관련해서는 자녀에게 있어 본인이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으나 스마트폰이나 이성교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나 지식을 습득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갈등에 빠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3회기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자녀에게 강요했던 것과 자신과 자녀의 신념이 불일치할 때 표출했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엄마인 나부터 변해야 한다, 자녀의 감정을 읽으려 노력해야겠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겠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양육방식에 대한 사고가 발전하고 있고, 확실한 양육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변화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특히 구체적인 방법들을 집단상담에서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대처 방법을 잘 배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기 자녀에게 있어 경청의 중요성과 의미를 탐색하고, 부모가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데 걸림들을 찾아보는 4회기에서는 ‘아이를 공감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감정이 아닌 사실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 같다.’, ‘아이에게 자극을 주려고 했던 말들이 상처로 남았을 것 같다.’, ‘내 주장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등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아이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감을 먼저 하고 경청을 해야겠다.’, ‘공감반응과 경청의 걸림들은 계속 연습해야겠다.’, ‘아이와 좀 더 대화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남편에게도 이 영양밥상을 꼭 차려줘야겠다.’ 등 회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다짐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5회기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부모 역할 탐색 및 실생활 적용에 대해 훈련하는 회기로 존중하기, 거리두기, 격려하기 등의 방법을 훈련한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나와 자녀 사이에 얼마만큼의 거리가 좋은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듯이 아이만의 공간도 필요하다.’, ‘아이의 공간에 대한 요구나 설득을 통한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 수용과 격려를 연습해야겠다.’ 등 수용적 존중에 있어 공간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수용에 대해서는 평소에 하려고 노력했지만 격려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연습하고 적용하도록 애써야겠다.’, ‘칭찬과 격려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어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많은 연습을 통해 수용적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등 훈련 내용의 연습과 적용을 다짐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마지막 6회기는 자녀와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힘을 북돋우며 학습내용의 지속적 실천을 다짐하는 회기로, ‘집단원들이 들려준 나에 대한 생각들을 들으며 기뻐다.’,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나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 자신을 찾게 되어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아이들의 엄마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오늘 계획은 세운대로 실천 강령을 꼭 실천해야겠다.’ 등 앞으로의 다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나. 지도자 평가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현장 활용성 평가는 <표 IV-4>와 같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개발의 시의성, 적합도, 기여도는 4.6점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개발목적과 실용성은 4.3점이었다.

<표 IV-4>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및 현장 활용성 평가

번호	질문	만족도
1	본 프로그램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6
2	본 프로그램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1
3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
4	본 프로그램을 부모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6
5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3

그리고 시범운영 지도자들에게 프로그램 전반과 회기 별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고 이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3>에 제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답변자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초기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적절히 다루어 주어 현재 관심사인 스마트폰과 이성문제, 진로문제를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알게 되었고, 정보제공과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안내해 주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 간에 초기 청소년기 이슈에 대해 궁금한 것을 공유하고 함께 자녀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동질감을 느끼고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자녀와의 갈등이 부모 자신의 양육신념, 소통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태도 변화가 있다는 의견과 이 시기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진로 등의 주제와 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높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대상을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함으로써 집단원간의 격려와 피드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에 대한 힘을 더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양육신념 파악과 감정 들여다보기’ 등을 통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의 뇌구조, 내 아이의 밥상 등의 활동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을 보고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보완할 점’에 대한 질문에는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 회기별로 시간이 부족했으며 핵심내용을 단순하게 다루고 나머지 내용은 모듈식으로 구성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부모에게 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글로 작성하는 부분을 줄이고 체험 활동이 추가되고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3회기의 감정의 통로 열어주기는 다소 어려워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으며 2회기의 토론은 하나의 입장에 의견이 몰려 진행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본 프로그램은 이전의 식상한 프로그램

과 달리 최근의 정보와 부모-자녀 간의 갈등현상을 잘 조사했고, 이에 따른 적합한 사례와 팁들이 제공되어 참가자의 반응이 좋았다, 초기청소년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집단원간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프로그램 내용이 많으므로 집단상황에 따라 ‘필수’와 ‘선택’을 적용할 수 있게 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로그램 회기 별 강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정리한 것은 <표 IV-5>와 같다.

<표 IV-5> 프로그램 회기 별 강점

회기	회기 명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강점
1	우리아이, 왜 그럴까요?	내 아이의 모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한 근거를 통해 아이들의 행동이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란 것을 설명 우리 아이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줌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됨 초기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 이해 초기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이해를 통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우리아이는 문제다’에서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성의 일부로)이 달라질 수 있었으며 나는 내 아이의 변호사 활동에서도 아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자녀의 뇌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 표현을 통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됨
2	초기 청소년기 HOT 이슈	스마트폰 이성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 정보제공과 부모지도 팁 등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 실천이 용이 청소년행동과 문화를 이해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가능하게 함 현재 문제가 되는 스마트폰과 이성교제 이슈를 다룸 스마트폰으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이 단순히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문화의 한 부분임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 스마트폰, 이성교제, 진로라는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부모님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대처 방식에 대하여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됨
3	생각의 길 산책하기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신념도식을 작성하며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나오는 반응을 직시하고, 직접 행동을 수정할 수 있음 부모의 신념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음 효과적인 양육을 위한 행동변화와 대화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부모의 가치관과 감정을 이해하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신념의 파악을 통해 자녀양육에서 강조해야 할 점을 알게 됨 • 양육신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 • 평소 자녀를 양육하는데 근간이 되는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음 • 신념이 자녀와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를 활동지 한 장에 기술하여 한 눈에 보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가 좋았음 • 자녀와의 관계에서 걸림돌,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부모의 신념과 연결되며 이러한 부모의 신념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생각의 길 찾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효과적으로 진단되어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행동변화 대화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됨
4	엄마는 굿 리스너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 맺기 I)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꼭 필요한 태도인 경청과 공감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이 도움이 됨. • 경청과 칭찬방법에 대해 알게 됨 • 온전히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연습하여 사고를 전환할 수 있게 함 • 현재 겪고 있는 자녀와의 갈등에서 경청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됨 •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주하는 말, 행동들이 아이의 밥상으로 제시됨으로써 아이의 입장에서 어떠한 감정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음.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대화법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발견하여 대화법의 중요성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됨. 구체적으로 대화기법(경청, 공감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음. 아이와의 실제 대화내용을 역할극으로 연습한 것이 도움이 됨
5	존중하는 부모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 II)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개념을 통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할 수 있게 함 • 4회기에 다룬 경청과 칭찬을 실습하고 보완점을 찾을 수 있었음 • 격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달 방법 등에 관심이 있었음 • 실제 격려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나눔으로써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음 • 스페이스 버블로 개인마다 존중하는 거리가 있음을 전달함. 먼저 나 자신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거리를 만들어봄으로써 나와 타인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는 시간이 됨.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존중하기 위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용적 존중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전달함. 수용적 존중으로 연습하는 시간이 됨

6	End & And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자신의 강점을 찾고 강화할 수 있게 하여 태도 변화의 의지를 높임 • 나의 시크릿 활동에서, 장점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힘을 주는 말을 쓰고 시청각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천 과제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음
---	-----------	----	---

1회기에서는 발달적 특성 안에서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과 이러한 이해를 통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자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2회기 역시 이 시기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갈등 해결 및 자녀 지도 팁을 제공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해볼 수 있어 좋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3회기에서는 활동과 워크시트를 통해 부모의 양육신념을 파악하고 이것이 평소에 어떻게 자녀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고 이것이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신념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행동변화와 대화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4회기에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태도인 경청과 공감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현재 겪고 있는 자녀와의 갈등에서 경청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나누는 것이 도움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화기법(경청, 공감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익하였으며 아이와의 실제 대화 내용을 역할극으로 연습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5회기에서는 4회기에 다른 경청과 칭찬을 실습하고 보완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개념을 통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실제 격려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나눔으로써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스페이스 버블 활동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존중을 위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용적 존중으로 연습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 6회기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강점을 찾고 강화할 수 있게 하여 태도 변화의 의지를 높였으며 자신에게 힘을 주는 말을 쓰고 시청각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천 과제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회기 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프로그램 회기 별 수정 및 보완할 점

회기	회기 명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수정·보완할 점
1	우리아이, 왜 그럴까요?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30분 안에 진행하기 어려움 • 라포 형성 프로그램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함 • 발달특성에 따른 자료를 단순화 시켰으면 좋겠음 • 전문적인 용어와 내용을 쉽게 정리했으면 좋겠음 • 집단구조화, 집단원의 참여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시간과 청소년기 특성을 모두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함. 1회기에서는 집단원들과 충분히 집단의 안전한 분위기, 집단원간 라포 형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함
		나는 내 아이의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분 내에 진행하기에 어려움
2	초기 청소년기 HOT 이슈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정보 부족 • 자료의 양이 많아 전달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집단원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프로그램 후반부에 다루었으면 함 • 명상은 도입부가 아닌 초기청소년기 이슈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을 나눈 후에 삽입된다면 좋을 것 같음 • 토론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움 • 자료가 풍성하지만 모든 자료를 집단원들에게 전달하려면 시간이 부족함. 1, 2회기 대부분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 강해 집단원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 구체적인 갈등문제를 다루며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회기 뒤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듯함
3	생각의 길 산책하기	생각의 길 따라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갈등과 조정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함 • 워크시트를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 양육신념, 감정, 행동,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부족함 • 초반부터 양육신념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워업 활동이 필요함 • 자녀와의 갈등에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참여자들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 • 참여자가 변화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하여 부담을 갖는 집단원도 있었음
		감정의 통로 열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을 적는 것을 어려워 함
4	엄마는 굿 리스너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방법에 대한 시청각 자료의 보완이 필요함 • 경험과 공감 뿐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궁금해 함 • 많은 내용을 다루기보다 경험의 걸림돌을 찾아보고 이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

	관계 맺기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면 함 대화법을 다루는 회기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회기로, 자료와 역할극을 통해 경청하는 자세나 공감하는 반응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음
5	존중하는 부모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II)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사례를 통해 적절한 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지도자들이 존중과 격려의 의미가 초기 청소년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다른 회기에 비해 내용이 좀 짧은 듯함. 현재의 활동에 존중하는 부모-자녀관계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갈등해결방법, 즉 존중하면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들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음
6	End & And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에게 편지쓰기 등을 통해 부모의 각오와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함 활동지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

1회기에서는 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다소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집단원의 라포를 형성하는데 시간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2회기에서는 정보의 양이 많아 전달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었고 시간부족의 이유로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회기 초기에 도입활동으로 구성된 명상이 집단원끼리 어려움과 갈등을 나눈 뒤에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1, 2회기 대부분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강해 집단원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프로그램의 후반부 회기를 옮기는 것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3회기에서는 양육신념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활동이 필요하며,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마음을 적는 것을 어려워하여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양육신념, 감정, 행동,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과 활동을 위한 자료 보완과 워크시트를 더 간단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4회기에서는 대화방법에 대한 시청각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며 경청과 공감 뿐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더 궁금해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경청의 걸림돌을 찾아보고 이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회기에서는 성공사례를 통해 적절한 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도자들이 존중과 격려의 의미가 초기 청소년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회기에 비해 짧은 경향이 있어 존중하면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들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 6회기에서는 자녀에게 편지쓰기 등을 통해 부모의 각오와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활동지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감수

1)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감수 의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소년 상담 및 부모집단 상담 경력이 많은 전문가 1인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감수를 받았다. 전문가는 상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5년 이상의 청소년 상담 및 부모 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감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초기 청소년기의 특성이 녹아있지만 연구 목적과 프로그램 구성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초기 청소년기의 특징이 좀 더 잘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1, 2회기의 발달적 특성에서 초기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해 어느 정도 다루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내용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으며, 전문가·부모·청소년의 인터뷰 내용을 잘 살려 각 회기마다 예시 자료(예를 들어, 공감 및 수용 훈련)와 고민 내용을 잘 드러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로 이행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이 맞추고 체계를 더욱 갖추면 좋을 것 같다는 평가 의견이 있었다.

둘째,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인해 프로그램 내용이 다소 많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든 내용이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부모들에게 필요하다고 한정된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으므로 초기 청소년기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추려볼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보가 너무 많은 경우 어떤 부모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정보의 양을 줄이고 집단 안에서 가볍게 녹아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어려운 용어들은 가볍고 일상적이면서 잘 다가갈 수 있는 용어들로 바꾸

고 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쉽게 정리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6회기가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따로 또 같이’ 기능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좀 더 회기 간의 연결을 매끄럽게 이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각각의 회기 내 구조도 일정한 틀로 구성하여 통일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 목표를 좀 더 초점화하여 내용을 추리고 구조를 좀 더 단순화하면서 연결이 되는 구조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걸림돌, 인지적 오류, 공감수준, 수용수준 등과 같은 내용은 좋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예를 들어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새롭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다듬을 것을 제안하였다. 더 숙고하면 조금 더 발전된 것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프로그램 회기 별 감수 의견

프로그램 전반과 더불어 각 회기 별로 감수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에 제시되었다. 1회기에서는 다소 어려운 용어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여 핵심만을 전달할 것을 제안하였다. 2회기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주제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부모 tip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3회기에서는 양육신념이라는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로 교체할 것을 제안하였고 부모들이 따라가기에 내용이 다소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4회기는 구성된 세부 활동은 좋으나 이를 위해 연습 훈련을 제공하거나 특정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5회기는 내용이 쉽고 간결하여 가장 적용하기 쉽게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회기에 비해 부드럽게 연결되고 내용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예시를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예시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6회기는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액션 플랜에 대해서 부모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이 보강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표 IV-7〉 프로그램 회기 별 전문가 감수 의견

회기	회기 명	전문가 감수 의견
1	우리아이, 왜 그럴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딱딱하다. 초기 청소년기를 부를 새로운 용어가 있으면 좋겠음 - 내용이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부모들에게 전달되려면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도록 하면 좋을 듯함
2	초기 청소년기 HOT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많은 내용이 한 회기에 들어감. 주제를 선택한다지만 그렇게 하기엔 좀 더 많은 tip이 필요함
3	생각의 길 산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신념이라는 용어가 학문적 용어이므로 가치관이나 생각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음 - 백의 인지적 오류도 한 회기에 다 다루기는 어렵고 부모들이 자기 신념과 연결짓기도 어려워 할 것 같음
4	엄마는 곳 리스너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 맺기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상 차리기는 초기 접근은 좋으나 연습훈련이 적음 - 경청의 걸림돌 점검은 좋으나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을 어떻게 하느냐 일 것 같으므로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음
5	존중하는 부모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 맺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이스 버블이나 내용은 쉽고 간결하게 되어 있음. 가장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된 것으로 보임. - 수용수준의 예시도 책에 있는 것 말고 현장에서 나온 예시로 바꾸는 것이 필요. - 격려목록은 좋음. 학문적 용어나 내용으로 딱딱한 다른 회기에 비해 부드럽게 잘 연결되고 내용도 무리가 없어 보임
6	End & 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션 플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부모가 작업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면 좋을 것 같음 - 마지막회기에는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 아쉬움. 마무리가 중요하므로 좀 더 내용 보강이 필요함

3.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 만족도 조사, 지도자 평가, 감수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수정 방향을 수립하였다. 프로그램은 세부 지침과 교구재 등을 수정·보완하여, 개발을 완료 할 예정이다.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회기를 필수 회기와 선택 회기로 구분하고, 또한 회기 내의 활동 역시 몇 가지 선택 활동들을 제시하는 모듈식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보완 할 예정이다. 이는 부모교육의 경우, 6주에 걸쳐 부모들이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운 집단이 많으며 회기별 활동 내용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회기 내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선택 활동 제시 등으로 회기별 운영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는 1회의 특성 상 활동 프로그램을 추가 보완하여 집단원들 간의 라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도자들에 초기 청소년기 특성에 대해 좀 더 쉽게 강의할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웹교재 등의 시청각 자료와 지도자 팁과 멘트를 보다 상세히 제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1회기 외에도 2회기부터 6회기까지 FGI를 통해 소개된 초기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초기청소년들의 특징에 대한 살펴보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도록 보완하기로 하였다.

2회기에서는 주제에 대한 찬반 형식의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각 주제에 대해 집단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의 대처방안과 해결점을 집단원들 간의 충분한 공유와 지도자 교육을 통해 찾아보는 방식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3회기에서는 집단원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양육신념을 파악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양육신념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워업 프로그램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양육신념과 양육신념에 따른 자녀와의 소통의 과정들을 여러 장에 나누어 살펴보지 않고,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워크시트를 수정 보완 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의 통로 열어주기’에서는 앞선 작업 및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가 가진 부정적인 무거움 등의 감정들을 다루를 시

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감정에 대해 좀 더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3회기 내용을 3, 4회기로 나누어서 수정하기로 하였다.

4회기, 5회기에서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 맺기’에서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다시 소통하기’라고 회기명을 바꾸어 4회기, 5회기가 함께 소통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4회기를 소통의 기술로 5회기를 소통의 태도로 부재를 기술하기로 하였다.

4회기에서는 ‘우리아이밤상’활동에서 시각적으로 자녀에게 소통하는 방식이 어떤지 살펴 볼 수 있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교구재 개발을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택과 필수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집단원들이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을 충분히 다루어 볼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특별히 ‘굿 리스너 되기’활동에서 집단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각자 자녀와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지, 대처 방법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5회기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와 6회기‘끝, 그리고...’의 내용을 통합하여 선택과 필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수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 IV-8>과 같다.

<표 IV-8>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정 내용

회기 명	수정 내용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식 구성(회기 및 활동) - 회기 내 진행시간 수정 - 활동별 지도자 팁과 멘트 상세히 기술 - 활동 프로그램 보완 - 초기청소년기 자녀들의 특징을 반영한 예시로 수정
1회기 우리아이, 왜 그럴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프로그램 추가 - 활동별 지도자 팁과 멘트 상세히 기술 - 동영상 및 웹교재 등을 활용할 시청각 자료 추가
2회기 초기 청소년기 HOT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 토론형식에서 집단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도자의 교육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수정 - 주제에 맞는 시청각 자료 추가

3회기 생각의 길 산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시트의 간소화 - 부모의 양육신념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시간 확보 - '감정의 통로 열어주기'를 4회기로 구성할 예정 - '자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모의 반응'등의 참고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를 초기청소년기 자녀의 특징을 바탕으로 수정
4회기 엄마는 굿 리스너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청소년 자녀와 다시 소통하기 I' 부재 수정 - '우리아이밥상' 교구재 개발 - '굿 리스너 되기'활동 필수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시간 확보 - '공감하기'활동 선택프로그램으로 수정 - '공감하기'의 예시를 FGI(초기청소년기 자녀의 특징) 통해 나온 예시 등으로 수정
5회기 존중하는 부모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청소년자녀와 다시 소통하기II'부재 수정 - 6회기와 함께 선택과 필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운영 - '수용적 존중'의 예시를 FGI(초기청소년기 자녀의 특징) 통해 나온 예시 등으로 수정
6회기 End & 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회기와 함께 선택과 필수 프로그램 나누어서 운영

위와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여 <표 IV-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 IV-9> 최종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회기	회기 명	목표	세부 내용
1	내 아이의 모든 것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들의 신체적·환경적·심리적 전환기에 처해있는 초기 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이해 ■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의 장 마련 ■ 프로그램 참여 동기 점검 및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청소년의 뇌와 호르몬 변화 이해, 행동양상 등 ■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조망 확장
2	초기 청소년기 핫이슈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들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 양육 시 고민되는 영역에 대한 맞춤형 대안 및 부모 역할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영역에 대한 대처: 학업 및 진로, 성(性)과 이성관계, 청소년 문화(스마트폰) ■ 생생한 사례 제공
3	나의 양육 가치관 (나에 대한 이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으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 탐색 ■ 이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가치관에 대한 탐색 및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의 갈등 상황 공유 ■ 갈등의 저변에 깔린 부모의 가치관 탐색

4	부모를 위한 감정 채깅 (나에 대한 이해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 시 주된 감정에 대한 탐색 및 이해 ■ 부정적 감정 해소 및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정 종류 인식 ■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주요 감정 탐색 및 이해 ■ 주요 감정 중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위로받는 기회 제공
5	엄마는 굿 리스너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다시 소통하기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자녀에게 경청의 중요성과 의미 탐색 ■ 경청 방법 습득 및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관계의 첫걸음인 경청에 대한 의미 설명 ■ 경청이 안 되는 이유 탐색-나의 가치관의 영향 ■ 경청 잘하는 방법 안내 및 연습
6	존중하는 부모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다시 소통하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자녀에게 새로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모색 ■ 자녀양육을 위한 힘 북돋움 ■ 학습내용의 지속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성과 자율성 습득 단계인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부모 역할 탐색 및 실생활 적용-존중, 거리두기, 지켜보기 등 ■ action plan 만들기

V. 요약 및 논의

1. 연구 요약

청소년기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볼 때 초기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청소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가 급격히 발생한다. 또한 가족관계, 학교생활 및 진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수행하도록 요구 받지만 발달적·심리적 미성숙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학업 및 성적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연합되어 자살, 비행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초기 청소년기의 적응 및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는 성인기까지 이어져 신체폭력, 범죄행동, 배우자 학대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반면, 부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와 최초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자 강력한 모델로서 자녀의 부적응을 줄이고 완충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신체적·정서적·인지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많이 놀라게 된다. 이 시기 부모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며 시행착오를 겪는다. 또한 자녀양육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부모가 양육에서 느끼는 이러한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약화시켜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갈등과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을 계발함에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효과적인 지지체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청소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기획, 구성, 실행 및 평가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기획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기의 이해, 초기 청소년기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특히 기존에 개발된 국내·외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향과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을 위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대상 서면을 통한 요구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과 부모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성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실시한 문헌연구와 요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들이 이 시기의 자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둘째, 발달 단계로서의 초기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초기 청소년기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더욱 높인다. 셋째, 후기 청소년기 자녀들이 보일 수 있는 부적응 문제 예방을 위해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을 습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육방법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구성요소로 제공한다. 넷째,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에도 초점을 맞춘다. 다섯째, 부모가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목표 하에 이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도출된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 새로운 관계 맺기의 공통적인 목표와 함께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로 부모역할에 대한 세 가지 하위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하위목표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1회기 150분, 총 6회기로 6~8명이 참여하는 소집단 규모의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다.

실행 및 평가의 단계에서는 전국 5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원 연구진이 포함된 부모교육 지도자들도 1개 집단을 시범운영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참여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부모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기성장 척도를 통해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및 구두를 통한

전문가 평가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서면 평가를 받았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시범운영의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부모 양육효능감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특히 하위요인 중 부모로서의 효능감에서 높은 향상을 보였다. 반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부모의 자기성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의 자기성장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개방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 요인에서 사전검사 대비 사후검사 점수가 증가하여 프로그램 실시 후 긍정적인 변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 밖에 참여부모들이 프로그램 매 회기마다 평가한 자녀 및 자신에 대한 이해수준은 5점 만점 중 평균 3점에서 회기종료 후에는 평균 4점으로 1점 향상되었다. 즉, 본 프로그램의 목표인 자녀에 대한 이해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부모의 만족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초기 청소년기 자녀이해에 대한 자신감과 부모들 간의 공유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공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관을 가지게 되고 실생활에 필요한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시범운영을 실시한 지도자들이 평가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질적 평가 결과, 본 프로그램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적절하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장점으로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진로 등의 주제와 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자료 활용으로 효과성을 높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대상을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하여 집단원간의 격려와 피드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에 힘을 더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 회기별로 시간이 부족했으며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나머지 내용은 모듈식으로 구성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워크시트보다는 체험활동이 추가되고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에 없었던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대상을 초기 청소년기로 정한 것은 최근 신체적 변화로 인해 사춘기가 점점 더 어린 나이에 시작되어 청소년기가 길어지고, 문제 행동을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져 일차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옮겨가는 전환기로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중학교로의 진학으로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 등 환경적 변화도 크다. 따라서 이후 청소년 문제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문지기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의의가 있다. 즉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를 이해하고 이들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로 프로그램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감과 위로를 받는 등 응집력이 높아지고, 지도자 입장에서도 유사한 대상으로 집단이 구성되면 운영이 수월하므로 집단 상담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각종 선행 연구 결과와 프로그램 대상 부모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들을 기초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신체적·심리적·인지적·대인관계 측면뿐 아니라 이들이 최근 가장 많이 고민하고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부모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 신념과 양육 시 느끼는 부모의 다양한 감정을 탐색하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초기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 핵심이 되는 요인을 '존중'과 '경청'으로 선정하여 이를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을 통한 부모의 자기성장 및 태도 변화뿐 아니라 인지적 접근을 통한 교육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최근 빠른 사회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변화와 특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와 얘기가 안 되고,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이해가 없으면 자녀를 정서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

한다는 점이 다른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넷째, 본 프로그램이 부모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03$, $p<.05$) 이는 하위 요인 중 '부모로서의 효능감'($t=-2.01$, $p<.05$)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부모로 하여금 자녀 양육의 자신감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위 요인 중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죄절감',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프로그램 후에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와 같은 요인들은 단기 개입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자기성장은 유의미한 경향을 보였으며($t=-1.75$, $p<.10$) 이 중 자기수용($t=-3.03$, $p<.05$)과 자기개방($t=2.53$, $p<.05$) 하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이 부모들의 자기탐색과 이해, 수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부모 자신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의 4, 5회기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충분히 연습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지각하는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양육효능감과 의사소통의 경우 집단상담을 마친 후 실생활에서 활용하여 이를 적용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추후에 다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실시 및 평가가 본원 연구과제 일정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짧은 시간 내에 실시되었고, 6개 시범운영 집단 중 2개 집단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의 의도한 바가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적용과 집단원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데 시간적 제한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부모들이 일상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본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후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과 결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규정을 선행 연구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사춘기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기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므로 발달 단계를 세분화하여 이에 대한 개입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처럼 발달 단계와 대상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개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선경 (2011).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유연성 및 가족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4(12), 109-136.
- 강유진, 문재우(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 권순영 (2007). 초등학생 학습기술향상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교원대학교.
- 권순영, 유형근 (2007). 초등학생 학습기술 향상을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8, 737-750.
- 권옥경 (2008).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개념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청소년상담복지, 8, 5-29.
- 권은영, 정현희 (201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6), 29-54.
- 김광웅, 문수경(2005).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1), 71-84.
- 김미숙, 백경원, 최소라, 이선화, 장혜선 (2004). 입원아동 어머니를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만족도와 부모역할 확신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연구, 9, 91-101.
- 김수연, 정문자(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5(3), 181-192.
- 김수정 (2012). 교회의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및 부모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회사회사업청소년상담복지, 20, 7-36.
- 김순옥, 노명숙, 류경희, 유현정, 이영호(2008)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 대한가정학회지, 46(8), 37-54.
- 김영옥, 박성연 (2011). 걸음마기 모-아(母-兒)놀이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

-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兒童學會誌, 32, 71-85.
- 김의철, 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 심리학적 접근.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2(!), 96-126.
- 김재연, 이재연 (2005). 이혼재판 절차 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과권리, 9, 817-845.
- 김정옥, 구향숙 (2007). 초등학교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 113-125.
- 김정원 (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김지현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창대 (2002).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청소년 집단상담의 운영, 75-108.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희영, 권혜진, 김경희, 김수강, 염순교 (2005). 중학생의 지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2), 77-99.
- 김희화, 김경연(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 김희진 (200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학연구, 40(6), 239-260.
- 남현미, 옥선화(2001). 가족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아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청소년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노명숙, 김순옥 (2011). 학습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 89-107.
- 노용오(2005). 청소년 심리. 서울: 도서출판 구상.
- 도현심, 권정임, 박보경, 홍성훈, 홍주영, 황영은 (2003).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특성에 기초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兒童學會誌, 24, 103-121.
- 류경희 (2009). 초등학교 자녀의 인터넷 사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 53-69.
- 민성혜, 김경은, 김리진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兒童學會誌, 32, 31-49.

- 박성연, 성숙자, 김상희(2007). 부모 자녀관계. 서울: 교문사.
- 박성환 (2012). 블렌디드러닝 기반 부모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서울 : 숭실대학교.
- 박수연 (2000).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된 변인분석, 강릉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2004). 청소년기 자아발달의 촉진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사회과학논총, 23(2), 73-92.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의 청소년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연구. 생활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박영애, 최목화, 양명숙, 나종혜, 김민정 (2005). 현대인의 자녀양육. 서울: 학지사.
- 박영희 (2012). 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 인제대학교.
- 박진옥 (2006). 체계적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Early Childhood STEP) 양육스트레스와 유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 37-45.
- 박현미 (2006). 웹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6, 157-178.
-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2010).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연구 154. 한국청소년상담원.
- 백양희, 최외선(1997b). 환경 변인 및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농촌,도시 비교-.대한가정학회지, 35(2), 33-47.
- 서숙경, 김은경 (2012).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6(1), 95-109.
- 서한나(2011). 초기 청소년기 자살생각에 관한 종단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30(3), 629-646.
- 선기춘 (2005).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전주

-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진이, 백경임 (2006). 불교사상에 입각한 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宗教教育學研究*, 22, 85-108.
- 송미영, 김영희 (2009). 가족갈등과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23-135.
- 스포츠동아, 2012. 6. 15, 10대 청소년 고민1위는? 학교폭력보다 음란물 중독.
<http://sports.donga.com/3/all/20120615/47033367/2>.
- 신군자, 장희양 (2005).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비교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덴, 프랑스, 일본 등 총 6개국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19, 83-114.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정미, 황혜원(2006).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3, 123-154.
- 안혜원, 이재연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0(1), 77-88.
- 안희정 (2005). 자기효능감 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SEPT)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 85-97.
- 양옥경, 김연수 (2003).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회과학 연구논총*, 11, 115-147.
- 오석구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의식과 적응유연성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동수 (2008). 한국형 상담모델 개발: 상담의 국제화와 한국형 상담의 발전과 전망. *한상담 학술 심포지움*, 3(1), 151-171.
- 유순화(2008).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학회*, 15(7), 157-180.
- 유은희 (1996). 청소년자녀의 부모교육 모형 개발. 서울: 한국가족상담 교육 연구소.
- 윤은혜(2013).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 (2011). 사티어 모델에 기초한 분노다루기 부모교육 집단상담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상명대학교.
- 이경화, 김연진, 배지현(2009). 자녀이해 및 발달지원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의미. 한국영유아보육학, 59, 57-58.
- 이숙미, 김성희 (2009).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21, 723-746.
- 이순복, 정미숙 (2006). MBTI를 활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가족기능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4, 121-132.
- 이옥경 (2004). 좋은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의 내적통제수준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서울: 가톨릭대학교.
- 이은정, 김혜숙 (2012). 버츠프로젝트에 근거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 77-88.
- 이정연, 이창숙(2003). 초기 청소년기 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2), 161-171.
- 이지연 (2001). 청소년 자녀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33-157.
- 이현림, 류현정, 김지혜 (2007). MBTI를 활용한 적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 533-547.
- 이혜미 (2009). STEP과 AP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철학과 그 효용성에 관한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2011). 재외동포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保健社會研究, 31, 258-284.
- 이희정, 조윤주 (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 탐색. 청소년학 연구, 17(2), 253-278.
- 장미경 (2011).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3, 277-297.
- 장성숙 (1999).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심리치료. 11(2), 19-33.

- 장영진 (2000). 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금 (2002). 현실요법 부모 집단상담이 자녀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남대학교.
- 정경택 (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2(2), 151-162.
- 정교영, 신희천 (2011). 자기결정 이론을 근거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3, 603-634.
- 정미숙, 한민경, 한윤경 (2010). 현실치료를 적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9, 229-243.
- 정옥분 (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윤종희, 도현심(2003). 청소년 발달의 이론. 서울: 양서원.
- 조영기, 김석우 (2006). 초등학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평가연구청소년상담복지, 19, 67-88.
- 조윤숙, 이윤주 (2011). 감수성 훈련을 적용한 한국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가족과 문화청소년상담복지, 23, 1-40.
- 좌현숙(2012).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최경순, 차미영 (2004). 유아교육 기관의 환경보전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兒童學會誌, 25, 177-190.
- 최효임, 김성일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15(2), 67-92.
- 한국경제, 2011. 07. 06, 고위험군 청소년 93만명...상담인원은 800명.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11070506331&nid=910&sid=01062073>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1993). LPT(Level up Parent Training) 부모교육 코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2012년 상담경향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994, 2004).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1). 초등학생용 부모참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한민경, 한윤경, 정미숙 (2010). 상호교류분석 이론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35-256.
- 한상금, 김순옥 (2008). 가족여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6, 35-61.
-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7). *청소년심리학*. 서울: 양서원.
- 황성온, 박성혜 (2012).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이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幼兒教育學論集*, 16, 117-142.
- 황창순(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Adams, J. F. (2001). Impact of parent training on family functioning. *Child and Family Behavior Therapy*, 23(1), 29-42.
- Akos, P. (2002). Student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5, 339-345.
- Amato, M. (1990). Assessment of neonatal jaundice in low birth weight infants comparing transcutaneous, capillary and arterial bilirubin levels. *European journal of pediatrics*, 150(1), 59-61.
- Borden, L. A., Schultz, T. R., Herman, K. C., & Brooks, C. M. (2010). The Incredible Years Parent Training Program: Promoting Resilience Through Evidence-Based Prevention Groups. *Group Dynamics: Theory, Reasaerch, and Practice*, 14(3), 230-241.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Duncan, G., & Yeung, W. (1995). Extent and consequences of welfare dependence among America's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 157-182.
- Elias, M. (2002). Transitioning to middle school. *The Education Digest*, 4, 41-43.
- Elias, M., Ubriaco, M., Reese, A., Gara, M., Rothbaum, P., & Haviland, M. (1992). A measure of adaptation to problematic and interpersonal tasks

- of middle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0*, 41–57.
- Eric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Eric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arnefski, N., & Diekstra, R. (1996).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school, and peers: relationship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12), 1657–1664.
- Gecas, V., & Seff, M. A. (1990). Social Class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Centrality, Compensation, and the Relative Effects of Work and Hom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2), 165–173.
- Grant, K. E., Compas, B. E., Stuhlmacher, A. F., Thurm, A. E., & McMahon, S. D. (2003). Stress and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Moving from markers to mechanisms of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29*, 447–466.
- Grant, K., O'Koon, J., Davis, T., Roache, N., Thurm, A. E., & McMahon, S. D. (2003). Stress and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Moving from markers to mechanisms of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29*, 447–466.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2), 415–28.
- Gilban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Toronto.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 Horibata, J. M. (2006).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dolescents: The role of parental monitoring, association with deviant peers and ethnic identity on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doctor's thesis, Oregon University, Eugene, Oregon, United States.

- Kalb, G., & Williams,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and Adult Crime*. Melbourne, Victoria: Melbourne Institute.
- Kosterman, R., Hawkins, J. D., Spoth, R., Haggerty, K. P., & Zhu, K. (1997). Effects of a preventive parent-training intervention on observed family interactions: proximal outcomes from preparing for the drug free year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4), 337–352.
-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2003). Parents' monitoring-relevant knowledge and adolescents' changes and reciproc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74*, 752–768.
- Lee, M. (2003). Korean adolescents "Examination Hell" and their use of free tim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99*(Spring), 9–22
- Lemmens, M. (2011).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2*, 137–139.
- Lyons, J. B. (2004). *Family systems,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Loneliness: A Test of Mediating and moderating models*. New York University Press.
- Mullins, E. R., & Irvin, J. L. (2000). Transition into middle school. *Middle school Journal, 25*, 134–141.
- Northman, J. E. (1985). The emergence of an appreciation for help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uthor. *Adolescence, 20*(80), 775–81.
- NREPP(SAMHSA's National Registry of Evidence-based Programs and Practices). (2012/06/19).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STEP). Retrieved March 22, 2013 from, <http://www.nrepp.samhsa.gov/viewintervention.aspx?id=132>.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4), 420–440.
- Patterson, G. R., Capaldi, D. M., & Bank, L. (1991). An early starter mole for rediction delinquency. In D. Pepler & Rubin(Eds.), *The Development*

-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139–168, Hillsdale, NJ: Erlbaum.
- Piquero, A. R., Farrington, D. P., Welsh, B. C., Tremblay, R., & Jennings, W. G. (2009). Effects of early family/parent training programs 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5(2), 83–120.
- Quintana, S. M., & Lapsley, D. K. (1990). Rapprochement in late adolescent separation–individuation: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Journal of Adolescence*, 13(4), 371–385.
- Ralph, A., & Sanders, M. R. (2003).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Group Teen Triple P program for parents of teenagers making the transition to high school. *Advances in Mental Health*, 2(3), 169–178.
- Sanders, M. R. (2008).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s a public health approach to strengthening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506–517.
- Schmidt, J. A., and Davison, M. L. (1983). “Helping Students Think.”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 563–569.
- Triple P. (2013). The world of Triple P. Retrieved 05/16/2013 from <http://www.triplep.net/glo-en/find-out-about-triple-p/the-world-of-triple-p/>
- Young, M. H., Miller, B. C., Norton, M. C., & Hill, E. J. (1995).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ive Behavior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 Offspr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3), 813–822.

부 록

1. 현장 전문가 요구조사 설문지
2. 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3. 초기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4. 부모교육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5. 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6. 초기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7. 부모교육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8.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10. 자기성장 척도
11. 참가자 전체 피드백
12. 참가자 회기 별 피드백
13. 지도자 피드백

〈부록 1〉 현장 전문가 요구조사 설문지

*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문항에 표 해주시고, 기타의 경우 자세한 기술을 부탁 드립니다.

I. 인적 사항

1. 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석사수료 ② 석사졸업 ③ 박사과정 ④ 박사수료 ⑤ 박사졸업

4. 선생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상담학 ② 심리학 ③ 교육학 ④ 사회복지학 ⑤ 기타 ()

5. 선생님께서 현재 근무하시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②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③ 시설 상담소
 ④ 복지관 ⑤ 기타 ()

6. 선생님의 상담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 ~ 5년 ③ 5 ~ 10년
 ④ 10 ~ 15년 ⑤ 15년 이상

7. 선생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험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00시간 미만 ② 100 ~ 200시간 ③ 200 ~ 300시간
 ④ 300 ~ 400시간 ⑤ 400 ~ 500시간 ⑥ 500시간 이상

8. (중복체크가능) 선생님께서 주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이음부모교육 프로그램-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 ___ ② 이음부모교육 프로그램-다문화 부모
- ___ ③ 이음부모교육 프로그램-따로 그리고 함께하는 부모
- ___ ④ 이음부모교육 프로그램-예비 부모
- ___ ⑤ 개인이 개발한 프로그램
- ___ ⑥ 기타 ()

9. 선생님께서 주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누구입니까?

- ___ ① 학령 전 자녀를 둔 부모 ___ ② 초등학생 부모 ___ ③ 중학생 부모
- ___ ④ 고등학생 부모 ___ ⑤ 기타 ()

10. (중복체크가능)부모교육 프로그램 혹은 강의 요청이 가장 많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 ___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___ ② 학교 ___ ③ WEE센터 ___ ④ 복지관
- ___ ⑤ 건강가정지원센터 ___ ⑥ 경찰서·법원 ___ ⑦ 학부모지원센터
- ___ ⑧ 기업 ___ ⑨ 기타()

11. 선생님의 취득한 상담관련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내용	1급	2급	3급
1	청소년상담사 (여성가족부)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3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4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5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6	기타 ()			

II. 부모교육 관련 설문 1

※ 선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떠올리시고, 다음의 설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모교육 프로그램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집단상담 프로그램 ___② 단회성 강의 ___③ 기타 ()
2.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1회기 시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___① 60분 ___② 90분 ___③ 120분 ___④ 150분 ___⑤ 180분 ___⑥ 기타()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회기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___① 1회기 ___② 2-3회기 ___③ 4-5회기 ___④ 6회기 ___⑤ 7회기 이상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단회성 강의 시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___① 60분 ___② 90분 ___③ 120분 ___④ 150분 ___⑤ 180분 ___⑥ 기타()
5.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___① 주기적 교육(예시 : 6주간 주1회 2시간씩 진행)
___② 집중 교육(예시 : 1주간 3회 4시간씩 진행)
___③ 기타 ()
6. 초기 청소년기의 학령 범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를 참고하시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답변 : ()부터 ~ ()까지

〈보 기〉
① 초등학교 4학년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④ 중학교 1학년 ⑤ 중학교 2학년
7.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전혀 불필요 ___② 불필요 ___③ 보통 ___④ 필요 ___⑤ 매우 필요

8.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어려운 점을 보기를 참고하시어 순서대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보 기〉

- ① 대상모집 ② 대상참여자 요구가 다름 ③ 교구재 부족
 ④ 콘텐츠 빈약 ⑤ 기타()

9.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음 중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친구관계					
2	이성관계					
3	부모자녀관계					
4	자녀와의 의사소통					
5	진로진도					
6	학업지도					
7	성교육					
8	청소년 문화					
9	부모 양육태도					
10	자녀 발달단계별 특징 및 대처					
11	기타()					

III. 부모교육 관련 설문 2

1. 부모교육 시 부모님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신 것은 무엇 인가요?

2.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안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교구재, 매뉴얼, 프로그램 보급 등)

3. 이음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해보신 분은 프로그램에서 수정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상담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효용성이 높은 부모대상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도입 질문]

1. 여러분의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었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주요 질문]

1.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녀에게 특별한 변화를 느꼈나요? 느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 1-1 변화를 보면서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었나요?
 - 1-2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2.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나요?)
 - 진로는?
 - 이성관계는? 성교육은?
 - 대인관계는? (친구관계, 가족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 의사소통은?
 -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는?
 - 그 외 고민은?
 - 자신 외 주변 부모들의 고민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청소년 자녀와 주로 어떤 갈등이 있나요?
 - 3-1. 그때 대처를 어떻게 하나요?
4. 현재 자녀의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4-1. 자녀의 고민을 알았을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5. 부모교육에 참여를 해보았다면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 5-1.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요?
 - 5-2.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했는지요?

[마무리 질문]

1.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2.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에 꼭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부록 3〉 초기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도입질문]

1.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청소년기라고 생각하나요?
 - 1-1. 청소년기가 시작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요 질문]

1. 무엇을 통해 청소년이라고 느끼나요? (청소년이 시작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신체 변화
 - 심리 변화
 - 행동 변화
 - 관계 변화
 - 기타
2. 현재 고민은 무엇인가요?
 - 2-1. 갈등과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대처방안)
 - 진로
 - 이성관계, 성
 - 대인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 학교생활
 - 청소년 문화 (게임, 스마트폰, 채팅문화 등)
 - 그 외 고민
 - 자신 외 주변 친구들의 고민과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2-2. 주로 고민이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3. 최근 부모와 좋았던 경험이 있었나요?

있다면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4. 최근 부모와 갈등이 있었나요?

있다면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마무리 질문]

1.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나요?
2.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나요?

〈부록 4〉 부모교육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도입 질문]

1. 선생님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대상에게 실시하였나요?
2. 선생님의 부모교육 실시 배경(이론적 기반)은 무엇입니까?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주요 질문]

- 프로그램 내용 -

1.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 부모님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3.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기 전 부모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4.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초기 청소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이 개발된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까요?

- 프로그램 진행 -

7. 초기 청소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형식, 실시회기, 구성원 수로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8.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마무리 질문]

1. 그밖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부록 5〉 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1. 초기 청소년기의 양상

영역	의미 범주	진술예문
행동의 변화양상	명하게 앉아있는 모습	- 집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가만히 있거나 명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2) - 멍때리는 모습을 작년에는 있었다.(3) -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14)
	비밀이 많아지고 혼자 있고자 하는 모습	- 자기만의 공간을 바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현상이 자주 생겼어요 (6) - 비밀이 많아지고 자기만의 공간을 원해요. (8) - 불 끄고 깜깜한데 있으려고 하고... (9) - 자기방 문을 잠그고 터치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13) - 화가 났을 때 문을 닫고 그냥 혼자 있다. (15) - 애들이 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놀려고 그래요. (16)
	반항적인 모습	- 단답형으로 '왜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되는 데요?'하면서 거칠게 말한다. (15) - 조금만 싫은 소리 잔소리하게 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푹푹 하면 대답을 안 해요. (13) - 공부하는 그 틀에 맞춰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부만 하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15) - 학교에서는 교무실에 불려갔기도 했다. (3) - 애가 초등학교 때 정말 모범생이었고 말 잘 들었는데 중학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 공부해야 될 때 안 하나 너무 갈등이 심했거든요. (14)
감정의 변화양상	감정조절	-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갑자기 중학교 가면서 견잡을 수 없이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폭발해요. (12) - 어디서 풀지 못하는 것을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부모한테는 못 하나 동생한테 다 가는 것 같아요. (9) - 너무 강하게 카우다 보니까 이제 시춘기가 오니까 아이가 불만을 토해 내더라고요. (15) - 원래는 순종적인 아이인데 올해 들어 아이가 욕하는 모습을 보였다. (4) - 쉽게 짜증을 내요. (6) - 속에서 막 일어나는게 보이고 예민하게 굴어요. (9)
	성격	- 남자아이는 중학교에 들어가니깐 부끄러움을 알아버려곤, 옷을 좀 가리고 다니거나 수건을 두르고 다니거나 하는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2)
의사소통		-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왜 해야되는 거야? 꼭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면서 물어보았어요.(3) - 아이가 순종적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왜 그걸 해야하는지 모르겠어'라고 당당히 얘기했다. (4) - (부모의 잔소리에 대해) 방법이 바뀌어서 속으로 그만하세요가 들어있는 '에'로 대답해요. (9) - 예전에는 '네' 소리가 많았는데 '왜,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11) - 말대꾸를 하고, 말투도 '싫어. 왜 내가 해?' 얘기한다. (13) -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도 길게 안해요. (8)

영역	의미 범주	진술예문
정신 건강	수면문제	- 큰 애는 학교에서도 잠자고, 집에서 잠자고,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잠만 자요. (14)
	무기력	- 무기력해지는 빈도가 조금씩 많아 진다.(2)
신체 변화 및 반응	신체변화	- 런닝을 빼는데 땀을 흘리고 나서 예전엔 그렇지 않는데 런닝이 입은지 얼마 안됐는데 노랗게 된 거예요(1) - 얼굴에 뾰드락지 나는 등 신체적인 특징이 많이 변화가 온다. (16) -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 애가 이제 사춘기가 왔구나.(16)
	외모에 대한 관심	-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남자애가 아침에 안 감아도 될 것 같은데 일어나서 막 감는 모습을 보인다. 예전보다 더 외모에 신경을 쓴다. (1) - 남자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것 같은데 예전보다 더 잘 씻고 씻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2) -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구요. (8) - 외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10) - 화장을 하기 시작하구요, 귀를 뚫는 등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구요. (14) - 외모에 신경 쓰고 옷 입는 것도 신경을 쓴다. (16) - 외모에 관심이 생겨 교복을 좀 줄인다. (14)
대인 관계	친구관계	- 우리집 애는 물론 친구들과 놀면은 분명히 활발할 거예요. (2) - 6학년 후반기부터 더욱 친구들을 좋아하고 학교 마치고 바로 집에 오던 바른생활학생이었는데, 학교를 마치면 친구랑 서성이다 수다를 떨고 온다. (3) - 친구에 관심이 많다. (11) - 너무 노는 거에 집중이 과다하게 해서 노는 걸 절제하라고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구요. (13) - 스마트 폰 사용을 어느 수위까지 허락을 해야 할 것인지, 그걸로 인해서 친구하고 문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위조절이 좀 어려웠다. (11)
	이성교제	- 이성에 눈을 뜨더라구요. (8)
자가보고		- 아이가 직접 '엄마 사춘기가봐 막 심장도 좀 벌렁벌렁거려'라고도 했다.(4) - 아이도 잠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면서 '사춘기가봐'라고 얘기한다.(5)

2.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 반응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감정	놀람 및 충격	- 작년 1학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3) - 놀라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저도 그러거든요. (11) - 공부를 너무 인해서 걱정인데 전에 안하던 몰래 티비보는 것을 해서 충격이었어요. (6) - 내가 우리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걸 먼저 느꼈다. 널뛰기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다. (10년차이 나는 아이가 있어서) 엄마들이 아이들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4)
	상처받음	- 엄마가 매일 상처를 받아요. (9) - 말투도 '싫어. 왜 내가 해?' 얘기하면 상처받는다. (13) - 애가 중학교 가서 공부를 안 했는데 애를 어떻게 할까, 그래도 대학을 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14)
	무작정 힘들	- 아이의 이중적인 성격이 보이면서 너무 힘들었다. 엄마한테 화내고 나서도 '엄마'하면서 오니깐 아이의 성격의 변화를 맨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5) - 많이 힘들어요. (8)
	부담감	- 중학교 첫 시험을 치른다는 부담이 아이보다는 엄마가 더 있는 것 같아요. (6)
	분노	- 처음에는 애한테 화가 났다가 화를 내다보면 나한테 분노가 생겨요. (8)
	두려움	- 그냥 칠령하다 그래야 되나? 가출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우리 아이가 혹시나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움 같은 거, 마음이 좀 아팠어요. (13) - 갑자기 돌발적으로 해 버리고, 생각했던게 막상 부딪치게 되면 당황하게 될까 봐 무서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16)
	긴장감	- 앞으로 장래는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언젠가는 내일이 오겠다는 생각을 하니 긴장을 해요. (16)
	걱정	- 소통을 덜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걱정이 된다. (2)
	기특함	-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 (10)
생각	대처에 대한 생각	- 그래도 애를 놓으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14) - 애가 그러면 그럴수록 잘한다고 자꾸 애길 해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의 노력이 중요해요. (16) - 저걸 놀러?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 사춘기니깐 변화의 과정이구나 하는 이해가 되었다. (4)
	사춘기에 대한 생각	- 사춘기나 이런 과정들은 우리 어른도 겪었고 애들도 겪었다 시피 자연스럽게 그 또래 성장과정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너무 강압적으로 안 돼. (14) - 생각한 거랑 너무나 많이 다르게 가는구나. (8)
	사춘기 자녀에 대한 비관	-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13)

3.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대처방법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문화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면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 (14) - 애가 표출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숨통 튀어주니까 사춘기가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거 누가 닮아서 그래?' 그러다가 '지 애미 닮았지 누구 닮았어.' 그러면서 결국은 제 고집이랑 저 닮은 거고, 그렇게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12) - 저 녀석 나름대로 노력하는구나 싶어서 참아주고. (9)
	순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도 커가는구나. 그렇게 저도 순응하는 거 같아요(1번)
수용	지켜보며 기다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춘기가 왔다는 것을 느끼고는 좀 지켜보면서 조언을 하곤 했다. (2) - 좀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 하고 기다리면 더 좋아지겠구나 하고 기다려주자 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2학년이 되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하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3) - 제가 조금 더덕한 게 뭘냐면 좀 맞춰 주자 맞춰 주고, 조금 뒤로 물러 서가지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마음이 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3) - 염색을 하고 싶으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발라주는 식으로 신체에 향을 주는 거 아니면 웬만한 건 하게 두는 거예요. 애하고 한 템포만 가리았하면 된다. 애가 중학교 가면서 쌓였던 게 한꺼번에 폭발하는데 그냥 애가 사고 안치게 봐주는 수밖에 없어요. (12) - 저 입장에서는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 주었었어요. 무사히 넘어가고 기다려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오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제가 큰 위안을 받았었어요...(14)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얘기를 하고 풀긴 풀었지만 (반복이 되니까 이제 내 잔소리에 내가 짜증이 나요.) (6) - 카카오톡에서 애들 친구끼리 하는 얘기를 보고 충격받아 "니 친구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 하고 직접 물어봤어요. (9) - 한숨을 들리고 나서 붙들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11) - 나도 화가 나면 할 얘기를 다하는 편이긴 하다.(1) - 몸을 약간 괴롭히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얘기를 나눈다.(2) - 처음에는 아이를 보면서 많이 울면서 생각이 고리에 고리를 물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 변해야한다는 생각에 아이와 협상을 했어요(4). - 자리를 잠깐 좀 피하고나서 추스르고 과일이나 껌 가져가고 가서 심호흡도 하고 다시 대화를 했다가 옛날 얘기도 했다가 많이 힘들더라고 얘기를 한다.(5)
소통하기	설득 및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킨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들 나 좀 안아줘, 엄마 마음이 아파, 안아줘, 야단쳤다가도 서운했니? 엄마 조금 이해 좀 해주렴. 내가 만일 부모면 엄마 이렇게 얘기할 때 나도 너랑 똑같은 마음일 수 있다. 하지만 엄마 욕심이 좀 강할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조금 내려놓을 테니까 너라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얘기한다. (13)
	조언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춘기가 왔다는 것을 느끼고는 좀 지켜보면서 조언을 하곤 했다. (2) - 차라리 할 거를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위협하지 않게만 해라 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게 인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9) - 무슨 일을 할 때 조건을 다는 편이고 세 번까지는 기회를 주고 넘어가면 책임을 지라고 벌을 줘요. (제가 너무 챙겨줘 버릇해서) 근데 이제 와서 나가 알아서해 이리키에는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10) - 성교육도 많이 오픈해서 교육했다. (15)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말 답답할 때는 편지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구요. (12)
	스킨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킨십도 많이 한다.(15)

영역	의미 범주	진술예문
나의 경험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예전 시춘기 겪을 때를 잠깐 생각해봐요(1) - 나도 저 때 저랬다 생각하면서 이해해주려고 해요. (8) -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부았을 때 내가 튀겨져 나가지 않고 과연 엄마 아빠 말을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12) - 저는 저희 애한테 먼저 시춘기 겪었던 얘기를 먼저 했어요. (15)
환경변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한다.(2) - 애 방에 컴퓨터를 안 둔다. (15)
화내기 및 야단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를 내다보면 나한테 분노가 생겨서 나에 대해 돌아보고 반성하게 돼요. (8) - 많이 야단도 쳐보고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해 보고 했다. (13) - 야단 칠 때는 게 많을 때는 한 가지를 잡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야단친다. (12) - 제가 좀 많이 풀어주기도 하지만 잡을 때는 무섭게 잡아요. (15)
지지 및 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걸 해줬더니 상도 받았는데 그걸 놓지 않은 게 저는 참 다행이었다. 자녀를 믿어주고 잘 하는 걸 밀어줬다 (14) -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지해줬다. (14)
외부의 도움 찾기	상담 전문가 의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전문가의 도움도 좀 필요로 해서 도움도 받았어요. (14)
	정보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방송 부모60도 보고 정보를 찾아본다. (4) - 아이랑 같이 저는 갱년기를 준비하고 아이는 시춘기가 되니까 저도 갱년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춘기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1)
	타인의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주변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대화도 그렇고, 대화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11) - 다른 분들이 얘길 해주시면 귀담아 들었어요. (13)
아이가 먼저 다가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먼저 풀어져서 와서 얘기를 하기도 한다. (1) - 아이가 먼저 와서 손을 내미는 스타일이다.(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자해를 할 때 남편은 ‘하려면 집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해. 우리집에 자녀가 셋이니까 너 하나 있으니까 애 둘이 있어.’ 그러니까 애가 그다음부터는 그거 이상은 하지 않더라고요. (14) - 맞추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밀짱이라 하죠, 그게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13) - 그때그때 저희 애가 원하는 거를 저는 먼저 제가 선수쳐서 조금 애 마음을 먼저 읽고 항상 먼저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15) -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싸울 때도 있다. (3) - 종교적인 힘으로 기도를 하며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3) - 어느 정도 절제시키고 어느 정도 허락해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때 번 그 순간마다 갈등을 겪게 되요. (11) - 저는 여태까지 애한테 끌려 다닌 것 같아요. (12) - 아이에게 깨끗하게 씻으라고 얘기는 하고, 잔소리를 조금 줄일려고요.(1) - 주제를 너무 무겁지 않게 가는거 필요하단 것 같다.(4)

4. 초기 청소년기 자녀 양육시 고민되는 부분

영역	의미 범주	진술예문
학업 및 진로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를 해야 되는데 꿈을 갖고 있는데 공부는 안 해요. (13) - 욕심은 많아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야망도 큰데 공부는 안해요. (15)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 생각은 있지만 하지 않는다. (1) - 진로로 인해 걱정이된다. 아이가 편향되어서 한쪽으로부터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하다가 그쪽 진로가 잘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2) - 인기있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직업이 아니라 우리아이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게 해주고 싶고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싶다. (5) - 본인이 뭐가 되고 싶다는 그림이 없는게 고민이에요. (6) - 운동쪽으로 재능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라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이 돼요. (9) - 저희 애들은 어려서부터 진로를 정하긴 했는데 돈이 많이 드는 분야라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이 돼요. (10) - 제가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은 좋은 진로 어떤 성장과정을 거쳐서 좋은 진로를 가게끔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1) - 진로에 엄마 욕심이 많잖아요. (13)-
관계 문제	친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에서도 학교마치고 바로 집으로 왔으면 하는데 늘 친구들과 학교에 남아서 시간을 보내고 온다. (3) - 예전부터 친구관계를 중요시했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6) - 친구관계..(단답형) (8) - (친구관계, 가족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 동성끼리도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11) - 매물차게 딱 끊지 못하는 거. (13)
	이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교제도 요즘은 플라토닉이 아니기에 아이들이 넘어가는 선이 손잡고 손잡다보면 또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에 위기감이 말 몰려온다. 엄마들은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면 그 여자친구와 연결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한다. (4) - 성경험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하는 생각을 해요. (15) - 성경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면 그 걱정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의 관계..(단답형) (8) - 부모도 사춘기 겪으면서 거의 애들 때문에 싸우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14)
생활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도 씻어라 먹어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된다. 아이 스스로 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아이 나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나중에 여전히 엄마인 내가 다 챙겨야 할까봐 걱정이다. (1) - 정말 우선순위를 따져서 생활을 했으면 한다. (3) 	
외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날은 미스트를 한통 다 쓸 정도로 외모에 신경을 쓴다. (4) 	
신체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아이는 잠이 많은 것이 고민인 상황이다.(5)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청소년 문화	핸드폰	- 핸드폰을 바꾸어달라고 하는데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다. (2)
	자해	- 그 때 문화가 애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게 있었어요. (14)
	성급함	- 요즘 아이들은 기다릴 줄 몰라 뭐든지 빨리 답을 줘야 된다. (11)
	학교폭력	- 덩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타켓이 된다는 게 제가 제일 염려스럽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13)
	게임문화	- 중학교 때 되면 남자애들은 특히 게임 레벨에 따라 굉장히 어깨에 힘주는 거거든요. (12)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도	-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가 변하고, 제가 겪었던 사춘기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11) -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는 7,80프로 밖에 안 해요. (13)
성문제	성교육	- (성교육에 관해서) 감춰주기도 그렇고 몸을 다 보여주지 말고 옷도 챙기고 나오라고 해도 애들이 아직 몰라서 난감해요. (10) - 성에 대해 저는 가끔 '어떻게 궁금하니?' 하고 물어봐요. (13)
	성관련 부모역할	- 엄마는 남자에 대해 잘 모르니까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느라 물어보면 잘 몰라요. (8) - 몽정을 한다든지 그런게 엄마도 시기를 잘 모르지만 혹시 그럴 때 있었니? (하고 물어보는데) 아빠는 못 물어봐요. (9) - 성교육은 아빠한테 좀 부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대화가 안통하다 보니까 차라리 아들한테 물어봐요. (13)
학교생활	- 중학교 올라가니까 별점을 받아도 안 되고 수행평가도 잘 봐야 되고 또 성적도 잘 봐야 되고 선생한테 뵈보여도 안되고 학교가 또 굉장히 학풍에 예민한 학교라 그런데 연루되서 별점 먹지는 않을지 걱정이 돼요. 내신 성적을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니까. (8)	
의사소통	- 의사소통이 가끔, 대화를 하다가 안돼서 억박지른 벽도 있고 사실 매도 든 적은 있어요. ()	
기타	- 계속 요동치는 시기에 모든 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든다 (4)	

5. 부모가 생각하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고민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고민이 무엇인지 모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다 (1) - 아이가 고민이 없는 것 같다. (2) - 내가 딸을 잘 모르고 있나 있을 정도로 애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3)
학업 및 진로 고민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론 자기 나름대로 진로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표현을 안 해요. (3) - 내가 이 점수가 안 나오면 좋은 고등학교를 못가고 그러면 좋은 대학교를 못가고 그러면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구요 (4) - 초등학교 땐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만약 석차가 나오면 내가 못하는 걸로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게 고민이죠 애가. (7) - 좋은 학교생활을 즐기고 싶는데 즐길 새도 없이 중간고사니까 막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이게 켈 싫은거예요. (8) -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나는 물리를 못해. 나는 반도체를 못해.'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갖기 시작하더라구요. (12)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 애는 자기는 고민이 앞으로 커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제일 고민이래요. (15) - 중학교 1학년 남자애는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직업,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4) - 저희 아이도 진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있다. (11)
외모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는 키크는 것을 가장 고민 하는 것 같다. (4) - 덩치가 작아서 친구들한테 힘으로 제압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9) - 살을 빼기위해 공부하면서 자기 볼을 뜯어요. 매일 머리를 매일 감는다 (5)
자신감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들이 너무 쟁쟁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임원같은 거 안 할 꺼야. 안 나갈꺼야.' 아예 싹뚝 잘라버리더라구요. (4)
수면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이 계속 온다.(5)
생활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심이 많다보니까 다 경험을 하고 싶는데 계획성이라든가 노는 거에 절제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요. (13)

6. 부모교육 참여 경험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교육 참여 종류	강의	- 진로상담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1) - 강의를 들었다. (5)
	집단 프로그램	- 진단프로그램 (6주)참여했다. (4)
유익한 점	편지쓰기	- 아이하고 끊임없이 편지하기, 칠판을 벽에 하나 걸어놓고 계속 부쳐 주면서 편지주고 받는다(4)
	강사의 생생한 사례	-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강사가 얘기해준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5) - 각자 사례가 나한테 경험이 되는 게 참 좋았구요. (12) - 저도 들을 때는 공감이가서 좋았다. (15)
	부부관련	- 배우자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건들어 주어서 좋았어요. (9)
	부모성장	-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기억이 있는 어느 기간 동안은 애하고 부딪쳤을 때 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같아요. (12) - 집에 와서는 실천을 해 보고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다 싶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더 하게 된다. (15)
	눈높이 교육	- 아이 수준에 시선, 생각을 낮추고 행동도 낮춰 아이하고 같은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거나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13)
	부모가 자신의 유년시절 돌아보기	- 부모의 유년시간을 스스로 돌아보게 해서 아이의 입장이 되어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 좋았다. 자기 어린시절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들여다보기, 열다섯살이면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라서 참 고마웠어 얘기하기 (4)
아쉬운 점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	- 뭉뚱그려서 하는 얘기가 많다. 자세하게 얘기를 안해준다. 구체적인 것을 위해서 갔다. (1) - 어떤 프로토콜대로 틀에박힌 것은 싫고 뻘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교육(은 싫어요.) (6)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론적인 얘기	- 교수님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셨다. 이론적인 얘기만 했다. (1)
	반복적인 내용 및 형식	- 부모들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맨날 그 교육이 그 교육이에요. (13) - 늘 상 똑같은 형식적인 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거 같아요. (15)

7.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방식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주제	청소년 발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춘기의 발달, 신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 이런 것 알고 있었는데, 막상 다치면 모르는 분들이 많다. (1) - 인간이 태어나서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들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1) -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7)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공부의 조력자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4) - 학업을 하되 어느정도 아이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엄마들의 역량을 만들어 줄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학업적인적들을 하게 디테일하게 제시해주었으면 좋겠다.(5) - 대학을 가는 다양한 방법을 아이들한테 부모한테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11)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정보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고, 아이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8) - 직업도 정말 다양한 것도 많은데 그런 걸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14)
	청소년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춘기에 대한 인지를 같이 해서 아이의 상관없이 눈높이를 맞춰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11) - 우리가 겪었던 거랑 정말 틀린 이 세상 이 시대에 맞는 준비를 같이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1)
	부모의 양육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들 마인드를 바꾸는 프로그램 (14) -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거부터 배워 엄마들 마인드를 바꾸면 덜 부딪칠 것 같아요. (12)
	인간됨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부모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멀리 바라보고 키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3)
	위로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도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루어 주는 교육을 받고 싶어요.) (9)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진행 방법	회기 및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주일에 한번은 너무 짧은 것 같다. 조금더 길었으면 좋겠다(4) - 요일을 다양하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날을 골라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 - (중학교 들어가기 전) 미리 하지만 너무 길게 말고 겨울방학(중학교 들어가기 전)이랑 들어간 이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중학교 가기 전에 불안해 하니 공부를 어떻게 해야되나와 같이 학업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면 좋겠어요. (10)
	구성 내용	<p>1. 어린시절 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자신의 어린시절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부모가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할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것이다.(4) <p>2.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말 디테일하게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5) - 제가 세분화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주제가 나와서 들을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2) -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얘기, 예를 들어서 많이 하니깐 좋았다. (1) - 엄마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강사, 본인 스스로도 겪고 있었던 과정이기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4) <p>3. 부모자녀 역할 바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녀가 역할을 바꿔서 서로 느껴보는 프로그램 해보고 싶어요. (13) <p>4. 부모들끼리 정보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마음을 열고 참여를 할 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강사의 강의뿐 아니라 엄마들이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9)
	프로그램 대상	<p>1.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와 엄마,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4) - 아이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야외에서 1박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6) - 예방 접종 같이 6학년 말 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히려 애한테 당달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엄마만 받으면 소용이 없고 애들도 같이 받아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8) <p>2.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같은 교육을 엄마, 아빠, 아이가 나누어서 (함께) 받아서 아빠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8) - 아빠들이 직장에서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11) - 아빠 대상으로 그것도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15) - 아빠들 대상으로 시간조절이 돼서 아빠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아빠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2) <p>3. 교사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다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11)
	기대	적절한 대처
	안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이미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불안하므로 '(이 시기엔) 원래 그런 것이고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6)

〈부록 6〉 초기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1. 초기 청소년 시기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지금 청소년기다	청소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청소년기(사춘기)요. (1) - 저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10) - 시작된 것 같아요. (11) - 중2때 생리도하고.. 신체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고 털도 나고 그걸 보면서 사춘기구나 생각했어요. (12)
	도입부, 약간, 가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는 그렇지 않고.. 가끔? 가끔 그러다가 말다가.. (2) - 도입부가 아닐까요? (4) - 약간 온 것 같아요. (5)
	지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중략)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제가 이제 이런게 다 끝났다고 생각되거든요. (9)
청소년기 시작 시기	중1 입학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들어와서 한 달 후..(2) - 중 입학 후 중간고사 칠 때부터. (4) - 중학교 들어와서부터. (5) - 중학교1학년 초반부터 (9)
	중1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1후반부터. (1) - 1학년말부터. (10)
	중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11) - 2학년부터는 이성애 눈을 뜨게 되었어요. .중2때 생리도하고.. 신체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고 털도 나고 그걸 보면서 사춘기구나 생각했어요. (12)

2. 초기 청소년기 양상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신체 변화	첫 생리 때 놀람	- 첫 생리할 때 갑자기 몸에 피가 나와서 다친 줄 알고 좀 놀랐다. (2) - 중2때 생리도하고.. (중략) 그걸 보면서 사춘기구나 생각했어요. (12)
	신체를 드러내기 싫음	- 초등학교 때 발레를 했는데 지금은 발레 수트 입는 게 좀 쪽팔린다. (2)
	여드름	-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7)
	변성기	- 소위 말하는 변성기도 왔구요. (9)
	발모	- 거기에 털도 나구요 (9) - 신체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고 털도 나고 그걸 보면서 사춘기구나 생각했어요. (12)
	가슴이 커짐	- 급격히 제가 가슴이랑 그런 데가 확 커졌거든요. (11)
생각의 변화	규칙 준수에 대한 생각 없어짐	-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범생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에 죽고 사는. (중략) 조금 모호하게 대답해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규칙을 딱딱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4) - 저는 사춘기 그 심경변화는 애들을 많이 때리고 잘못된 거 없다고 생각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9)
	생각이 많아짐	-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10)
	당연히 해왔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성적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의문이 생rudy. (1) - 전에는 과외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왜 그러지?' 하면서.. (3) - 중학교 땐 사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아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굳이 대학교를 성적순으로 따지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날 때도 있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짜증나요. (10)
감정	풍부해짐	- 엄마한테 사소한 걸로 막 울고 싶고 화낼 때, 영화 보면 슬픈 것도 아닌데 막 울어요. (1)
	기복이 심함	- 사소한 일에 감정의 기복이 크다고 할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가다가도 애들이랑 사소한 일로 부딪치거나 그럴 때는..갑자기 막 화가 난다거나 (중략) 다른 애들은 별로 슬프다고 하지 않는데 저만 갑자기 막 감동적인게 생각이 나고 그래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청 짜증을 냈죠. 근데 그때 뭔가 하나를 부서버리고 싶었는데 부실게 없어서 그냥 책상에 었드렸죠. (중략) 사춘기 때 화나는 건 한순간이니까. (10) - 막 감정기복이 많이 심해졌어요. (11) - 중2와서는 컨트롤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12)
	겉이 없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험상궂게 생기고 키 크고 힘만 세면 다 무시워보였어요.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딱 보고 가죠. 다시 말하자면 예전엔 좀 겉이 많았는데 이제 겉이 좀 없어지고. (9)
	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때는 되게 활발하고 맨날 웃고 그랬는데요, 중학교 들어와서 그런지 별로...(2)
	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기도 해요. (4) -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그래요.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 지금은 사소한 일 가지고도 짜증내고 그래요. (5) - 딱친 이유는 사춘기 때문인 것 같아요 (10)
	분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이 좀만 짜증내도 그냥 뒤에서 한 대 까고 싶고. (8) - 중학교 되다보니까 키도 좀 크고, 힘도 생기니까 애들을 좀 짜증나는 애들을 좀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건 있죠. (7) - 그냥 평소에는 동생이 장난을 걸어도 봐줄만했는데 딱 학교 끝나고 여름에 동생이 좀 간죽대서 화가난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중략) 굳이 꼭 사소한 것 갖고 화내게 돼요. (10)
	어른 흉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를 뿔 때 아 사춘기다. 멋있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배 피니까 멋있고 어른 같다.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9)
행동	혼자 있고 싶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혼자 있는 게 좀 더 낫고, 혼자 모험하고 싶고, 혼자 여행가고 싶고. (2)
	방문을 닫거나 잠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엔 문을 열어놔는데 요즘은 닫는다. (2) - 옛날에는 동생이 들어오니까 문을 닫고 잠그는데, 엄마가 잠그지 말라고 잠그는 걸 빼갔어요. 문을 닫고 있으면 엄마가 계속 벌컥벌컥 들어오는데 진짜..심장이..(4) - 사춘기다보니까 확 돌아버린거죠. 근데 차마 아빠의 보복이 두려워서 욕은 못했지만 방문을 꽁 닫고 들어가버렸어요. (10)
	남성적 행동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이 여자애들이랑 있을 때보다 남자 애들이랑 있을 때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여자애들이랑 싸우면 애들이 서로 욕하고 그러는데 남자애들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하고 넘기니까 남자애들이 더 편한 것 같아요. (1) - 발레를 했는데 조금씩 싫어지고 농구를 하다보니까 재미있어서 맨날 좀 남성적인 농구를 친구랑 했는데.. (2)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저는 막 주변 환경에 잘 바뀌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에 공부하는 애가 있으면 저도 공부를 해요. 근데 살짝 좀 활발하고 잘 노는 애들이 있으면 저도 같이 놀아요.(10)
	반항	- 하라고 하는 건 더 하기가 싫어져요. (3) - 엄마한테 혼나면 진심이 아니더라고 '잘못했어요.'해야 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4) - 아빠가 새 아빠니까 저는 중1때 사춘기였고 그래서 아빠가 저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진짜 아빠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중학교1학년 때는 엄청 그랬죠. 가출도 하고 부모님한테까지 욕을 했으니까. (중략) 사소한 걸로 많이 화내고 그랬는데 근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집을 나가고 그랬거든요. (9)
	나쁜 언행	- 엄마한테 가끔 막 나쁜 말도 한적 있고요'아 개 짜증나', 막 '존나 짜증내' 이런 거요. (6) - 중2 올라오면서 더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 중독 돼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정도로 제가 한때는 진짜 욕 없으면 말이 안 났어요. (11) - 엄마 아빠가 식겁할 정도로 욕을 해요. (12)
	폭력	- 동생이랑은 원래 싸웠었고, 합부로 손저짐을 좀 했어요. (6) - 초등학교 때는 장난치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동생이 툭 건드려도 주먹이 날라 가고. (8) - 아주 사소한 다툼에도 제가 먼저 때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웬지 모르게 누군가를 때리는 게 좋았었어요. (9) - 저는 사춘기 그 심경변화는 애들을 많이 때리고 잘못된 거 없다고 생각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9)
대인관계	친구관계	- 마음이 안 맞는 친구는 딱 잘라버리고, 그냥 마음에 드는 친구랑만 놀고. (8) - 친구들이랑 장난을 많이 치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라오고 언제부터 더 장난치고, 더 친구들과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야 하나? (5) - 웬지 의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살기로는 의리가 젤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9) - 가끔 소위 썰드라고 하죠. 잘못을 했는데 혼나고 있으면 좀 해주는 애들이 있는가하면 아예 그럴 때만 빠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중략) 친구는 우정. (10) -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보다는 친구들한테 더 먼저 말하게 돼요. 친구들이랑 말하고 거기서 일단 안 되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요.(10)
	이성에 대한 관심	- 남자친구 사귀는 거, 그냥 친오빠 같던 사람이 갑자기 남자로 보여요.(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들어오면서 웬지 모르게 여자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9) - 이성에게도 원래 조금 관심이 있긴 했지만, 관심이 더 많이 생겼어요. (11) - 2학년부터는 이성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12)
	선생님과 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솔직히 별 상관없었는데 중학교 와서는 털털하시고 활동적하시고 그런 선생님을 좋아하고 소극적인 선생님이 싫어요. (10)
관심사	외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2 돼서 갑자기 외모에 더 신경이 쓰여요. 아침에 머리감고 나오면 고데기 약간하고, 얼굴에 뭐가 나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1) - 화장을 인제 중2때부터 많이하게 된거 같아요. (12)
	성(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춘기 되면서 야동본걸 좀 후회해요<웃음> 제가 원래 운동을 하는데요. 축구를 하면 체력이 기본적으로 돼야하는데 이게 보면서 좀 체력이 많이 딸리는 거예요. (10) - 중학교 1학년 때 애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서로 그때는요 지금 보면 한심한데 애들끼리 야동사이트를 많이 알면 좀 뭐라 해야 하지. 좋은 줄 알아요. (1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나 밖에서는 되게 친절한데 집에 가면 그냥 짜증나고 집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고. (4) - 일진이라고 하죠. 일진이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9)

3. 초기 청소년의 고민 및 갈등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2되니까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고민이 돼요. 고등학교를 가려면 수행평가랑 내신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 - 제가 하고 싶은게 있으면 엄마한테 뺏겨받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기 싫어져서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하고..잘 하는게 없어요. 하나라도 크게 전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2) -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들어 싫어지고.. (중략) 이게 될까? 이걸 얼마나 공부를 잘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확실히 정하기가 어려워요. (6) - 대학교 들어가려면 일단 공부 잘 해야 되고 해외봉사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굳이 대학교를 성적순으로 따지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날 때도 있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짜증나요. (10) - 앞으로 할까도 고민되고, 만약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도 고민되고, 되게 많은 걱정이 많아요. (11) - 뭐하고 싶다 하면은 하고 싶지만 말하지 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커서 나는 뭐가될까 이런 거 걱정 돼요. (12)
	학업 및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이 너무 낮아서 고민이에요. 엄마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2) - 제가 생각했던 성적보다 평균이 낮게 나와서 그게 좀 고민이긴 해요. (5) - 성적고민.. 시험 한 번이라도 놓치면 다른 애들 따라잡기가 힘들어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8) - 초등학교 때는 그냥 벼락치기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게 아예 안 돼요. (10) - 중2들어와서 보니까 곧 중3되고 중3되면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당장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중략)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놔야 뭘 하거나 할 텐데. 제가 진짜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거의 놔가지고.. (중략) 그게 제일 걱정이 많아요. (11)
가족관계	부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에는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이미 포기했어요. (4) - 제가 어제 감기에 걸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곧 있으면 시험인데 몸 관리 좀 잘 하라고 하면요. 꼭 시험이 저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짜증나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데 엄마가 아직 게임을 완전히 끊으신 건 아닌가 봐요. 엇그제 보니까 고스톱 그제 옛날엔 좀 더 큰 게임을 하셨는데 어제 고스톱 같은걸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면서 엄마랑 싸웠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나 잘하라고 하면서 그런 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9) - 게임하면 동생도 잘 안 돌봐주고 저희를 잘 안 챙겨 준 적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엄마가 게임을 또 시작하면 저희를 또 안 돌봐주고 밥도 안 챙겨주고 맨날 승질만 내고 집은 맨날 어지럽혀있고. (9)
	애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도 있는데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외동이라고 엄마가 다 해주면서.. (3)
	형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생하고 싸웠을 때 나보다 동생이 더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자꾸 나한테만 잘못이 크다고 할 때 갈등이 좀 있어요. (5) - 동생하고도 거의 말도 안하고. 사춘기니까 동생이 툭툭 치고 그러면. 누구야 이렇게 먼저 나가는데 아니라 화가 먼저 나고 짜증이 나고 손이 먼저 나가고. (11)
	이성 (異性) 부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요즘 그니까 중1때는 아빠랑 친구처럼 잘지냈어요. 근데 아빠가 바뀐 건지 내가 바뀐건지 아직도 같은 의문인데, 일단 아빠랑 사이가 되게 멀어졌어요.(11) - 요즘에 그냥 가끔씩 남자는 다 적이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진짜. 집에 만약 저랑 아빠가 둘이 있어요. 예전에는 샤워하고 나오면 그냥 다 훌쩍벗고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못그러겠어요 (11) - 막 껴안고, 뽀뽀할려고그러고, 술냄새나는데.. 그런거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하지말라고 근데 또 그거를 다음날 되면 기억못하고 완전히(12)
대인관계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 - 친구와의 관계, 낮가림이 심해서 친구들이랑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을 때..(5) -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훈영이 같은 경우는 친구를 좀 잘 감싸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어떤 한 형을 엄청 싫어해요 그 형은 가요? 자기보다 학년이 낮다 싶으면 엄청나게 세보이고 그런거. (10) - 웬지 그 일진은 꼭 행동하는걸 보면요 자기가 이 학교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녀요. 그리고 애들 앞에 있으면 괜히 복도에다 침뱉고 다니고 그리고 어깨피고. 보통 사람이 지나가다보면 어깨를 서로 좀 비켜주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한사람이 비켜주는데 깨네는 어깨를 그대로 피고다녀요. 그런게 좀.(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쪽은 아니고 친구관계(11) - 자기 혼자 소외감 느끼고 있다는거? 저희가 홀수예요. 홀수였었어요. 그래서 한명이 빠지면 딱 짝수가 되버리는 거예요. 다 한명씩 그런거 똑같이 느끼고 있고, 카톡이나 이런거에서는 말투하나에 좀 너무 이렇게 좀 말투하나에 매달리는게 있어요.(12)
	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시험때문에 저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왜 시험때문에 헤어졌는지 근데 그거는 여자친구의 핑계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도 고민인것 같아요. (9) - 이성관계요. 친구들이랑 가깝게 지내면요. 친한친구로서도 이성이 같아 지나봐요. 좋아하는애가 같아요. (12)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이 떠들어도 한 선생님은 그냥 쿨하게 넘어가실 때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계속 몰아붙일 때가 있잖아요. (10) - 선생님들과 진짜 많이 싸웠어요. 말도안되게. 학생부에 맨날 잡히고(12)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이랑 있어도 제가 다 맞춰주고.. 피곤해요. 재미가 없어요. (4)
신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슴이 커서 트라우마예요. 그냥 달리기 할 때도 힘들고, 키가 작아서 너무 힘들어요. (11)
또래 문화	브랜드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그런 옷(브랜드)을 입는 걸 좋아하고 엄마가 가끔씩 사주기도 하고 하는데, 꼭 유행이 한 템포 썩 안 맞아요. 어른들은 우리가 이런 브랜드 입으면 일단 양아치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만 사주시는 편이에요. (7)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아요. 책을 펴 공부하려는데 옆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하다보면 두 시간이 지나있어요. (중략) 그것 때문에 제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2) - 좀 창피했죠, 핸드폰 없는 게,CPU가 몇 개다, 버려라... 이려고. (7) - 게임을 좀 많이 해요. 스마트폰 게임을 너무 많이 까지는 아닌데, 좀만 하면 환관 더 하고 싶고 그러고..(6) - 요즘엔 핸드폰이 없으면 못살까 같아요(11) -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생각도 되게 많이.. 근데 그때 뿐이에요.(12)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간에 1200원인데 1200원내고 800원 받는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3시간을 3천원을 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에 한시간씩 하면 벌써 세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한달에 4주니까 12000원이잖아요. 그럼 돈이 엄청나게 지출이 든단 말이에요.(10) - 영어학원을 바꿀까 생각중이에요. 그 학원은 바로 옆에 피씨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기도 쉽고 수업하다가 듣기싫으면 가서 게임좀 하다가오고. (1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4) - 아빠가 저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p>요. 전 진짜 아파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중학교1학년 때는 엄청 그랬죠. 가출도 하고 부모님한테까지 욕을 했으니까 엄마아빠가 친아빠한테 가라고 그러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당시에 그때가 제일 같았어요(9)</p> <p>- 네 게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아빠가 먼저 이런 건 아니라 그러면서 게임을 끊고 엄마는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저도 그 시기에 엄마가 싫어서 중1때 사소한 것들로 짜증이 난 것 같아요. (9)</p>
--	---

4. 고민 및 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 및 결과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혼자 해결	스스로 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말, 그런 걸 써보기도 해요. (1) - 저는 그냥 노래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해결돼요. (9) 음악 들으면 그니까 제가 팝송을 좋아하거든요. 그런거 듣고있으면 그냥 - 아무 생각없이 듣다보면 많이 정리가 돼요. 그냥 힘든일 있으면 노래를 들어요. (10) - 주위사람들이 좀 저한테 해준다고..달라질게 있나..그냥 저 스스로가 해야 될 것 같아요.(12)
	계획을 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공부할 계획같은 걸 세우는데,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안 하니까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2)
	고민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짜 고민을 딱 만드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좀 복잡한게 싫어서요. 고민거리를 안만들어요.(10)
중요한 타인과 나눔	부모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나 아빠한테 말씀드리기도 해요. (1) -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 결론은 똑같아요. 많은걸 체험해보면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안다. (3) - 옛날에 부모님께 얘기해 봤는데 별로 말이 안 통해요. 결국 내가 잘 해야 된다고 말하신다. (4) - 낮가림이 심해 친구들이랑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을 때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과 관계가 나아질 수 있었어요. (5) - 제 고민을 그때 엄마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엄마의 경험을 듣고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을 얻어요. (6) -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엄마가 '그게 얼마나 필요한데?'하면 다음에 이거 사주면 내가 뭐 해주겠다고, 거의 협상 수준으로.. (7) - 입학식 할 때 교복이 검정색에 선생님들이 다 매 하나씩 들고 있고..압도됐어요. 부모님이랑 말하면서 마음이 편해져서 애들한테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어요. (8) - 아빠랑은 진짜로 뭔가 아빠한테 말하면 다 편해져요. 아빠한테도 고민 털어놓은게 엄청 많아요. 아빠가 저보다 인생 많이 살아보고 저랑 지금같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저를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빠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고민을 다 말하면 무슨 고민이든 제가 속 시원하게 풀리듯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아주 사소한 고민이

	<p>거나 힘든 고민이라도 아빠한테 말하면 편해요.(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 말한적이 있어요. 아빠는 왜 사춘기를 잘 못받아주냐고. 자기도 사춘기가 있었다 근데 자기가 너한테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내 본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아빠가 그랬던게 좀 다 사라졌어요(11) - 엄마가 그때 아빠가 위로해줬어요 아빠가.그때 아빠한테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11) - 같은 여자고. 일단 성별이 같으니까. 말이 되게 잘통해서 엄마랑도 되게 좋은거 같아요(11)
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빠에게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2)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친구 대회라고 있는데 그 친구를 불러서 같이 고민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많이 고민도 들어주고 저도 대회고민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9) - 제가 좋아하는게 노래거든요. 친구랑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확 날라가요.(9) - 무슨일이 생기면 부모님보다는 친구들한테 더 먼저 말하게돼요. 친구들이랑 말하고 거기서 일단 안되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요. (10)

5. 고민 및 갈등에 대한 부모님의 대처 및 반응

영역	의미 범주	진술예문
폭력적 치별	물리적 치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무서운 말이 '무릎 꿇어.'예요. 매를 가지고 와서 때려요. 어려서부터 맞고 자라서 맞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엄마는 질 때리고 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맞으면 더 좋아지는 것도 없고, 제가 한 번 맞으면 밤새 울거든요. 말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2) - 엄마가 말로 설득할 능력이 없으니까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4) - 어렸을 때도 사소한 것 갖고 자주 혼났어요. 저는 맞아서 혼났어요. (10)
	언어적 치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직히 엄마 아빠들이 말로 하면 애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말을 듣는게 더 무섭거든요. 차라리 때리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애들에게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애들을 말로 다그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 직접 때리진 않아요. 다른 물체를 던진다거나 그런 것까지 하시는데.. 차라리 그냥 때리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1) - 저는 아빠한테는 거리낌이 없는데 엄마한테는 있어요. 왜냐면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전 잔소리가 싫어요.(9) - 굳이 소리를 안 지르고 말로 해도 되는데 뭐하러 소리를 질렀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10)
이해 및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생과 싸웠을 때 엄마가 동생이 장난기가 많고 적극적인 걸 알아서 나중에 동생이 없을 때 저한테 '동생이 장난기가 많고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하라.'고 해주셔서 괜찮아요. (5) - 제가 2주 동안 가출해서 집도 안 들어가고 학교에 계속 박혀있을 때 학교에 딱 먼저 와주셔서 잘못된 것도 다 이해해주시고 (9) - 뭐든지 잘 감싸려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좀 편해진 것 같고 아빠는 진짜 남자 같아요. (9) - 배 안 고프냐고 미안하다고 들어가서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줬어요.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는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뭔가 거리낌이 있어서 말 안하는 편이에요. (10) - 엄마는 좋은 조언을 못주세요. 아빠처럼 잘 주시지는 않아서 엄마한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좋은 조언은 못 받아요. (10) - 엄마아빠가 편해요. 그니까 엄마랑 아빠랑 막 성적인 얘기도 그냥 하구 요성에 대해서 정말 프리해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고. (11)
취미활동을 함께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방 가서 노래 막 부르고나면 힘이 딱 빠지잖아요. 그때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아빠가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구나 하는걸 알아요. (9)

6. 부모님과 좋았던 기억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심리적 지원	지지	- 엄마가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정말 네가 잘한 것 같다. 앞으로도 이 러면 좋겠다.'고 해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1)
	내편이 될어줄 때	-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엄마가 그 애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가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소리 말라.'고 했을 때 좋았어요. (4) - 친아빠랑 이혼한 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엄마를 좀 때리거나 그런 적 이 있어서 저는 그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럴 때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저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제일 좋았죠. 엄마만 믿고 계속 따랐죠. 엄마가 우상 같았어요. (9)
	이해	- 아빠가요 다른 아빠들은 이해를 못 하는걸 이해해주세요. 뭐든지 절 감싸 려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좀 편해진 것 같고 아 빠는 진짜 남자 같아요.(9)
문제해결	- 음악 숙제로 악기를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걸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재료도 뭘 준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지를 모르겠는 데, 아빠가 도와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은 잘 만 들어서 왔어요. (5) - 엄마가 고민상담 해줄 때.. (7) - 엄마랑 아빠랑 제가 막 수행평가 그런 거 있을 때 아이디어도 약간 내주 시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아빠가 가르쳐줄 때 그럴 때 좋았어요. (8)	
여가활동		- 최근에 시험기간 바로 직전에 부모님이랑 놀러갔었는데 거기서 좀 아빠 가 편했어요. 놀러가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10) - 여행가니까 없어졌어요. 아빠가 많이 편해졌어요. (10)
		- 아빠랑 운동도 같이 했거든요. 달리기도 하고 주스도 마시고, 아빠랑 되 게 친해요. 그래서 아빠가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9)
챙겨줄 때		- 초등학교 때 중창부 활동했을 때 엄마가 계속 따라 다니면서 제 뒷바라 지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느끼고.. (1) - 동생도 잘 돌봐주고 밥도 차려주시고 아침에도 동생 공부 가르치고 그러 세요. (9)
원하는 걸 사줄 때		- 제주도 갈 때 아빠가 어머니는 돈을 아껴서 흑돼지만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제주도 왔으니까 옥돔이랑 뱀어도 사주시고, 24만원 어치 먹었어요. (8) - 가끔씩 장보는 거랑, 쇼핑하는 거. (7)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없을 때가 제일 좋아요. 공부를 하다가도 핸드폰 알람이 떠서 잠깐 보면, 엄마가 갑자기 들어와서 공부는 안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다고 그러고, 다 잘 할 수 있는데 와서 참견하고 그러니까.. (3) - 저는 엄마랑 게임 때문에 싸웠었는데 아빠한테 엄마랑 싸우거나 고민있을 때 바로 전화하거든요 아빠한테 그니까 아빠가 노래방으로 오래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가 날아갔죠. (9)
----	---

7. 부모님께 원하는 것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신뢰		- 엄마나 아빠가 저를 조금 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한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저 자신만 아는 거니까.. 엄마가 약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1)
	이해했으면	-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잘 이해해주고 조금 더 제 입장에서 한번만이라도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엄마가 계속 뭐라고 하면 내가 어차피 노력을 해봤자 엄마 아빠한테 듣는 소리는 똑같은데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뭘 얻는 건지도 모르겠고. (1) -답배나 술을 했던 경우에 만약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10) - 자기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감싸주시고 그니까 엄청나게 심한 짓이라도 감싸주시고 그 자식을 이해해줄 수 있는 부모가 좋고요. (10)
이해	과정을 알아줬으면	-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엄마한테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었거든요. '네가 평소에 노력한 만큼 성적은 나오는데 네가 말만 노력한다고 그러지 겠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도 안 그러냐.'고 얘기하시는데 노력한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동생 봐주느라 저를 봐줄 시간이 없어요. (2) - 전 아빠랑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11) - 엄마랑 이야기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2)
관심	관심을 덜 가져줬으면	- 관심을 좀 덜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해도 엄마가 그냥 미리 다 해놔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3)
	내버려뒀으면	- 부모님이 적극적인 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조금 평범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버려두고 조금 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중략) 아예 차라리 말을 안 거셨으면 좋겠어요. (3)
존중	존중했으면	- 네가 뭐 잘 안 되면 엄마가 맨날 '네가 그럼 그렇지.' 그런게 정말 싫어요. 애들은 다 하나의 사람인데...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4) - 엄마 의견도 중요하지만 내 의견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 - 제가 잘못된건 맞는데 잔소리보다는 좀 부드럽게 제가 알아듣도록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화만 내지 말고. (9)
	내 얘기 잘 들어줬으면	- 엄마 아빠가 제 얘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고. (1) - 엄마가 반항을 안 하고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뭐라고 하니깐 짜증이 나요. (2) - 제 이야기를 먼저 듣고, 듣는 태도를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8)

	엄마 방식 강요하지 않았으면	- 자기 식으로 밀고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4)
정서적 지지	위로	-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것도 있지만 약간은 위로받고 그렇게 좋아요. (4)
	화목	- 가족 간에 좀 더 화목해졌으면 좋겠고, 사소한 갈등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8) - 저는 무조건 애들 앞에서는, 자식 앞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싸운 적이 많거든요 애들 보는 앞에서 그런 싸움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9)
기타		- 엄마가 없을 때가 제일 좋아요. 공부를 하다가도 핸드폰 알람이 떠서 잠깐 보면, 엄마가 갑자기 들어와서 공부는 안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다고 그러고, 다 잘 할 수 있는데 와서 참견하고 그러니까.. (3) - 엄마한테 굳이 말할.. 갈등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심난해져요. 서로 그냥 행복하게 살자고, 같이... 같이 사는데 이왕이면 좋게 살자.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그냥 꺼내면서, 기분 나쁜 것도 말하고 서로. (7) - 좀 부드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10)

8. 청소년기에 대한 생각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나를 알아가는 과정		-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왜 짜증나는지 등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거..(2)
성숙해지는 과정		- 그냥 커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숙해지는.. (1)
불안정한 시기		- 뭔가 되게 불안정하고 그런데 어차피 지나야 되는 거. (4) - 사춘기는 우산을 뚫는 비이다. 우산이 원래 막아주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마음이 다 뚫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지 그런 것 같아요. (9)
없었으면 하는 시기		- 사춘기라는게 어떻게 보면 좋은 추억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10)

〈부록 7〉 부모교육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1.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들의 피드백

영역	의미 범주	진술예문
자기이해	가족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앞서 가계도를 소개하는 것을 이틀정도 원가족, 시댁, 친정 모두 다 자세하게 하는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집과 시댁과의 차이점, 그런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들끼리 얘기 하면서 통찰하는게 좋았다고 했어요. (7) -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가족사,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아이한테도 편히 다가설 수 있었다고 해요. (10)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관 경매를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던 내 모습과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모습 간의 차이를 발견할 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11)
	내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이 아내를 고치고 싶어서 왔었는데, 본인이 푸쉬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탱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됐어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아들도 상담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가정적으로 안정됐던 집단이 있어요”(2) - 부모님들은 교육 때,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 평가하셨습니다. (11) -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 때문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자신의 욕심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면서 본인도 편해졌고 자녀를 이해하기도 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 -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란 기대로 왔는데, 사실은 내 문제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12)
자녀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초6 올라가면서 부모님한테 반항적으로 바뀌게 되고, 성적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기대가 너무 컸었고 성적이 떨어지면서 갈등이 심하게 되었어요. 사춘기를 심하게 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집단을 하다보니 담임쌤과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게 되었어요. (5) - 자녀에 대한 이해를 내 입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서,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지겠고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애한테는 느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8) - 자녀가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아이한테 맞춰서 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하세요. (11) 	

부모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님이 자신은 지금까지 학부모로서 살아왔는데, 교육을 통해 자기 반성을 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통찰을 하셨습니다. (11) - 학부모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으로 접근했을 때, 자녀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의 실존에 초점을 맞춘다면 학부모는 자녀가 추구하는 사회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가 바라는 그 가치를 따라 가게 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다시 그것이 부모에게 스트레스가 되죠. 그 차이를 인정해줄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진행했어요. (12)
자기개방	지도자의 자기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들한테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모델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자 자신을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부모들의 자기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얘기 다루는 시간에서 부모들의 속이 풀리구요. (중략) 자기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문제가 일단 발견이 되고 그것이 재해석이 되거나 아님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거나 상처가 조금 다뤄질 때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2) - 오분이든 이십분이든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는게 치유효과가 좋더라고요. (7) -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집단상담을 통해,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함께 한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됐다고 이야기하세요. (11)
동질집단과의 사례공유	보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한 주제로만 집단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욕구들이 좀 있으신거 같아요. 여기서 아이에 대한 답답함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좀 비슷하다 이런 데서 위로를 받는것 같아요. (4)
	지지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아이치료할 때 자기 자신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다는걸 느끼거든요. 본인의 문제를 다룰 때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문제를 오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받고, 전문가가 정리를 해주는 작업들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2) -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도 되게 좋아하셨구요. (4)
실제적인 교육내용	구체적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적인 팁을 주는것이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이나 성적에 관련된 것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10)
	이론과 실제적 스킬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과 실제적 스킬을 같이 가져갈 때, 좋아하셨던거 같아요. (3) - 지적인 측면은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주고 실질적으로 연습을 전문가에게 코칭받는 것을 원하는게 많구요. (2) - 상담에서 적용되는 것들도 많이 알려주고 나서 체험을 하는 것이 맞을 때 좋았던 거 같아요. (1) - 부모교육을 할 때는 부모님들이 기술적이거나 정보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10)

운영방식	프로그램의 명확한 구조화	- 저희 집단 할 때 치료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자기개방의 어려움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줌 주고, 구조화 시킨 다음에 서로 위로받고 지지하는 경험을 주고받도록 그룹작업을 충분히 시켰어요. 그러니까 70명 인데도 한 집단처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3)
	참여할 수 있는 수료식	- 저희는 수료식 할 때 꼭 점심식사를 같이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평가회의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껏 이야기하는 자리가 좋았어요. (2)
	교육 종료 후 편지 보내기	- 부모교육을 할 때, 강의, 집단 모두 중요하다고 하는데 각자 듣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는 것을 꼭 얘기해요.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에게 또는 자기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제가 받아서 읽어먹을 만할 때 우편으로 보내줘요. (중략) 편지 써서 나중에 보내드리는 것, 교육받을 때 해야지 했던 것들이 까먹고 있다고 편지를 받으면 다시 각성이 된다고 했어요. (7)
	추수 모임	- 저는 부모교육을 한 다음에 월례교육을 해요. 월례 교육에서 다지기를 하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루고 싶었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하고, 아니면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본 다음에 와서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는게 도움이 되었어요. (2) - 부모님들끼리 교육이 끝나고 모임을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가지고 오다가 상담자를 끼워서 같이 관리를 해달라고 한 게 시발점이 되어서 자원봉사자로 양성이 된 적이 있어요. (4) - 자조집단처럼 모임이 만들어져 교육받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7) - 집단 후에도 모임을 가지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합류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된 그룹이 두, 세 개 되었는데 집단처럼 깊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나눠지는 분위기가 되더라구요. 앞으로 부모교육을 할 때 사후 모임에 대한 지원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어요. (5) - 교육을 받고 일시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교류하면서 서로의 자녀에 대한 정보나 교육적인 자료도 공유하면서 유지되는 부분들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1)
	아버지 교육	- 대개 부모교육을 하면 엄마들이 오는데, 두 번 아버지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교육이 어머님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1, 2회기에는 자기 욕구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부인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만 해서 죽을만큼 힘들었는데, 회기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12회기, 1회기에 3시간을 했는데, 어떤 분은 아이가 일을 많이 저질러 강제전학을 가고, 아버지는 지방으로 내려가셨는데도 서너시간 걸리는 거리를 오셔서 모두 참석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자녀와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8)

2.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어려운 점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구성원의 특성	참여자 자녀의 다양한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이 대학생자녀를 둔 엄마하고 유치원생들 엄마 이러니까 자기랑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루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2) - 유료로 하는 곳에서는 대상이 안 맞으니 환불한다고 나가 버리시고, 지방에서 한다고 갔는데 아기엄마부터 대학생엄마까지 있어서 갑갑하더라구요. 대상을 딱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올 것 같아요. (7)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맞출 때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저녁타임을 해달라고 할때 그걸 구성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있었어요. (4) - 구성원의 욕구가 다를 때 힘들었어요. 어떤 분은 좀 더 모범적이고 잘하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까가 고민이고 어떤 분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문제해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경우 한쪽만 포커스를 맞추면 서운해하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8) - 참가한 부모의 자아강도 같은 게 다를 때 어려웠어요. (중략) 사전 스크리닝 작업을 못하다보니 교육이 필요없는 부모들도 와서 어려움이.. (9)
	자녀 문제의 심각성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중독, 비행 등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서 어려웠던 거 같아요. (3) - 욕구가 다른 경우는 끝까지 그게 안 다뤄지면 평가가 낮게 나오더라구요. (4) -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엄마들만 오다보니 방어랑 경계가 심해서, 초반에 자기개방이 힘들었어요. (10)
지도자의 특성	지도자의 경험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보 지도자들은 지침대로 따라가고 싶어 하시는데, 엄마들은 돌발반응이 오면서 당황스럽고, 실제랑 부딪히니까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요. (3)
환경적 특성	교육 장소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가 좀 편안한 장소여야 하는데 장소가 자주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옮길 때는 힘들어 하세요. (4) - 학교 장면에서 하니깐 자녀들의 교사가 부모님들을 보고 우리아이와 연결시켜 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엄마가 빠져서 안 왔던 경험이 있어요. (11)
	기자재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너무 어수선하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구요. (2) - 기자재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 (9)
	사전준비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그룹의 경우에 그룹작업을 하려면 셋팅을 미리 다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안 될 때 그게 힘들더라고요. (2) - 학교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교육을 요구하고..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이나 시간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집단상담을 여러번 와야 한다는 사전공지가 없었을 경우 등이요 (11) - 학습방법에 관한 교육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몇 회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다음 시간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대신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의존하게 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12)
	<p>집단 초기 관계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다 처음이신 분들이 참석해서 이분들 간에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노력을 들였던 것 같아요. 다들 처음이시니까 너무 어색해 하시고 서먹해 하시고 이런 상황에선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들과 놀아요. 그런데 친해졌다 싶으면 끝이니까 더 할 수 없냐고 그런 얘기를 막판에 하시죠. (6)

3.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양육 법	자녀성별 에 따른 양육법	<p>- 자녀의 성장에 대해서 좀 어려워해요 묘하게 아들들을 엄마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여자애들은 화장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를 힘들어 해요” (1)</p> <p>-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애들은 초 5-6학년만 되어서 말도 안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자인 엄마의 입장에서 남자아이의 성장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서적, 신체적인 반응 특히 신체적인 반응을 엄마들이 매우 당혹스럽게 느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성별을 구분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p>
	이성(異性) 자녀 양육의 어려움	<p>- 여자인 엄마의 입장에서 남자아이의 성장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서적, 신체적인 반응 특히 신체적인 반응을 엄마들이 매우 당혹스럽게 느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성별을 구분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p>
	형제간의 갈등	<p>- 형제간에 갈등이나 사이가 안좋은 것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4)</p>
	성교육	<p>-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아빠에게 말하려고 하고 남편이 가정적인 경우는 그나마 해소가 되는데 권위적이고 대화가 없는 상황이면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6)</p>
발달 특성 에서 오는 어려움	진로 및 학습	<p>- 진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게 불안해했어요. 공부에 대한 마찰, 진로 그런 거에 대한 마찰도 조금 있어요. (3)</p> <p>- 학습에 대한 불안이 올라올 때인 거 같아요. 5-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확 터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중1때 아이가 말을 심하게 안듣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거 같아요. (3)</p> <p>- 엄마는 관심이 학습에 가있고 아이들은 다른 거에 가 있는데, 그 갈등이 중1때 가장 뜨거운 이슈고, 이 뜨거운 이슈를 교육에 갖고 와서 풀려고 하면 당장은 안 풀리는 거죠. (3)</p>
	이성교제	<p>- 여자 아이를 두신 엄마들은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세요. (10)</p>
	청소년 문화	<p>-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차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갭들이 있는 것 같아요. (12)</p>
	분리준비 부족	<p>- 초등학교 엄마들에서 중학교 엄마들은 의사소통문제 힘들어 했어요. (1)</p> <p>- 마냥 내 손안에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내가 아이를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모르는 아이가 됐다. 자녀가 이해가 안되고, 대화가 안되는 것, 아이한테 맞춰서 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하세요.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에 대한 준비가 안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자녀들이 거부 반응이 생기죠.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성격하고 공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12) - 교육, 실제적인 사례가 모두 필요하고 부모와 사춘기 자녀와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12)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렸을 때와 달리 사춘기 때는 자녀가 반항하기 시작하니까, 부모와 힘겨루기가 시작되죠.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기주장이 생기는 데, 부모님들은 그것이 발달적 특징으로 보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도전이나 소통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시기도 하세요. (10)
또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깊게 들어가면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있고요. (1)
발달에 대한 이해 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성장하면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유와 한계에 대한 틀을 가져야 하는데, 기준점이 없으니까 본인이 흔들리게 되죠. (9) -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부모도 같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알고 있는 것과 접목하는 것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11)

4.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p>청소년기에 대한 지식</p>	<p>청소년기 발달적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반항과 같은 실제적 사례를 가지고 아이의 행동이면에 있는 특성들을 설명해주면 아하! 가 많이 터져나오는거 같아요. (3) - 발달상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더 얘기해 준다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1) - 때 독립하려고 하는 부분과.. (중략) 발달단계에 대한 특성을 엄마들이 잘 모르더라구요.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역할을 좀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구. (중략) 발달단계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관계를 교육할 때 해주면 미리 겁먹기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되니까 불안만 심해지고 애들을 잡는 것 같아요. (7) - 또 아이의 발달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때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지가 나올 거 같아요.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8) - 청소년기 특성, 부모님들한테 아이가 가장 힘든 부분을 다룰 때 발달에 대한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되더라구요. (9) - 발달특성, 문화, 언어.. 은어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넣으면 좋겠어요. (중략) 엄마가 해 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7) - 청소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성 같은 특성들이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자녀의 발달적 측면에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세요. (11) - 사춘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12) - 세대적인 특징, 나이대별로 특징을 잡아낸다면 좋을 것 같아요. (5)
	<p>청소년 문제경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현재 많이 요구받고 있는 주제는 학교폭력예방이나 자살예방, 진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4) -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다루잖아요. 별로 안 오는거 같긴 하지만. 한회기 정도로 다루는 정도는 괜찮은데.. (3) - 룡팀으로 스마트폰 문제, 진로에 대한 팁 정도는 지도자가 알 수 있도록 지침서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1) - 증계테마가 인터넷, 자살, 학교폭력은 꼭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테마는 지금부터 쪽 가는 거니까 어머님들이 미리 캐치를 해서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의 가장 갈등의 시초가 초등학교 때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실제생활에서 다룰 것인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특성을 2013년 시기의 청소년에 맞게 설명한 것, 부모와의 파워게임, 서로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9) -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의 엄마들을 모아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시키면 욕구도 한가지고 관심하고 같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것 같아요. (8)
	청소년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상황에 공부 말고 스마트폰과 같은 놀만한 요소들이 너무 강력한테 엄마들은 이것에 대항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무력감이 굉장히 심한거 같아요. (3) - 문화, 언어, 은어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넣으면 좋겠어요. (7) -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차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껍질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집단이나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
	진로 및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게 불안해했어요. 공부에 대한 마찰, 진로 그런 거에 대한 마찰도 조금 있어요...(중략) 학습에 대한 불안이 올라올 때인 거 같아요...(중략) 엄마는 관심이 학습에 가있고 아이들은 다른 거에 가있는데, 그 갈등이 중1때 가장 뜨거운 이슈고, 이 Em겨운 이슈를 교육에 갖고 와서 풀려고 하면 당장은 안 풀리는 거죠. (3)
	부모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로서의 효율성, 부모자녀관계의 증진, 애착능력 증진, 문제해결능력 이라든지 부모로서의 무능감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담기면 좋을 것 같아요...(중략) 백화점식이 아닌, 주제가 좀 더 명료화되었음 좋겠고, 지금 초기 청소년기를 둔 어머니들이 효율성과, 불안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3)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원가족 관계에서 미해결된 문제들이 현재 나타나고, 이것이 시부모와의 관계 전이감정으로 드러나는 것도 보게 되고 (9) - 감정코칭에서 부모유형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중략)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아이를 다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데 초점을 맞추는게 필요해요. (10) - 자신의 성격이나 이해가 있으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1) - 자기통찰,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참 많았고 (12)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행동의 변화가 부모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품안에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했을 때 허전함과 같은 감정,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 심리적인게 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략) 착했던 아이가 갑자기 변할 때, 그 시점이 5-6학년인 것 같아요. 그럴 거라는 막연한 것이 있지만 하지만 직접 자기가 당해보면 좌절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좌절감, 절망감을 조금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5)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5)

부母的 긍정적인 자기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가 상담하는 곳이거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메리트를 살려서 순수하게 부모가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요.. (중략) 좋은 강의는 수두룩하게 많은데 자기 삶에 접촉을 이루어지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머리만 비대해지고 가슴은 빈약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슴을 좀 풍부해지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 나를 발견하고, 내 감정이 올라오고 좀 해소하고 가는 경험이 없으면 너무 메말라지고 약발은 일주일도 안가요. (3) - 교육을 해보면 점점 친해지고 뭔가 해소하고 가는 거예요. 축제처럼 여기니까. (중략) 지금 더 잘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 해주고, 부모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1) -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부모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모교육에서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건강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
가족에 대한 이해	부모자녀 관계	- 관계라고 생각해요. (4)
	형제서열	- 첫째와 둘째 차이를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7)
	자녀성별	- 아들과 딸의 차이를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7)
	가족기능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반에 아이와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다룹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통해 현재 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가족과의 문제 등을 탐색했어요. 향을 미치고 원가족과의 관계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탐색을 했던거 같아요. (9) - 가족 전체가 역기능적으로 흐르는 관계를 순기능으로 돌리는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있었어요. (12)
양육 방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충이론이 필요한 것 같고, 공감처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회기도 필요해요. (1) -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 전달하는 문제를 언급해주면 현실적인 문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6)
	실제적, 구체적인 양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늦잠 자는 아이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실제적인부분에 대한 팁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중략) 친구를 만나라할까요 말까요. 공부를 시킬까요, 그만할까요? 이런 얘기부터해서 또 교사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요. (4) -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데 아버지들이 12회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프로그램 회기 안에 아버지들이 함께 해야

		<p>하는 세션을 만들면 어떻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나 성교육파트와 같은 부분들이 될 수 있겠네요.. (중략) 교육의 경우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가장 빈도가 많은 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발달적인 특징을 잡아 내고.. (5)</p>
	부부간 합의된 양육법	<p>- 남편 아니면 아내를 아군으로 만들라, 같은 편이 되어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생각하는거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8)</p>
	부모-자녀 간 관점 차이의 이해	<p>-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5)</p> <p>- 애들이 원하는 것, 부모들이 생각하고 해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니면 동일한 상황을 두고 부모님들의 바라봤던 관점과 아이들의 관점을 조사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p> <p>-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집단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죠.. 자녀에게 하는 말과 듣는 말. 스스로 적고 자녀에게도 적어보게 해서 비교한 후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을 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9)</p> <p>- U&I 학습유형 검사에서 사랑구실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내가 사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각성할 수 있는 매뉴얼 작업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신이 지금 가족들한테서 얼마나 엄마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2)</p>
정보 제공	청소년 관련기관 정보	<p>- 청소년 관련 기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팁처럼 한 코너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외로 부모님들이 청소년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명확처럼 만들어서 엄마들에게 주는 것도 좋을 거 같구요. (7)</p>

5.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진행 방식

영역	의미범주	진술예문
교구재 활용	시청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안에 원인 증상 솔루션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엄마들은 영상으로 이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중략) 지도자들이 엄마들한테 설명하고자하는 레벨이 다르잖아요. 영상으로 3분내지 5분으로 딱 구현해주면 어느 누가 해도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중략) 동영상이나 글을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적용하고, 이상적인 내용을 골라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좋더라고요..(중략) 파워포인트 제작할때 거기 설명문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뉴얼, 피티 따로주니까 그걸 옮겨쓰게 돼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2) - 매 회기마다 함축적으로 엄마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서 영상으로 주고 시작하는게 교육할 때 굉장히 엄마들한테 좋아요. (3) - 알콩달콩 파워포인트 자료를 받아보면 일일이 찾아야 돼요. 하나 안에 다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있거든요. 어떤 경우엔 또 다른 거 띄워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4) - 상황극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티비에서 드라마 내용을 따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면 시청각에 딱 몰입을 하게 돼요. 생동감이 있고 전달력이 있어서 확실히 보고 느낌이 오감으로 다가오니 습득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래상담프로그램에 동영상이 있는데 오래되고 애들이 웃는데 만든다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할 것 같다. (6) - 영상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캡처 떠서 한 장면을 보여주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8) - 동영상이라던데 중요한 걸 모듈식으로 딱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중략) 시청각을 활용하는 것, 대기업 부모교육을 할 때 보면 메모를 많이 하는데 차라리 (교육내용)나눠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7) - 동영상이 최근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해요. 저는 따로 EBS 다큐를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는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10) - 영화의 한 부분들을 오려내어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12)
	강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커를 많이 활용하게 되어있거든요, 어른들도 하면 좋죠 (9) - 과제수행이나 퀴즈의 경우 아주 작은 선물이 있으면 훨씬 집중하는 것 같구요 (6)
	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사할 수 있는 인형들이 좋을 것 같아요 (9)
	그림,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카드나 감정카드를 가지고 나누게 하면은 오픈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계슈탈트연수를 갔을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더라고요. 감정 카드랑 인형세트.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부모교육에 교구재가 따로 있어서 좀 다른 부모교육법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면 (11) - 아이들의 인상 같은 다양한 표정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딱 놓아두고 엄마들에게 이렇게 하라 해서 심리적 그림 포트를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9)
	교구재 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렷하게 교구재가 각 회기별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구재세트 이런 식으로.. (11)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거 365달력이나 냉장고에 붙이는거 이런게 좋은 것 같아요. (5) - 나 전달법이나 공감법에 대해서 책갈피처럼 휴대할 수 있는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중략) 생활할 때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교구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6)
	적정 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회기가 적당한거 같아요. (4) - 8~10회 정도 하고 할때는 한 번에 세 시간. 일주일에 한 회기씩 - 6~8회기 정도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마라톤 식으로 하면 집중도 잘하고, 출석률도 높았어요. (9) - 5일 동안 매일 두 시간씩 집중적으로.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6회기 정도로 나눠서. (11) - 두 시간씩 해서 8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12)
	활동 프로그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부분에 서로 감정을 나누게하고 돌아다니면서 팔이라도 좀 접촉 하면서 인사하게 하는것도 마음을 열게하는데 좋았어요. (중략)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도입하는 부분을 좀 탄실히 해서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을 팁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1) - 응집력이 떨어졌을 때 게임처럼 하면서 분위기 띄우는 것, (7) - 게임의 형태로 가정할 것은 지식적인거나 환경적인것들에 대한 환경 통제에 대한 습득 그런거가 돼야 할 것 같구요. 통찰이나 내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고거에 맞춰서 좀 방식을 달리 가져가야되지 않을까.. (5) - 나 전달법이나 대화방법 같은 경우 게임형식으로 만들면 전달력이 훨씬 좋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드게임을 만들어요. 상황, 자기감정, 자라는 점 이 세 가지를 30가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어와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게임을 하는거죠. 훨씬 재미있고 습득도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한다면 OX퀴즈나 베스트 파이프를 활용 하면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 - 프로그램 할 때, 사례를 넣어 역할극을 해요. 공감훈련의 경우 자기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구요 (11)

유연한 프로그램 구성 방식	모듈식 구성	- 동영상이라던지 중요한 걸 모듈식으로 딱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7)
	필수회기와 선택회기 구성	- 예산만 확보된다면 교구재를 잘 만들면 좋겠지만 제한이 있으니까. 필수섹션, 선택섹션, 추가섹션을 만들어서 강사가 다양하게 그룹의 성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6)
지침서 · 워크북	구체적인 지침서 제작	- 지침서만 보아도 팁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대상과 발달단계에 맞게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 처음 하시는 분이나 학교현장에서 적용하기에 편하도록... (6)
	핵심적인 워크북 제작	- 워크북은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양을 적게 하는게 좋아요.(2) - 내용을 방대하게 넣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넣으면 워크북만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
기타 고려 사항	추수모임	- 개인상담이 필요한 분은 의뢰해 드리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남아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하니 좋았어요. (10)
	긍정적인 프로그램 제목	- 프로그램 제목은 희망적인 것으로 하는게 좋아요. (3) - 문제 행동중심으로 해야 될 때 낙인 때문에, 안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모으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4)
	치료적 기법활용	- 내면아이치료를 미술치료랑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미술치료가 상징적으로 각인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는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 때로는 가족들이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좁히는데 있어 현실치료가 도움이 되요 (12)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심화된 접근	- 요즘에 곁핍기식으로 하는걸 싫어하는거 같아요.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배웠음 좋겠어요. (중략) 초기에 깊이 들어가면 두려워하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백화점식 나열은 그런 경우엔 양념식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심화된 내용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 - 주제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자가 연령에 대한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3)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회기	- 학부모, 청소년 둘 다 준비시켜서 공동회기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11) - 같은 프로그램을 학부모용, 자녀용으로 만들어서 특정 회기 때 연합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12)
	외부 야외활동	- 집단형식으로 하기보다, 차라리 한 섹션을 가족과 함께 나들이 잠깐 갔다 오든지 영화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2)

과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아예 숙제를 내요. 엄마들한테 적어오라고 남편한테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과제 속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피드백받을 수 있게 했어요. 또 가족소개를 간단히 하지 않고 가게의 상태까지 그려서 적어오라고 해요. 본인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중략) 뉴욕 초등학교에서 아버지들은 야간에 모임을 하는데, 짧게 강의식으로 해서 집단역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9)
아버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서 교육 요구가 많은데, 자영업하는 분들이 기회가 없다는게 문제다. 성공케이스에 외국사람 말고 우리나라 케이스를 넣어주면 좋겠다. (7) - 민방위훈련 교육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6)

〈부록 8〉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답안지에 ○ 하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1	2	3	4	5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권잡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1	2	3	4	5
9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1	2	3	4	5
10 나는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1	2	3	4	5
12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1	2	3	4	5
13 나의 흥미와 관심을 부모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1	2	3	4	5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다.	1	2	3	4	5
15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1	2	3	4	5

〈부록 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답안지에 ○ 하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잘모 르겠 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자녀에게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1	2	3	4	5
2 자녀는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준다.	1	2	3	4	5
3 자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기분상태인지 잘 안다.	1	2	3	4	5
4 나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형태에 만족한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녀들과 의논한다.	1	2	3	4	5
6 나는 자녀에게 애정을 솔직히 표현한다.	1	2	3	4	5
7 자녀는 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준다.	1	2	3	4	5
8 자녀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9 나는 자녀들과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1	2	3	4	5
10 나는 자녀에게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1	2	3	4	5

〈부록 10〉 자기성장 척도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답안지에 ○ 하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아주 그렇 다
1	나는 부모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다.	1	2	3	4
2	나는 자녀가 보잘 것 없는 존재 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	1	2	3	4
3	나는 자녀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 이유를 표현한다.	1	2	3	4
4	우스꽝스런 작은 일로서도 나는 자녀가 그만 딱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부모로서 장래 일에 대한 결정을 미리 생각하고 싶지 않다.	1	2	3	4
6	나는 지금의 나의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유감이 없다.	1	2	3	4
7	나는 자녀에게 NO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1	2	3	4
8	때때로 나는 나의 자녀의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다.	1	2	3	4
9	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10	나는 내 자녀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11	나는 자녀와 반대를 무릅쓰고 싸우는 것보다 내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1	2	3	4
12	때때로 나는 나의 자녀가 생소한 존재로 여겨진다.	1	2	3	4
13	부모로서 나의 문제는 부모로서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14	나의 자녀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다른 존재로 여겨진다.	1	2	3	4
15	나는 부모로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16	나는 자녀가 많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자녀의 특징을 잃어 버린다.	1	2	3	4
17	나는 나이가 들면서 부모로서 미래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초조하고 무서워 진다.	1	2	3	4
18	나는 나의 자녀를 그가 아닌 다른 어떤 아이들처럼 그려보고 싶다.	1	2	3	4
19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부모로서 나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데 자녀의 견해를 살핀다.	1	2	3	4
20	내 자녀가 지난 몇 주 동안은 내 자녀가 아니었던 것 같이 느껴진다.	1	2	3	4

21	나는 가끔 부모로서 어느 때는 이걸 원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 다른 것을 원하곤 한다.	1	2	3	4
22	나는 다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 자녀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 않는다.	1	2	3	4
23	나는 내 자녀에게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1	2	3	4
24	이따금 내 자녀가 내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친다.	1	2	3	4
25	나는 부모로서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행동한다.	1	2	3	4
26	나는 내 자녀에 대한 남의 비판에 흥분하지 않는다.	1	2	3	4
27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나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 갈 수 없다.	1	2	3	4
28	나는 나의 자녀에 대해 잘 안다.	1	2	3	4
29	나는 부모로서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30	내 자녀들은 내 앞에서 그들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	2	3	4
31	자녀들이 나를 잘 이해하는 것은 내가 나의 감정과 소신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1	2	3	4
32	때때로 나는 내 자녀가 잘 모르는 존재로 생각된다.	1	2	3	4

〈부록 11〉 참가자 전체 피드백

번호	질문	답 변
1	부모교육 집단상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과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기 - 자녀의 뇌구조를 알아서 (자녀의) 생각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 3회기 - 나의 자녀의 양육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생각의 길 찾기에서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다. - 감정의 길 찾기를 통해 역할로서의 부모 이전에 한 인간인 나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되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의 나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양육가치관 탐색을 통해 나의 가치관과 다르게 양육하고 있는 모습 발견. - 내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아이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됨. • 4회기 -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핵심을 짚어낸 느낌이였다. -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 대처했었는데 교육을 받고나서 (경청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을 깨달음. - 경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 경청의 걸림돌을 통해 아이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들으려는 게 아닌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에 맞춰 생각하고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됨. - 밥상차리기 활동에서 시각적인 자극과 함께하니 이해가 쉽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음.
2	부모교육 집단상담에서 참여하기 어려웠던 프로그램과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기 : 이성교제, 스마트폰, 진로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상황에 이했을 때 대처가 잘 안됨. • 4회기 :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스스로 실제로는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불편한 진실이어서.
3	부모교육 집단상담 후 깨닫게 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같은 부모가 되어야 할 것 같다. • 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키울 것이다. • 집에 가서 아이와 스킨십 하면서 실천해야겠다. • 경험학습이 꼭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 (아이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었다. • 목소리를 낮추고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고 스킨십으로 실천해야겠다. • 내가 부모라고 아이들한테 막 대하면 안 된다는 것. • 흐름속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기다려야겠다는 것. • 소규모 (집단)상담이 더 효과적이고 사례를 직접 들으며서 같이 소통하는게 효과적인 것 같다. • 부모의 감정과 신념의 중요성. • 아이의 감정 읽는것과 격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만

		<p>해결되면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입장을 늘 이해한다 하면서 부모의 기준에 맞춘 아이로 양육하고자 강요하고 때로 감정에 치우쳐 그 기준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것. • 좀 더 아이를 이해하고 생각과 행동을 하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는 부모자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이의 성장과정에 맞춰 부모로 기다리고 믿으며 지켜봐줘야 하겠다는 점. • 내가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아이를 믿고 같이 해결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 ‘왜 내 아이는?’이란 의문이 있었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함은 적어지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졌다. •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다짐이 필요함.
4	<p>부모교육 집단상담 운영에 대한 기타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식으로 운영되지 말고 항상 상시로 있었으며 좋겠다. • 자녀의 입장 뿐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길 바란다. • ‘초기 청소년의 이해’이므로 5, 6학년 아이 엄마들의 더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 일정을 조정하는게 어려움이 있었음. • 많은 부모들이 참석하고 배웠으면 좋겠고 계속 교육이 연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부록 12〉. 참가자 회기 별 피드백

회기	교육을 통해 느낀 점
<p>1회기 우리아이, 왜 그럴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된다. • 참여한 부모들과 유대감과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제 속에서 좀 더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각성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 내 아이의 문제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각 가정마다 부모들이 각각 다른 눈으로 문제를 느끼고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아이에 대한 고민이 고등학생 때 끝이 아니라는 것과 지속적인 다른 고민이 생길 텐데 교육으로 같이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와 나의 사춘기 돌아보기를 통해 (자녀의) 특성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 (아이를) 더 이해하도록 노력해야겠다. • 청소년기는 혼란과 혼돈과 갈등이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을 조금은 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집에서도 아이의 황당한 행동에 화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대할 자신이 생겼다. •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았음. •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던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 아이가 성장하고 있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해야겠다. •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아이의 입장이 아닌 내 기준으로 판단하였었는데 조금이나마 아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자녀를 내 기준으로 키우려고 객관적인 것은 희미했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해야겠다. • 아이의 행동이 비단 우리 아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위안을 받았지만 교육 대로 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 불안정하고 호기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은 이해가 필요하다. • 아이가 자라는 과정 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이해한다 하면서 상황이 닥치면 망각해 버리는 나의 양육태도에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 아직도 더 교육을 듣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잘 모르겠다. • 2-6회기까지 좀 더 관심있게 수업을 듣자.
<p>2회기 초기 청소년기 HOT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을 잘 관리해서 중독으로 바지지 않게 해야할 것 같다. • 아이를 머리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다. • 우리 아이만 그런게 아니더라는 것에 이해 수준이 올라갔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녀들을 한 번 더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성교제에 대해 좀 더 범위를 넓혀 아이와 같이 공유할 수 있게(하고 싶다.) • 이성교제와 진로에 있어 (자녀가) 안전하게 자기를 노출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갈등에 빠짐. • 아이에게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아이들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아이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단속을 해왔지만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 나의 단점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며 내 스스로 불편해하는 나를 잘 다듬어 가는 시간이 되었다. • 스마트폰에 대한 내 아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오늘 프로그램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 스마트폰에 있어 모든 부모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라서 참 좋은 교육이었다. •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집에 가서 연습을 해야겠다. • 스마트폰 사용, 이성교제 등의 부정적인 면들이 부모들의 역할과 가정의 분위기에 의해 많이 좌우됨을 느꼈고 부모와 자녀간의 오픈된 관계를 통해 긍정적으로 유도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 스마트폰과 이성교제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과 규제를 병행해야겠다. • 스마트폰과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 • 내 아이와 스마트폰으로 서로 갈등을 갖고 있던 중 해결책 보다는 걱정에 너무 치우쳐 고민했던 것에 비해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던 내 자신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p>3회기 생각의 길 산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다는 것. •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 나의 신념은 나를 결정하는 신념일 뿐 내 아이의 신념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 누구나 그 지점에서 다들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 그리고 내 부모님도 그분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키웠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 감사하다. • 양육신념을 인정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해하자. • 최대한 마음 컨트롤을 하고 아이 마음을 알아줘야겠다. • 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다른 것도 보인다. • 나의 아이에 대한 감정이 아이 때문이라기보다 내 감정이고 확대 해석하는 불안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 부정적인 감정으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하고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겠다. • 아들에게 내식대로 강요만 해온 것 같아 미안하다. 존중해주도록 노력하고 싶다. • 아이와 함께 생각하며 의견을 나눠봐야겠다. •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 입장을 많이 생각해야겠다. • 나의 감정을 아이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다. 아이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해야겠다. • 나의 신념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아이의 감정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양육방식에 대한 사고가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는 듯하다. • 나 자신이 변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나중에 끼칠 영향까지 생각해봐야겠다. •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할 듯. • 아이는 부모의 두시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였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으려면 나의 모습부터 더욱 살펴보고 변화를 시도해보아야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엄마로서 나부터 더 많이 변해야겠다. 각 가정 각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듯, 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키웠으면 한다. 실생활에 필요한 대처 방법을 잘 배웠다. 나의 기준이 아니고 내 아이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한 양육관을 가지게 되었다.
<p>4회기 엄마는 굿 리스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아이를 이해해야. 참을 인자를 항상 세기고 시간을 갖자. 나 자신이 생각만큼 아이를 이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했던 나를 발견한 것 같다. 공감, 감정교류,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꼈다. 아이의 말을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기. 끝까지 들어주도록 노력하기.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에 갇혀서 답답했고 아이에게 접근을 못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공감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아이와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와의 대화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적인 것을 잘 실천하지 못한 것 같다. 아이를 공감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감성이 아닌 사실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 같다. 앞으로 아이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감을 먼저 하고 경청을 해야겠다. 대화 전에 소통을 중시하며 마음을 익어서 대화기술을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들게 되었다. 이론은 이해가 되고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흐트러지고 리듬이 깨진다. 가다듬는 기회가 되어 반성하고 다시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공감반응과 경청의 걸림들은 계속 연습해야겠다.
<p>5회기 존중하는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려와 칭찬을 더 많이 해야 하겠다. 이해수준은 변함이 없겠지만 조금 더 아이들을 이해하고 노력하기로 한 것 같다. 아이와의 심리적 거리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격려와 존중이 중요하다.

〈부록 13〉. 지도자 피드백

번호	질문	답변
1	본 프로그램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적절히 다루어 주면서, 현재 문제 시 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이성문제, 진로문제를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알려줘 정보제공과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안내함 • 청소년기 발달과 이 시기의 이슈들에 대해 궁금한 것을 나누고 공유하며 자녀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됨 • 초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 시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질감 속에서 자녀이해의 폭이 넓어짐 • 자녀와의 갈등이 부모 자신의 문제나 양육신념, 소통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것을 발견하여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음 • 사춘기가 시작되는 자녀들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음 • 사춘기를 겪는 자녀의 부모에게는 현재 힘든 상황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 사춘기에 쟁점이 되는 주제들과 부모-자녀 관계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룸
2	본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진로 등의 주제와 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를 보다 설득력있게 이해하게 함 • 동영상 자료를 통해 자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음 •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게 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도움 • 대상을 초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한 것 • 자녀의 뇌구조, 내 아이의 발달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게 됨 •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닌 상호간의 소통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 • 집단원간의 격려와 피드백을 통해 변화에 대한 힘을 얻게 됨 • 양육신념과악과 감정 들여다보기를 통해 부모 자신을 이해하게 됨 • 기존의 부모교육과 달리 특정시기에 초점을 맞춰 집단상담 대상을 초점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관계를 다루어, 이 시기의 부모들의 고민을 잘 아우름
3	본 프로그램의 보완할 점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 회기별로 시간이 부족함 • 2회기의 토론은 참가자들이 동일한 의견이 많아 진행하기 어려움 • 진로영역의 참고자료가 부족 • 3회기의 감정의 통로 열어주기는 어려워서 수정이 필요 • 핵심내용을 단순하게 다루고 나머지 내용은 모듈식으로 구성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함 • 학부모에게 유용한 내용들을 다양한 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충해야 함 • 프로그램 자료가 많아 집단 인원수에 따라 시간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청각자료의 활용 •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워크시트보다 체험활동을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음
4	프로그램 관련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은 이전의 식상한 프로그램과 달리, 최근의 정보와 부모-자녀 간의 갈등현상을 잘 조사했고 이에 따른 적합한 사례와 팁들이 제공되어 참가자의 반응이 좋았다. • 초기청소년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집단원간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어 효과적임 • 사후관리와 효과성 유지를 위한 자조집단과 같은 모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음 • 프로그램 내용이 많으므로 집단상황에 따라 '필수'와 '선택'을 적용할 수 있게 했게 하면 좋을 것 같음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for Parents' with Early Adolescent

Abstract

The Early adolescence is immensely developed physical, emotional, and cognitive and get stressed in family relationship, school life, career, and so on. But they don't well deal with these problems because of 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immature. Their parents are surprised by early adolescence's changes and go through interaction with them. The hardships weaken parents' support for children and get trapped in increase with their problem. Therefor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which helps parents with early adolescent children to deal with troubles various problems with them is meaningful.

This study aimed for development of program in order for learning of effective parents roles with early adolescent children. To conduct current study, extensive literature survey data from early adolescence was carried out. Also, interview survey data from adolescents, parents, and professionals who have experience of parents counseling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research and demand survey, the program categorized understanding of early adolescence, self as parents, and relationship of parents-children. This program was designed to structured group counseling and lecture. The subjects were 38 parents with children from 10 years old to 14 years old; they were given a demonstrative program. The study found out that the experiment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f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self opening of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promising program subjected to parents with early adolescent and presented effective parenting factors for them. In the end,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